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 論文

朝鮮時代 島嶼地域 邑城에 대한 研究

東亞大學教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姜 頭 龍

2007學年度

朝鮮時代 島嶼地域 邑城에 대한 研究

指導教授 金 宰 賢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2月

東亞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姜 頭 龍

姜頭龍의 文學 碩士學位
請求 論文을 認准함

2007年 12月

委 員 長	朴廣春	인
-------	-----	---

副委員長	金宰賢	인
------	-----	---

委 員	李東注	인
-----	-----	---

국문초록

조선시대 도서지역 읍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own Castles of the Chosun Period in Islands

고고미술사학과 강 두 응
지 도 교 수 김 재 현

도서지역 읍성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성격상,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지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형상 남쪽과 서쪽의 군사적 주요거점이면서 도서지역의 행정 치소로서의 기능도 같이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도서지역 읍성의 특징은 지형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 구분되며 평지성+내륙성, 평지성+해안성, 평산성+해안성, 평산성+내륙성, 산성+내륙성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평면형태에 있어서는 방형, 원형, 부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체성의 축조수법은 세종20년(1438)에 『축성신도』가 반포된 이후, 연해읍성들이 본격적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육지읍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는 둘레와 높이의 경우 육지읍성보다 규모가 크고 높이 또한 더 높다. 부대시설 중 치성의 경우는 방형, 장방형, 정방형, 반원형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반원형은 진도읍성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방형과 장방형 그리고 정방형은 모든 읍성에서 확인되었다. 다음 치성의 규모를 비교하면 육지읍성 및 영·진·보성의 길이와 너비가 평균 5~7m인데 반하여 도서지역 읍성의 치성은 10m이상으로 크고 넓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성문의 배치 숫자에 있어서는 도서지역 읍성은 3문인 반면 육지읍성과 영·진·보성은 2~4문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그 외 옹성, 해자, 여장에서는 육지읍성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음 관방체계에서 근기지역인 강화도에 14성 9봉수 4요망대 1진과 돈대위주의 12진보 54돈대 8포대, 근해지역인 거제도에는 1읍성 7진과 6봉수, 남해도에는 1읍성 4진성과 4봉수, 진도에는 1읍성 2진성과 6봉수, 외해지역인 제주도에 3읍성 9진성 25봉수 38연대가 위치하고 있다.

주요어 : 도서지역, 읍성, 위곽형태, 치성, 성문, 해자, 관방체계

목 차

I. 머리말	1
II. 조선시대 읍성에 대한 연구동향	6
III. 도서지역 읍성의 현황	10
1. 제주읍성	10
2. 고정읍성	14
3. 정의읍성	16
4. 대정읍성	19
5. 사 등 성	23
6. 고현읍성	27
7. 남해읍성	33
8. 진도읍성	35
9. 강화읍성	39
10. 교동읍성	42
IV. 도서지역 읍성의 특징	46
1. 입지조건	48
가. 지형적 위치	48
나. 지리적 위치	49
2. 평면형태	50
가. 방 형	51
나. 원 형	51
다. 부정형	51
3. 축조수법	52
가. 분 류	52
나. 특 징	53
다. 체성의 규모	57
4. 부대시설	60

가. 치성	60
나. 성문, 응성	66
다. 해자	70
라. 여장	74
 V. 도서지역별 읍성 중심의 관방체계	76
1. 근기지역	79
2. 근해지역	81
3. 외해지역	85
 VI. 맺음말	94
참고문헌	96
Abstract	102

표 목 차

<표 1> 제주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12
<표 2> 정의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17
<표 3> 대정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21
<표 4> 사등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25
<표 5> 고현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31
<표 6> 남해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34
<표 7> 진도읍성 치성 현황	36
<표 8> 진도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37
<표 9> 강화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40
<표 10> 교동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43
<표 11> 도서지역 읍성 현황	45
<표 12>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된 도서지역 읍성 성곽규모/ 실측거리 비교표	58
<표 13> 도서지역 읍성의 치성 현황	62
<표 14> 조사된 읍성 및 영·진·보성의 치성 현황	63
<표 15> 강화읍성 성문의 육축양식	67
<표 16> 도서지역 읍성의 성문과 옹성 현황	68
<표 17> 남해안 읍성과 영·진·보성의 문지와 옹성 현황	69
<표 18> 조사된 도서지역 읍성의 해자 현황	72
<표 19> 조사된 남해안 읍성 및 영·진·보성의 해자 현황	72
<표 20> 문헌에 수록된 도서지역 읍성의 여장 현황	75
<표 21> 문종실록(1451년)에 수록된 경상도지역 읍성 여장 현황 ...	75
<표 22> 강화도의 진·보와 관할 돈대 현황	80
<표 23> 제주도 3읍성 9진성 25봉수 38연대 현황	87
<표 24> 도서지역별 읍성 중심의 관방체계	88

도 목 차

<도 1> 전국 음성 현황도 (제주도 제외)	4
<도 2> 조선시대 초기(1392~1418) 왜구 침구 현황도	5
<도 3> 제주도 제주읍성, 고정의현성, 정의현성 대정읍성 위치도 ..	12
<도 4> 제주읍성 추정 평면도	13
<도 5> 고정의현성 평면도	15
<도 6> 정의읍성 평면도	18
<도 7> 대정읍성 평면도	22
<도 8> 거제도 사등성, 고현읍성, 남해도 남해읍성 위치도	25
<도 9> 사등성 평면도	26
<도 10> 고현읍성 평면도	32
<도 11> 남해읍성 평면도	34
<도 12> 진도 진도읍성 위치도	37
<도 13> 진도읍성 평면도	38
<도 14> 강화도 강화읍성, 교동읍성 위치도	40
<도 15> 강화읍성 평면도	41
<도 16> 교동읍성 평면도	44
<도 17> 도서지역 체성 축조수법에 의한 분류	52
<도 18> 고현읍성 체성부 평/입단면도	54
<도 19> 진도읍성 체성부 외벽 입단면도	54
<도 20> 고현읍성 체성부 외벽 평/입단면도(외벽축조수법)	55
<도 21> 강화읍성 체성부 외벽 평/입단면도	56
<도 22> 도서지역 읍성의 둘레와 하삼도 읍성의 둘레 비교도	57
<도 23> 도서지역 읍성의 높이와 하삼도 읍성의 높이 비교도	58
<도 24> 조사된 도서지역읍성/육지읍성 및 영·진·보성의 치성 현황도	65
<도 25> 조사된 도서지역읍성/육지읍성 및 영·진·보성의 치성 평면형태도	65
<도 26> 도서지역 읍성과 조사된 읍성·영성의 치성간 이격거리 비교도	66

<도 27> 도서지역 읍성과 남해안지역 읍성의 성벽과 해자의 이격거리도	73
<도 28> 강화도 성곽, 진·봉수, 요망대 현황도	89
<도 29> 강화도 진·보, 돈대·포 현황도	90
<도 30> 거제도 성곽 현황도	91
<도 31> 진도 성곽 현황도	92
<도 32> 제주도 관망 현황도	93

I. 머리말

우리나라의 島嶼地域은 지질학적으로 침식과 조륙운동이 활발하여 다수의 섬과 해안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한 조수간만의 차이로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대의 해안지역은 多島海로 불릴 만큼 많은 섬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중부지역 역시 많은 섬과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해양세력이 대륙 진출을 시도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곳에 해당하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우리나라 남쪽을 방어하는 주요거점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아울러 대륙세력을 방어하는 군사거점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더욱이 三國時代 이전부터 中國 및 日本과 琉球(오키나와), 동남아 방면과 이어지는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그 역할과 중요성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한 각 시대별 위정자들은 해안으로 침입하는 외부세력을 방어하고 대륙세력의 침입시에 지속적인 저항을 위해 도서지역 가운데 大島를 중심으로 각종 성곽을 축조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축조된 도서지역 성곽들은 유사시 왜구를 비롯한 해양세력과 대치하는 최일선의 주요거점성곽이며, 대륙에서 침입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저항거점성곽으로서의 군사적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평시에는 해당지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여 행정관서의 역할도 수행하던 중요한 유적이다.

성곽유적은 2003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결과 통계에 의하면 남한에서만 2,137개소가 확인된다.¹⁾ 그러나 1454년 편찬된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335개소의 행정구역 중 읍성이 수록된 것은 전국에 96개소로 나타나며, 『東國輿地勝覽』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330개소의 행정구역 중 160개소에 읍성이 있었으며, 전체 읍성의 수는 190개소로 이 가운데 179곳이 석축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輿地圖書』에서는 334개소의 고을 중 읍성이 있었

1) 이춘근, 「고대산성의 보존방안」, 『한국성곽학보』 10, 한국성곽학회, 2003, p. 3.

던 곳은 107개소로 기록되어 있다. <도 1>참조.

우리나라에서 읍성의 순수한 개념이 도입된 것은 고려시대 후기부터이다. 이때 축조된 읍성은 왜구²⁾의 침입과 관련한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³⁾ <도 2>참조.

이와 같은 읍성의 축조양상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태종 15년(1415)을 기점으로 다음대인 세종조를 거쳐 문종·단종조에 이르는 동안 연해읍성을 중심으로 하여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별로 읍성의 신축 및 수·개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축조된 읍성은 비단 과거 선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다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의의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성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우리나라 역사 전반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해당 지역의 역사전개나 지리적인 특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읍성 가운데 조선시대 도서지역에 축조된 읍성은 주변의 營·鎭·堡城 등과 더불어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방어의 최일선에 위치하던 주요거점성곽으로 일찍부터 그 중요성과 역사성이 동시에 인식되어지는 중요한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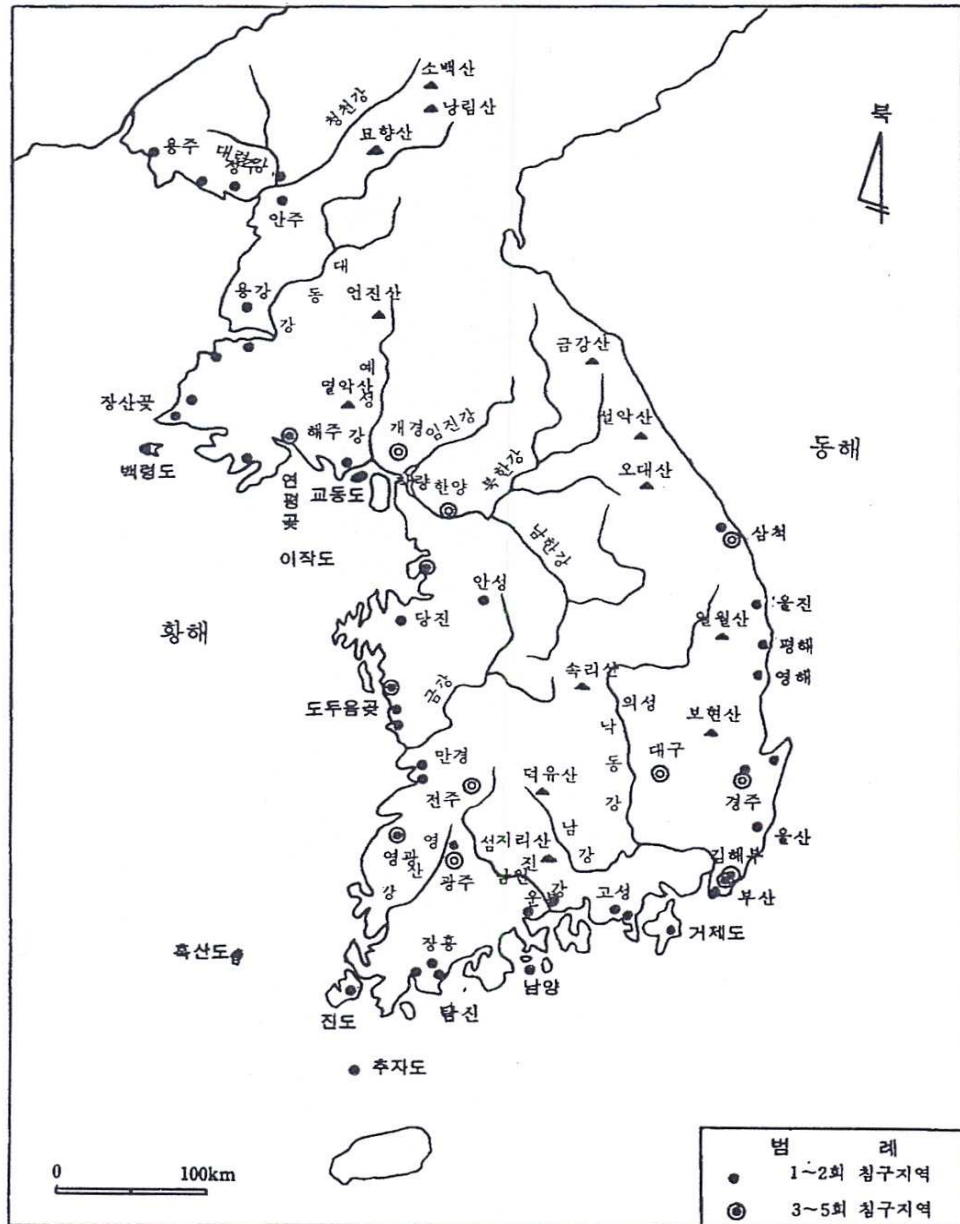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朝鮮時代 島嶼地域 邑城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I장에서는 읍성에 대한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III장에서는 기존의 도서지역에서 발굴조사 및 정밀지표 조사된 읍성과 영·진·보성 및 산성의 입지 및 축조수법, 성 둘레를 포함한 부대시설을 중심으로 고고학적 특징과 함께 도

2) 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 -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에피스테메, 2007, pp. 3-5.

왜구를 字意로 해석하면 ‘약탈 행위를 하는 일본의 무리’라는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정확히 한다면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으며 또한 정치·외교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인 財源의 약탈이나 사람의 납치를 목적으로 한 일본인으로 구성된 무장집단 내지는 그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쓰시마섬과 이키섬 등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도서지역과 연안 또는 내륙으로 침구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왜구는 14세기 말이라는 전환기 즉, 한국에서는 고려와 조선 왕조의 교체, 중국에서는 원나라와 명나라의 교체, 일본은 남북조 내란의 종식이라는 정치적인 큰 변화가 있었을때부터 조직적이면서 규모가 큰 왜구를 일컫는다. 이 당시 왜구는 최소 20척에서 최대 500척의 선단을 이끌고 침구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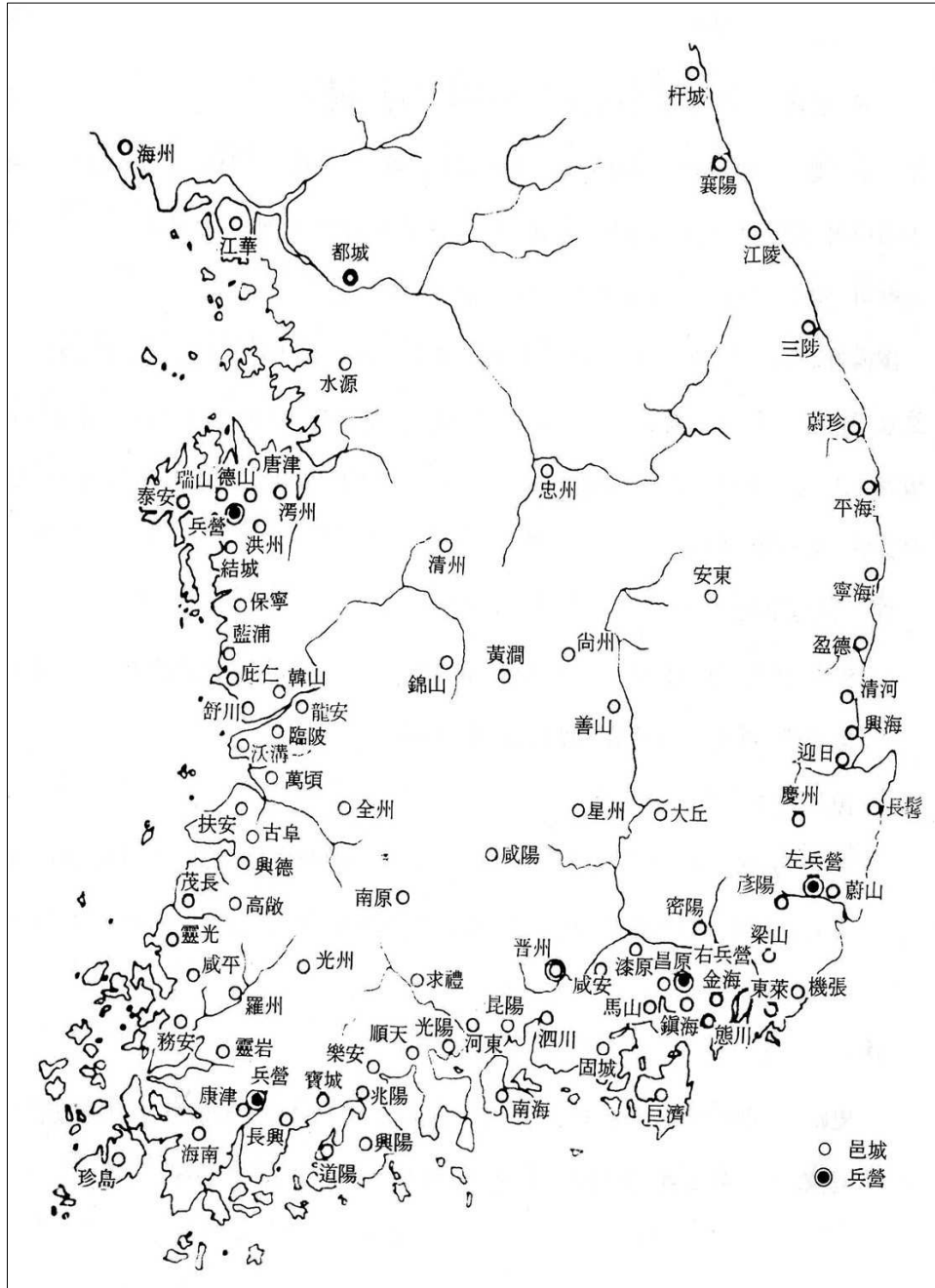
3) 심정보, 「고려말·조선초의 하삼도 읍성 축조기사 검토」, 『석당논총』 20,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1994, p. 187.

서지역 읍성의 현황과 기록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도서지역 읍성에서 확인되는 입지조건, 위곽형태, 축조수법, 부대시설을 분류하고 조선시대 축조된 연해지역의 읍성 및 영·진·보성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도서지역에 축조된 읍성과 육지읍성과의 관련성과 상이성을 규명해 본다. 제V장에서는 도서지역 읍성의 역할과 인접한 성곽들과 연계한 조선시대 도서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도 1> 전국 염수 침투 현황도 (제주도 제외)⁴⁾

4) 경주문화재연구소, 「장기염수 지표조사보고서」, 1991.



<도 2> 조선시대 초기(1392~1418) 왜구 침구 상황도⁵⁾

5) 국방군사연구소, 「왜구토벌사」, 『민족전란사』 9집, 1993, p. 186.

II. 조선시대 읍성에 대한 연구동향

우리나라의 성곽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성곽유적을 문헌사료에 보이는 성곽관련기사와 연관시켜서 연구하는 역사지리적 고찰방법과 둘째, 성곽에 대한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통해 규모와 구조를 연구하는 고고학적 연구방법으로 대별된다.

이중, 두번째 연구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활발하게 진행된 연구로서 각종 발굴과 정밀지표조사의 보고와 같은 자료의 축적에 기인하여 고려, 조선시대의 성곽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연구가 시도 되었다.

이 시기, 읍성의 경우 『부산 동래읍성』⁶⁾, 『해미읍성내 건물지 발굴보고서』⁷⁾, 『고창읍성 내부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⁸⁾, 『안산읍성』⁹⁾, 『거제 고현성지』¹⁰⁾, 『장기읍성』¹¹⁾, 『진도읍성·철마산성 지표조사보고서』¹²⁾, 『영동읍성 지표조사보고서』¹³⁾, 『영산읍성지 지표조사보고서』¹⁴⁾, 『김해 동상동 소방도로 개설구간내 김해읍성지 시굴조사』¹⁵⁾, 『면천읍성』¹⁶⁾, 『수원 고읍성』¹⁷⁾,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조사보고서』¹⁸⁾, 『동래읍성지』¹⁹⁾, 『울산

6) 동아대학교박물관, 「동래읍성 서장대 망월산정 건물지 발굴보고서」, 1979.

7) 충남대학교박물관·서산군청, 「해미읍성내 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1981.

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고창읍성 내부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유적조사보고서 제 8책, 1982.

9) 김병모·심광주, 「안산읍성」, 한양대학교박물관총서 제9집, 1990.

10) 심봉근, 「거제 고현성지 발굴조사보고서」,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11) 경주문화재연구소, 「장기읍성 지표조사보고서」, 1991.

12) 이해용·고용규, 「진도읍성·철마산성 지표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박물관, 1992.

1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재연구소, 「영동읍성 지표조사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소총서 제1책, 1997.

14) 창녕군·동아대학교박물관 「영산읍성지 지표조사보고서」, 창녕군·동아대학교박물관, 1998.

15) 나동욱, 「김해 동상동 소방도로 개설구간내 김해읍성지 시굴조사」, 『박물관 연구논집』 7,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9.

16) 김정보·이달훈·강종원, 「면천읍성」, 대전산업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당진군, 1999.

17) 화성군·한신대학교박물관, 「수원고읍성」, 한신대학교박물관, 2000.

18) 수원대학교박물관,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조사보고서」, 2000.

병영성북문지』 20) 『진해 웅천읍성』 21), 『고성읍성지 지표조사보고서』 22), 『성주읍성 지표조사보고서』 23), 『진주성 축성루 외곽 시굴조사보고서』 24), 『밀양읍성』 25), 『남포읍성』 26), 『언양읍성 종합정비복원을 위한 학술조사보고서』 27), 『동래읍성지 시굴조사결과약보』 28), 『나주읍성Ⅱ』 29), 『하동읍성Ⅰ』 30), 『창원읍성지 정밀지표조사보고서』 31), 『청도읍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32), 『동래읍성지 정비사업부지내 발굴조사결과약보』 33), 『하동읍성Ⅱ』 34), 『강릉 성내동 11-1번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35), 『거제 고현성지』 36), 『고성읍성지』 37) 『대정읍성 학술조사보고서』 38) 『강화 교동읍성 정

19) 부산북천박물관, 「동래읍성지」, 북천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13집, 2001.

20) 울산광역시·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울산 병영성북문지」,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보고서 제11집, 2001.

2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진해 웅천읍성」,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연구보고서 제1책, 2001.

2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고성읍성지 지표조사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연구보고서 제3책, 2001.

2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성주읍성 지표조사보고서」, 학술조사보고서 제17책, 2002.

24) 국립진주박물관·진주시, 「진주성 축성루 외곽 시굴조사보고서」, 국립진주박물관 유적발굴조사보고서 제15책, 2002.

25) 밀양시·밀양대학교박물관, 「밀양읍성」, 밀양대학교박물관 학술조사보고서 제2책, 2002.

26) 이남석·서정석, 「남포읍성」, 공주대학교박물관·보령시, 2003.

27) 심봉근·이동주, 「언양읍성 종합정비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보고서」, 동아대학교박물관, 2003.

28) 경남문화재연구원, 「동래읍성지 시굴조사 결과약보」, 2003.

29) 호남문화재연구원·나주시, 「나주읍성Ⅱ」, 호남문화재연구원 학술연구보고서 제28책, 2004.

30)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하동읍성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연구보고서 제15책, 2004.

31) 창원시·경남문화재연구원, 「창원읍성지 정밀지표조사보고서 및 읍성복원에 관한 연구」, 2005.

32) 청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청도읍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학술연구보고서 제50책, 2005.

33) 경남문화재연구원, 「동래읍성지 정비사업 부지 내 발굴조사 결과약보」, 2005.

3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하동읍성Ⅱ」,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연구보고서 제39책, 2006.

35) 강원문화재연구소, 「강릉 성내동 11-1번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06.

36)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거제 고현읍성」,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연구보고

밀지표조사보고서』³⁹⁾가 나오게 됨으로서 조선시대 읍성의 제양상을 연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한 조선시대 성곽연구가 다양성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한 축성양상의 확인에 편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차용걸은 「고려말·조선전기 대외 관방사 연구」에서 조선전기의 축성양상을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축성시기를 3단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특히 3단계의 관방시설정비Ⅱ기(세조~성종)에서 도성과 산성이 아닌 관방성 특히 남해안지방의 진·보에 관해 언급하며, 조선시대 전기 성곽축성사상의 전대와 다른 특징적인 시기로 보고 있다.⁴⁰⁾

그리고 심정보는 「한국 읍성의 연구」에서 충남지방의 조선시대 읍성을 입지조건, 축성재료, 지형, 형태에 의해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읍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 기능이 잘 조화된 복합적 기능의 성곽이며 청야입보하여 적의 공격을 피하는 전통적인 방어수단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읍성은 행정적인 목적보다 군사적인 목적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⁴¹⁾

또한 심봉근은 「한국 남해연안성지의 고고학적 연구」에서 기존의 문헌자료의 해석과 대입에 의한 성곽연구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그 보완방법으로 남해연안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굴 조사된 성지의 체성 축조수법과 구조, 규모, 축성재료 등 제요소를 정리하여 성곽의 시기별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토

서 제42책, 2004.

37) 심봉근, 「고성읍성지」, 동아대학교박물관, 2006.

38) 제주문화예술재단, 「대정읍성 학술조사 보고서」, 2006.

39) 강화군청·인하대학교박물관, 「강화 교동읍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75책, 2007.

40) 차용걸, 「고려말·조선전기 대외 관방사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① 기본관방시설 유지기 태조~태종 : 重要山城類와 시급한 읍성이 일부 수·개축.

② 관방시설정비 I기 세종~문종 : 읍성과 행성의 축조 이루어짐, 韓國築城史上 가장 획기적인 방향전환시기.

③ 관방시설정비 II기 세조~성종 : 中國城子의 영향과 적극적인 내외요소의 융화가 이루어짐, 海防築造.

41)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충남지방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5, pp. 37-38.

대로 전국에 분포한 각종성지의 축조시기와 용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⁴²⁾

한편 류재춘은 「조선전기 성곽 연구」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재한 내용을 분석하여 조선전기성곽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곽기록에 표기된 척은 대체로 포백척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尺度 표시를 보면 정보의 周長은 대부분 포백척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성종 16년 洪應의 제포의 보에 대한 선정시 회령포와 영등포의 보의 길이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일치함을 들어 그 용척이 포백척이라고 주장하였다.⁴³⁾

이어서 이재혁은 「조선시대 충청해안지역의 성곽 연구」에서 충청도 해안지역의 조선시대 성곽을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읍성, 진, 영성, 창성으로 나누고 해안위치와 성벽이 위치하는 지형의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산성, 반산성, 평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여장, 적대, 웅성, 해자 등의 부대시설을 구비하였으며 지형상 해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에는 성곽의 안팎으로 내황과 외황을 파서 성벽의 방어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한 축성양상 확인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체성의 구조와 축조방법은 물론 성곽의 기능과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총체적 검토 및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더욱이 성곽의 축조와 관련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을 아우르는 조선시대 성곽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머리말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축조와 관련한 고고학적 특징과 함께 도서지역 읍성의 지리적 특성을 살피고 인접 읍성들의 연계체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42) 심봉근, 「한국 남해연안성지의 고고학적 연구」, 학연문화사, 1995, pp. 335-343.

43) 류재춘, 「조선전기 성곽 연구」, 『군사』 제33호, 국방군사연구소, 1996, p. 98.

44) 이재혁, 「조선시대 충청 해안지역의 성곽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p. 63-68.

해안위치에 따라 해변형, 근접형, 후방형으로 나누고 충청도 연해지역의 읍성의 대부분을 근접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체성부가 설치된 지형의 최고지점과 최저지점의 고도차가 90m 이상을 보이는 것을 반산성형이라 하고 최고지점과 최저지점의 고도차가 20m미만인 것을 평성형이라 하였다.

Ⅲ. 도서지역 읍성의 현황

전국 읍성 현황은 <도 1>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약 100여개소가 있으나 이중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제주읍성, 고정현성, 정의읍성, 대정읍성, 사등성, 고현읍성, 남해읍성, 진도읍성, 강화읍성, 교동읍성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서지역 소재 진·보성은 제외)

1. 제주읍성 <도 3>, <도 4>

제주읍성의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에 위치한다. 제주읍성은 탐라시대부터 축조된 성곽으로서 당초 성의 규모는 알 수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3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는 제주시내 북측에 위치하여 시가지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없어졌으나 당초에는 2,280m에 달하였으며 평지에서 구릉으로 이어지는 평산성이다. 성문은 동·서·남문 3개소(동·연양문, 서·진서루, 남·정원루)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없다.

성내에는 객사가 있었고, 병사들의 훈련 및 무예수련장인 관덕정이 있었으며 연의각이란 동헌과 산저천 남산에 쌍원교와 원교라는 수구가 2개소 있었다.

제주읍성은 읍성의 추정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읍성은 동서를 장축으로 하는 부정형의 형태이다. 오현단 부근에 일부 170m 정도의 잔존 유구가 있으며 성벽의 상태는 양호하다. 잔존 높이는 5m, 성폭은 2m 정도이며 성내탁부는 잡석의 단을 이루고 있으며 표면의 토사는 유실되어 현재는 모두 돌이 노출되어 있다. 당초에는 내부에 석축을 2~3단 쌓고 그 위에 토사를 덮어 경사지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재질은 모두 현무암이며, 성석의 크기는 50×20cm, 55×37cm, 70×50cm 정도이며 뒷길이는 60cm, 65cm, 70cm 정도이다. 그리고 치성은 2개소가 남아 있는데 오현단 뒤의 치성은 높이 6m 정도이며 다른 곳의 치성의 높이는 10m를 넘는 아주 장대한 치성이다. 치성과 치성의 간격은 65~75m이다. 치성은 시굴조사를 통하여 T자형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제주읍성의 축조방법은 협축으로 잔돌 끼움을 한 허튼층 쌓기로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성석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읍성 외벽의 기울기는 1.0~1.4:1으로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치성은 성벽을 축조한 후에 덧대어 축조하였다.

문헌관련 축성기사로는 고려 숙종 10년(1105)에 둘레가 4,700척 높이 11척으로 확장하여 성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조선 태종 8년(1408)에 큰 홍수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어⁴⁵⁾ 태종 11년(1411)에 수축하였다.⁴⁶⁾

중종 5년(1510)에 삼포에서 일본인 거류민들이 일으킨 삼포왜란 이후인 중종 7년(1512)에 김석철이 5,486척으로 확장하였으나 성안에 물이 없어 中城을 쌓아 물을 쓰게 하였다. 명종 10년(1555)에 을묘왜변때 왜선이 침범하여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으나 격퇴시켰다. 명종 21년(1566) 동쪽을 고능까지 증축하여 성의 둘레는 7,340척 확장하고 남·북에 수구 2문을 설치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목사 성윤문은 성벽을 5척 더 높게 쌓고, 포루 등의 방어시설을 갖추었다. 정조4년(1780)에는 목사 김영수가 산 아래 하천 주변에 익성과 보를 쌓았으면, 이후 계속 수축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25~1928년에 제주항을 개발하면서 성벽을 헐어 바다를 매립하는 골재로 사용되어 그 성곽의 형태를 잃어 버렸다.

성곽 규모에 대한 문헌관련 기사로는,

『世宗實錄地理志』 卷一百五十一, 「濟州牧 邑石城周回九百十步」

『東國輿地志』 卷之五上, 濟州牧 城郭條 「州城石築 周五千四百八十九尺 立門三 東曰濟衆 南曰定遠 西曰白虎又有南北水口二門 擊台二十七 垛堞四百四 城內舊無水 嘉樂泉在於城外 別築重城取汲 明宗時牧使郭屹退築東城入 城內又有山底川」

『輿地圖書』 濟州牧 城池條 「石築 周五千四百八十九尺 高十一尺 城中無水 嘉樂泉在城外 別築重城 城中人取汲焉云 嘉靖乙丑 郭屹牧使 退築東城嘉樂泉今在東 城內又有山底川 有東南西三門 又有南北水口二門 擊臺二十七 垛堞四百四本 大村三性所居之地」

『增補文獻備考』 卷二十七, 「濟州邑城 石築周吳千四百八十九尺 高十一尺 擊

45) 《太宗實錄》 卷十六, 八年 八月 十九日 甲午條 「濟州大雨 水入濟州成 漂溺官舍民居 千穀殆半」

46) 《太宗實錄》 卷二十一, 十一年 正月 三日 甲子條 「命修築濟州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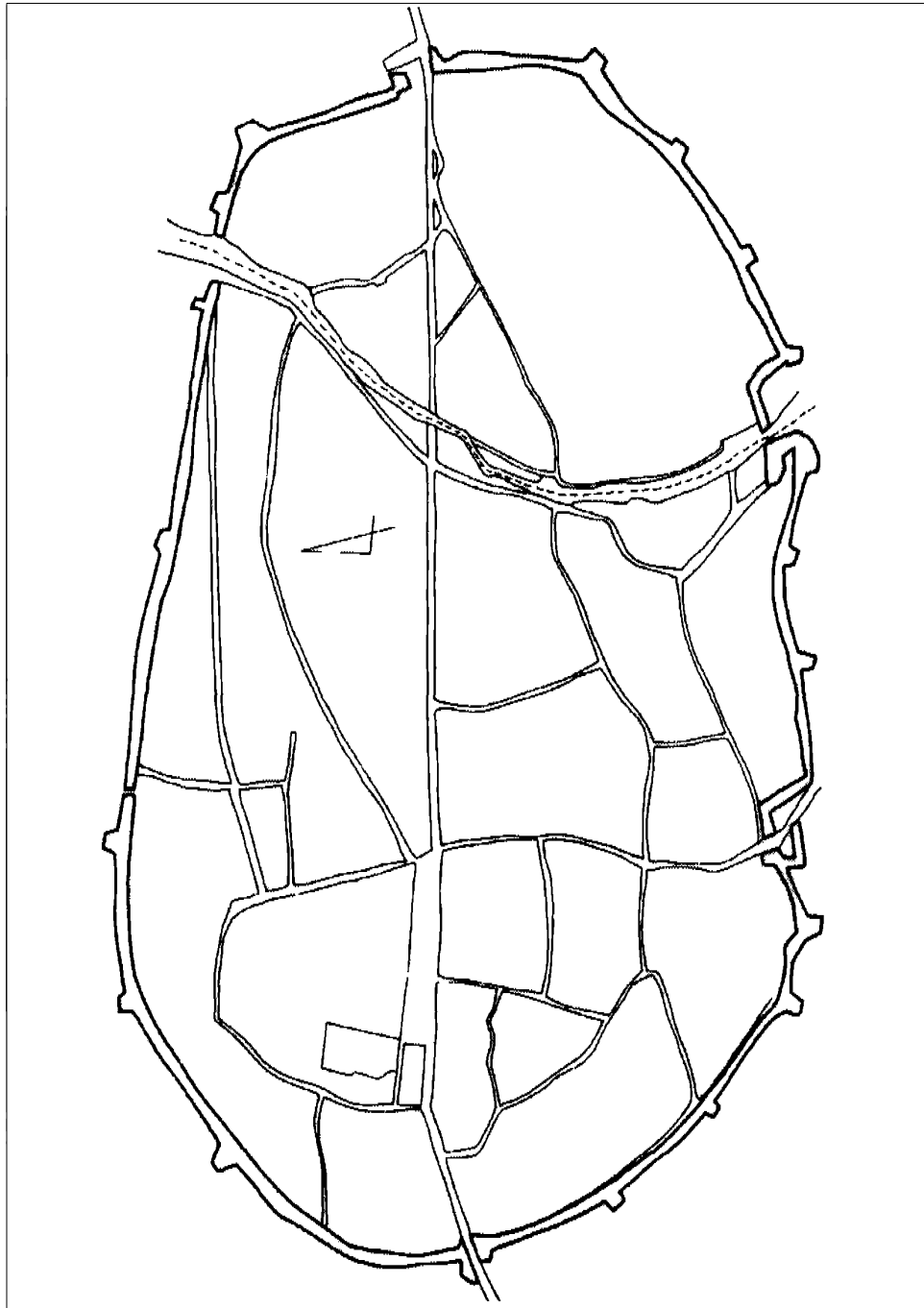
臺二十七 堞四百四 山底泉在城內 嘉樂川在外成 別築重城取汲 明宗朝牧使 郭屹退築東成入 城內有川西南三門 又有南北水口二門」 등이 있다.

<표 1> 제주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문	현	편찬년도	규		부	대	시	설	비 고
			둘	레					
			높	이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910보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4,394척	11척				성내무수,남문루1	
탐라지		1653년	5,489척	11척				성내2천,동·서·남3문,수구2문,격대27,타첩404	
동국여지지		1864년	5,489척					3문,수구2문,격대27,타첩404,성내2천	
제주읍지		1780년	5,489척	11척				동·서·남3문,남북수구	
제주대정정의읍지		1798년이후	10리	11척				타첩404,동·서·남3문,수구2문	
탐라지초본		1842년	5,489척	11척				격대27,타첩404,동·서·남3문,수구2문	
증헌문헌비고		1908년	5,489척	11척				격대27,타첩404,동·서·남3문,수구2문	
증보탐라지		1945년	5,489척	11척				격대27,타첩404,동·서·남3문,수구2문	



<도 3> 제주도 제주읍성, 고정의현성, 정의읍성, 대정읍성 위치도



<도 4> 제주읍성 추정 평면도

2. 고정현성의 위치 <도 3>, <도 5>

고정현성의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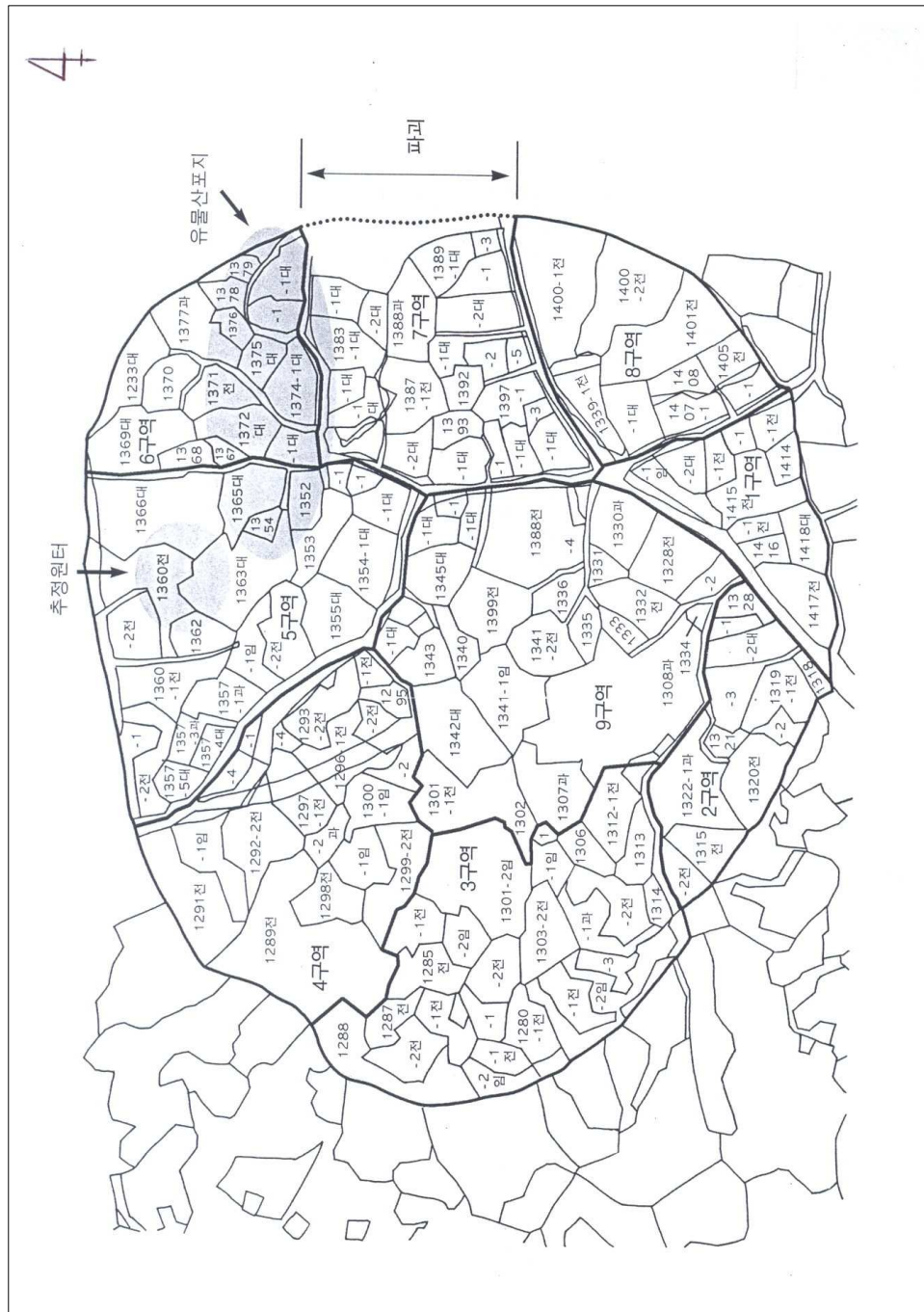
고정현성은 조선 태종 16년(1416)에 정의현 설치⁴⁷⁾ 당시의 현성으로 성읍리에 위치한 현재의 정의읍성 이전의 읍성이다. 전체적인 성의 지세는 서쪽과 북쪽이 높고 남쪽과 동쪽방향으로는 낮은 형태로 비교적 고지대인 북서쪽에서 동쪽의 해안 방향을 조망하기 유리하다. 그리고 성의 동쪽과 남동쪽은 해안과 늪지에 인접하여 성이 쌓여있어 방어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북서 방향쪽으로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정현성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주변의 관방유적을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성산 일출봉에 봉수가 있고, 남동쪽에는 섭지코지 언덕위에 연대가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수산봉 정상에 봉수대가 있다.

성벽의 단면형태는 계단식인 ‘S’자 형태에 여장을 쌓은 구조로 보인다. 여장의 폭은 50cm가량이고, 여장의 안쪽은 2m내외로 성벽 위에서 바깥쪽으로 조망하거나 공격하는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단 내려온 이동로 또한 폭이 2m가량 된다. 대지에서 상단성벽까지의 높이는 1.0m이고, 다시 여장 안쪽 높이까지는 1.6m 가량이다. 외장까지의 높이로는 총 2.4m 가량 남아 있다. 다른쪽의 성벽 높이는 6m에 이르는 구간도 있다. 다른 구간의 성벽은 현무암 암반지대 위에 현무암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잔존상태가 양호한 상태이다. 성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우며, 성벽의 상단 폭은 1m, 하단 폭은 1.5m이다. 잔존 높이는 3.5m이다. 석재는 바깥쪽이 40×60cm, 35×70cm 내외의 할석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맞물려 쌓았으며, 안쪽에는 직경 20cm 내외의 자연석을 채워 넣었다.

이 성의 축조방법은 2단식 석축방식이나 2단위에 여장이 달린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남서쪽 성벽에는 여장이 뚜렷하게 보존되어 있다. 동·서·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7) 《太宗實錄》 卷三十一, 十六年 五月 六日 丁酉條「濟州都按撫使吳湜 前判官張合等上其土事宜 啓曰...東道縣監以旌義縣爲本邑 屬以兎山縣 狐兒縣洪爐縣等三縣...」



<도 5> 고정현성 평면도

3. 정의읍성 <도 3>, <도 6>

정의읍성의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로 제주특별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87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정의읍성은 성안의 성읍민속마을과 더불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의읍성은 당초에 성산읍 고성에 있었다. 그러나 고성은 우도에 가까워 왜구의 침입이 그칠 날이 없는 등 현치소로서는 입지적 요건이 좋지 못하였다. 7년만에 정헌에 의해 읍성의 중심은 지금의 성읍으로 옮겼다. 당시 읍성의 명칭은 보사리였으며 이때가 세종 5년(1423)이다.

축조 당시 성의 둘레는 2,980척, 높이는 24척이었는데 이 성을 쌓는데 5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성읍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읍성은 동·서로 160m, 남·북으로 140m로 남·북쪽이 동·서쪽 보다는 약간 짧은 방형에 가까운 평지성으로 전체 둘레가 1,200m이다.

체성의 축조수법은 거친 현무암을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다듬질하여 가로 쌓기와 모쌓기를 병행하여 외벽을 축조하였다. 협축으로 외벽의 기울기는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룬다.

치성은 9개소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치성의 둘레는 10.6m~25m이고 치성의 높이는 성벽의 높이와 비슷하다. 치성은 체성에 덧대어 축조하였다.

다음 성문은 동·남·서 3문이 있으며 성석은 현무암으로 쌓았으며 협축성으로 되어있다. 동문과 서문은 웅성이 일부 남아있고 남문은 없어졌으며 문루도 없어졌으며 최근 서문과 남문에는 문루가 복원되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북-서구간은 여장까지 3.7m, 여장 높이는 1m, 폭은 0.6m이며 성곽 상부의 폭은 2m, 내탁부 높이는 2.4m이며 성석의 크기는 35×17cm, 35×20cm, 35×24cm이며 남문-동문 구간에는 미석이 남아있다. 미석까지의 성벽 높이는 3.6m, 미석두께는 12cm, 돌출길이는 17cm이며 현무암으로 되어있다. 전체적으로 성벽이 잘 남아 있으며 남문 주변 150m가 완전 훼손되어 없어졌다. 그 외 지역은 상부의 여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성내는 남북으로 큰 도로가 나 있으며 향교와 향청인 일관헌이 남아 있다. 연못 일개소와 우물 일개소가 있다.

문헌관련 축성기사로는 조선 세종 4년(1423)에 정의현은 현 위치인 진사리로 옮겨 읍성을 축성하였다.⁴⁸⁾ 그 후에도 성 내에는 샘과 지형적인 이점이 없다는 이유로 이설이 건의되어 조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 되었지만, 결국에는 논의 자체로 끝나고 말았다.

성곽규모에 대한 문헌관련 기사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八, 旌義縣 城郭條「邑城石築 周二千九百八十六尺 高二十四尺 新樓 根城門樓」

『東國輿地志』卷之五上, 濟州牧 城郭 旌義縣「石築周二千九百八十尺 南有門 世宗五年 按撫使鄭軒築城中舊無水今二井」

『輿地圖書』旌義縣 城池條「縣成石築 周回二千九百八十尺 高十三尺 有東西南 三門 城中有二井 非生水旱則取汲於城南二里許丈川水」

『增補文獻備考』卷二十七, 「旌義邑城 石築周二千九百八十尺 高十三尺 內有井二 世宗五年 按撫使鄭軒所築」 등이 있다.

<표 2> 정의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문	현	편찬년도	규		모		비 고
			둘	레	높	이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2,986척	24척			
남사록		1601년	3,013척	8척	동·서·남3문, 문상초루, 1정		
탐라지		1653년	2,986척	13척			
동국여지지		1864년	2,980척		2정		
제주읍지		1780년	2,986척	13척	동·서·남3문, 2정		
제주대정정의읍지		1798년 이후	1,990척	13척	여장180, 동·서·남 3문		
탐라지초본		1842년	1,593척	13척	여장180, 동·서·남 3문		
정의군읍지		1899년	2,986척	13척	동·서·남3문, 2정		
증보문헌비고		1908년	2,980척	13척	2정		

48) 《世宗實錄》 卷十八, 十二月 二十三日 乙巳條 「移築旌義城於晋舍里」



<도 6> 정의읍성 평면도

4. 대정읍성 <도 3>, <도 7>

대정읍성의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로 제주특별시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에 위치한다. 대정읍성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 12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정읍성은 문지 복원과 성벽보수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성터 안에는 초등학교와 주택지 등을 비롯하여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다.

대정읍성은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안성리, 인성리 마을이 만나는 지점에 축조 되었다. 해발고도는 40m 내외로 남동쪽의 단산과 남서쪽의 모슬봉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대정읍성의 규모는 동서 약 380m, 남북 약 320m이다.

성벽 바깥쪽 둘레가 1,440m 내외이며, 안쪽 둘레는 1,280m이다. 잔존 높이는 3~4m내외, 상부의 폭은 3~4m, 높이는 3.1~3.7m에 달한다. 사용 석재의 크기는 60×30cm, 60×40cm, 70×20cm이며 뒷길이는 80cm, 50cm, 60cm 정도이다.

치성은 모두 5개소로 대체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성벽의 지대석 높이는 40cm 정도이며 지대석에서 15~20cm 정도 들어서 성벽을 쌓았다.

대정읍성은 다른 읍성과 마찬가지로 평지성이며, 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성문은 동문·서문·남문이 알려져 있었으나, 2001년 조사시 북벽 중앙부에 치성으로 여겨지는 곳을 발굴 조사한 결과 웅성이 있는 북문지가 폭은 3.5m~4m로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북문지 조사시 계단시설 일부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폭은 70cm, 한 단 높이는 25cm로 등성계단은 13단으로 추정되었다.

북문 조사보고서에는 유물에 대한 기술이 없어 축조연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웅성은 평면형태가 반원형으로 성벽에서 바깥쪽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동문 웅성은 둘레 20m로 붕괴가 심하여 하부상석이 1단 정도만 남아 있으며, 그 위 돌들은 나중에 쌓은 것으로 원형은 파괴되었다.

성벽의 재질은 현무암으로 하부의 기단부는 비교적 큰데, 성벽의 중앙부의 석재보다 2배 이상은 된다. 축성방법은 협축이고, 단면형태는 직선형에 가깝다. 웅성은 성벽을 축조한 후 덧대어 만들어졌다. 축성은 성벽 안쪽과 바깥쪽은 비교적 큰 할석을 다듬어 치석하고 가운데는 작은 할석을 채워 넣었다. 북문지는 조사 당시 일부 계단 유구도 확인되었다.

치성은 12~13m의 정방형 형태이다. 성의 형태가 정방형 형태인데, 치성은 모서리 등 5개의 치성이 자리 잡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서북편 가장자리는 말각형태로 2개의 치성이 확인된다. 이 두 개의 치성은 미복원의 상태이다. 동쪽 치성은 둘레 39.5m로 상부는 붕괴가 심하며 외벽 또한 부분적으로 붕괴가 심하다. 치성의 외벽은 2m정도 남아 있다. 서쪽 치성의 둘레는 34.6m로 남쪽 성벽과 접한 외벽 상부 붕괴가 심하여 높이 3.5m 정도 남아 있다. 높이 3.8m, 폭 3.3m 가량 확인된다. 북서쪽 치성은 2기가 확인 되는데, 서쪽 치성이 높이 2m가량 남아 있다. 동쪽 치성은 상부가 파괴 되었으며 높이 3.5m 가량 남아 있다. 치성과 치성간의 거리는 서문쪽 치성에서 남쪽의 거리가 220m, 남쪽에서 동쪽까지의 거리가 330m,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거리가 295m이다. 기록에 의하면 여장이 있었다고 하나 잔존하지 않는다.

해자는 항공촬영자료, 문헌자료, 현재의 지적도면을 참고하면 해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폭 10척, 깊이 7척으로 성을 감싼다고 하였다. 폭은 최소 3m 내외로 추정되며, 성곽과의 이격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석이 남아 있는데, 미석은 기단석 상부에는 3.7m 높이에 10cm 정도 내밀기를 하였고, 기단석은 성벽하부에서 15~18cm 내밀어 있다.

모든 성이 그랬듯이 대정현성의 축조계기는 왜구침입을 막고 현을 보호하기 위해 축성된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 축성 건의에 따라 현 설치 2년만인 태종 18년(1418)에 당시 초대 대정 현감으로 부임한 兪信이 축성하였다.

읍성은 대정읍에 위치하며 평지에 축성한 장방형의 평지성으로 축성 당시 성 둘레는 4,890척, 높이는 17척 4촌이고, 치성 6개소, 동·서·남에 성문과 웅성이 있었다고 하며 성문에는 문루를 두었다. 그후 선조년간(1568~1608)에 웅성과 포대를 개축하였다.

성곽규모에 대한 문헌관련 기사로는,

『世宗實錄地理志』 卷一百五十一, 「大靜縣 邑石城周回一千一百七十九步」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八, 大靜縣 城郭條 「邑城石築 周二千六百七十七尺 高二十八尺」

『南僉錄』 三卷 「縣城石築 周二千八百餘尺 高十尺 有四門 門上設譙樓 中有一井」

『東國輿地志』 卷之五上, 濟州牧 城郭條 「大靜縣城 石築周四千八百九十尺

有門 太宗十八年縣監有信築」

『輿地圖書』 大靜縣 城池條 「縣城石築 周四千八百九十尺 高十七尺四寸 女堞一百五十五 有東西南三門 設縣後二年戊戌縣監有信所築」

『大淨邑誌』 城池條 「石築周回四千九十尺 高十七尺四寸 堞二百四十 城樣表裡如削 環城有濠十尺深七尺 外有枳樹 城中有池 回二十二丈 深四丈 南門內有井 周四丈 深六丈八尺 甚旱則渴」

『增補文獻備考』 卷之五上, 濟州牧 城郭條 「石築周四千九百十尺 高十七尺四寸 甕城四 雉堞四 有壕池 內有井一池一 太宗十八年縣監有信築」

『大淨邑郡地』 「石築 周四千八百九十尺 高十七尺四寸 女堞一百五十 有東西南三門 設縣後二年 戊戌縣監有信築」

『耽羅志』 四卷, 大淨縣 城郭 「邑城 石築 周四千八百九十尺 高十七尺四寸 女堞一百五十五 有東西南三門 設縣後二年戊戌縣監 有信築城」 등이 있다.

<표 3> 대정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문	현	편찬년도	규 모			비 고
			둘레	높이	부대시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1,179보			봉화 4개소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2,647척	28척		
남사록		1601년	2,800여척	10척	문4,문상초루,정1	
여지도서		1759년	4,890척	17척 4촌	타첩155개소,성문3개소(동·서·남)	현 설치 2년후 축성
대정읍지		1785년이후	4,090척	17척 4촌	타240,유지,유정	황있음/넓이10척, 깊이7척
대동지지		1864년	4,890척		웅성4,정1,지1	태종18년(1418)
증보문헌비고		1908년	4,910척	17척 4촌	첩240,웅성4,치첩4,유호지,정1,지1	태종18년(1418)
제주읍지		1780년	4,090척		첩240,정1,지1	
제주대정정의읍지		1793이후	3,200여보	17척 4촌	타첩244,성문3개소(동·서·남)	현설치 2년후 축성
대정군읍지		1899년	4,890척	17척 4촌	여첩155,성문3개소(동·서·남)	현설치 2년후 축성
탐라지		1653년	4,890척	17척 4촌		
탐라지초본		1842년	4,890척	17척 4촌	여첩180,동·서·남 3문	



<도 7> 대정읍성 평면도

5. 사 등 성 <도 8>, <도 9>

사등성의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성내부락 617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경상남도 기념물 3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성내에 마을이 자리하면서 남쪽과 동쪽 체성 일부와 문지, 치성, 해자 등을 부분적으로 훼손시켜 원상 파악이 어렵지만 서쪽과 북쪽은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다. 서쪽의 경우 체성은 물론 문지와 해자도 뚜렷이 남아 있다. 남쪽 체성 기단석에는 “三加始面□□五十一尺門末(間?)五十五尺, 山陰” 등의 명문이 남아 있어 당시 성벽 축조를 위해 인접한 삼가, 산청 인력을 동원하여 일정량의 작업구역을 배당 하였던 것으로 진작된다.

현존하는 체성은 평면 타원형에 가깝고 북동쪽은 폭이 약간 넓어 직선상을 나타나고 있다.

체성은 평지에 협축한 석축성으로 일반 평지 읍성과 같이 외벽은 장대석으로 된 지대석위에 자연대석의 기단석을 세워 쌓고, 성석간의 틈새에는 잔돌을 끼워 넣었다. 내벽은 보다 소석으로 겹쌓기하고 내·외벽 사이의 적심은 잡석을 이용하여 채웠다. 발굴조사가 아니었으므로 정확한 축조수법은 알 수 없었으나 이미 발굴조사 보고된 인접한 고현성이나 오양성과 동일수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짐작한다.

체성 구조는 먼저 사방에 반원편문의 옹성문지와 방대상의 적대, 그리고 그 바깥에 해자를 둘렀다. 그 중 문지는 서문지와 남문지는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동문지는 흔적만 남은 정도이다. 해안을 의식하고 옹성 개구부는 모두 반대쪽인 남쪽을 향하게 배치하였으며 개구부에는 확돌을 초석으로 삼은 문루 흔적이 있다.

또 체성에 덧대어서 축조된 적대는 문지 사이마다 방대상의 것을 배치하였는데 그 축조수법은 체성과 동일 하다. 해자는 체성 둘레를 폭 20m 크기로 삭토하여 자연수를 흐르도록 조치한 형태이고 일부 민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잔존하고 있다. 현존 높이 4.2m, 폭 기저부 5m, 상부 4.2m, 둘레 876m이다.

한편 문헌상에 나타난 사등성은 세종 7년(1425)에 축조 허가를 받아⁴⁹⁾ 세

49) 《世宗實錄》 卷三十, 七年 十月 十六日 辛巳條 「敬差官許誠啓 臣與慶尙道監司 都節制使入巨濟島 看審邑城可當之地 沙月浦 人民所居各里不遠 如有賊變 易以聚會入堡 賊船隱泊諸島隔遠

종 8년(1426)에 축조하여 세종 30년(1448)에 완성하였다.⁵⁰⁾ 그 뒤 문종 즉위년(1450) 9월 개축을 건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동년 10월 정분의 성기 심정시 입지조건 등 축성 자체의 잘못을 지적하여 다음해 가을 고정부곡으로 이축할 것을 허락 받아 문종 원년(1415) 거제도민의 이축 불가의 건의도 무시된 채 동년 11월부터 고현성 축조가 시작되어 단종조에 완성되고 치소가 사등성에서 고현성으로 이전된 듯 하다.

그리고 당시 체성 규모에 대해서는 문헌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문종 즉위년 10월 鄭某은 둘레가 1,916척으로 보고하고 그 뒤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321步라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1보를 6척으로 삼은 것을 계산하면 1,926척이 되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대동지지』 등에서는 둘레 2,511척 6촌이나 2,510척, 높이 9척이라 하여 전자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곽규모에 대한 문헌관련 기사로는,

『世宗實錄地理志』 卷一百五十, 巨濟縣條 「邑石城 周回三百二十一步」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二 巨濟縣 古蹟條 「古縣城 在縣西十七里 石築 周二千五百一十一尺 六寸 高九尺」

『東國輿地志』 卷之四下 慶尙道 巨濟縣 古蹟條 「古縣城 在縣西十七里 石築 周二千五百一十尺...」

『輿地圖書』 慶尙道 巨濟 古蹟條 「古縣城 卽沙等城 在府北二十里 石城 周二千五百一十尺六寸 高九尺」

『增補文獻備考』 卷二十七 城郭 慶尙道條 「古邑城卽沙等城 在北二十里 石築 周二千五百一十尺六寸 高九尺 今廢 內有井一」

『慶尙道邑誌』 第十一策, 巨濟 巨濟府邑誌 城池條 「沙等城 在府北二十里 周一千八百九尺 高十三尺 內有一井」

『輿圖備志』 二 慶尙道 右道 巨濟島護府 城池條 「沙等城 石築周二千五百一十尺 高九尺 井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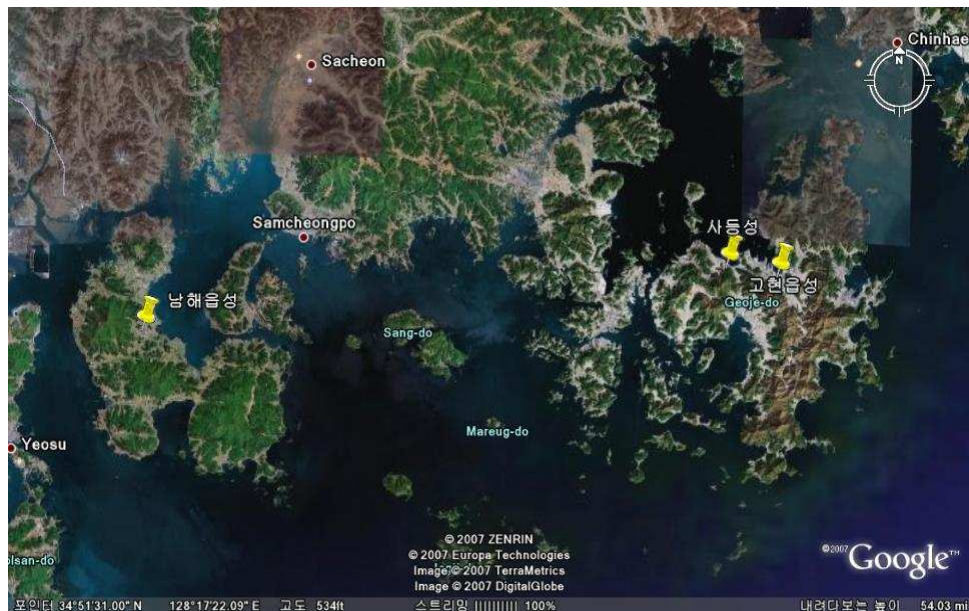
人民農場亦近 可作邑城 以尊民居 從之」

50) 《文宗實錄》 卷七, 卽位年 五月 六日 癸卯條 「先是巨濟縣人上言 本邑舊在島內水月里 設木柵 去丙午年 移于沙等里 建設館舍 修築城池之功 至戊辰年 乃訖 今因都體察使鄭某審定 又欲移于 古丁里...」

『韓國近代邑誌』三十二 慶尙道二十六 統營郡地 古城廓條 「沙等城 在巨濟沙等城面沙等里 周一千八百九尺 內有一井 古者巨濟郡止也 見巨濟舊誌」
『慶尙道輿地集成』 巨濟郡邑誌 城池條 「沙等城 在郡北二十里 周一千八百九尺 高十三尺 內有一井」 등이 있다.

<표 4> 사등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문	현	편찬년도	규 모			비 고
			둘 레	높 이	부 대 시 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321보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2,511척 6촌	9척		
동국여지지		1656년	2,510척			
여지도서		1759년	2,511척 6촌	9척		
증보문헌비고		1908년	2,511척 6촌	9척	정 1	
경상도읍지		조선후기	1,809척	13척	1 정	
여도비지		1856년	2,511척	9척	정 1	
대동지지		1866년	2,511척		정 1	
영남읍지		1871년	1,809척	13척	1 정	
한국근대읍지		1830년	1,809척	13척	1 정	
경상도여지집성		1963년	1,809척	13척	1 정	



<도 8> 거제도 사등성, 고현읍성, 남해도 남해읍성 위치도



<도 9> 사등성 평면도

6. 고현읍성 <도 8>, <도10>

고현읍성의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00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경상남도 기념물 46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현읍성은 조선시대 거제군 치소로서 구룡의 말단부와 평지에 축조된 석축 평산성이다. 1991년에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북쪽 체성 일부와 치성, 북문지가 조사되고⁵¹⁾, 2004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동문지와 동벽 해자의 일부가 조사되었다.⁵²⁾

고현읍성은 계룡산 남쪽 산록완사면에 동-서면으로 배치된 평면 선형의 평산성으로 잔존부에 의하면 해안인 동쪽의 폭이 좁고 구룡인 서쪽의 폭이 넓으며 남·북문지를 기준으로 성벽 체성부가 둥글게 만곡하여 팽창하는 모습을 이루고 있다. 성의 구조는 동·북·남쪽 체성 중간에 반원상의 옹성 편문을 배치하고 四隅와 동벽을 제외한 나머지 체성에는 각각 치성을 두었으며 그 바깥에는 해자를 둘렀다. 현존 높이 2.8m, 폭 7.45m, 해자 폭 23m, 둘레 1,430m이다. 현재 거제시청의 좌우측과 뒤편에는 체성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6.25사변시 포로수용소가 이곳에 설치되면서 급격히 훼손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고현리 일대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더욱 가증시켜 시청 정문에서 동쪽은 그 흔적조차 알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고현읍성의 축조수법은 먼저 체성 기반부는 생토층을 ‘L’ 자상으로 먼저 절개하고 그 위를 자갈로 다진 다음 납작한 장대석을 길게 놓고 위에는 큰 기단석을 올려 놓은 형태이다. 이 경우 내벽보다는 외벽이 Level상 낮아 체성 단면상으로는 처음에 내탁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외벽 바깥의 계곡 부부는 잡석을 깔고 다져 해자 면으로 삼고 그 위에 자연수가 흐르도록 조치하였다. 기단석으로 사용된 자연대석은 2m×3m×0.5m 크기이며 널찍한 면을 수직으로 세운 형태이고 적심 중간의 침석은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연속해서 세워쌓기를 하지 않고 높혀쌓기와 교대하여 이것이 침석을 대신한 것처럼 느껴졌다. 폭 5.5m, 높이 1.2m 정도가 남아 있다. 기반부는 60

51) 심봉근, 「거제 고현성지」,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5.

5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거제 고현성지」,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연구보고서 제42책, 2004.

cm 정도의 자갈이 섞인 황갈색 점토층이 나타나고 그 밑 10cm 정도의 흙갈색 부식토층이 나타난다. 아래는 다시 자갈이 섞인 생토층이며 밑으로 50cm 정도 파고 들어가면 내부 기단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기단부는 축조하였다기보다 세웠다고 할 만큼 축조수법이 조잡하였고 생토층이 끝난 다음부터는 사람머리 크기의 할석으로 정연한 것은 아니지만 쌓은 듯 한 느낌이 든다. 외벽 면석은 자연대석을 세워서 쌓고 면석간의 틈새에는 잔돌을 끼워 넣는 전형적인 조선전기 평지성 축조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북문지 부분에는 반원상의 웅성이 있다. 3문 가운데 유일하게 기단부가 잔존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축조수법은 전기한 체성부분과 동일하지만 웅성이 능선 위에 축조되었다. 대략 폭은 6~7m이며 반원상의 안지름은 11~13m이다. 또한 개구부의 폭은 3.6m, 문지의 폭은 4.15m이며 사등성(3.58m)보다 약간 넓은 편이다. 축조수법은 외벽의 경우 전기한 체성 외벽의 내탁수법과 동일하지만 경사진 기단 아래에는 1~2m 폭의 판석을 한 벌 깔아 생토층의 유실을 방지하고 경사가 급한 곳은 단상을 만들어 연속으로 축조하고 있다.

동문지 웅성은 외벽의 대부분과 내벽의 일부, 동벽 체성부와 연결된 부분이며 개구부와 내벽의 대부분, 웅성벽 최하단 성석은 훼손된 상태이다. 웅성은 동쪽으로 반원상으로 만곡하다가 남쪽에 개구부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웅성 체성부의 폭은 7m 내외이고 반원상의 둘레는 약 47m이며 잔존 높이는 약 1.3m이다. 동문지 웅성의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기단부는 생토층 위에 할석과 자갈로서 기저부를 정지하고 그 위에 편평한 장대석을 배열하고 그 위에 자연대석의 기단석이 올려진 모습으로 고현읍성의 여타의 체성부 축조수법과 동일한 양상이다. 이때 외벽에 축조하는 면석의 경우는 지대석에서 15cm 가량 물려서 쌓아 계단상을 이루고 있으며 위로 갈수록 작은 성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적심석의 내부는 외벽 및 내벽 면석과 직교하게 장대형의 석재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할석과 자갈을 채워 넣어 내외벽 면석이 유실 되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 특히 적심석 가운데 부분에는 자갈을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 동문지 웅성 외벽 기단석 바깥으로 35~70×15~40cm 크기의 판석과 할석을 깔았는데 이것은 체성 기단부를 보강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북문지의 외벽 바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치성은 체성의 네 모서리와 북벽 중간, 서벽 남쪽 등 모두 6개소에서 확인

되었다.

해자는 서쪽처럼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황(隍)이라고 하며 나머지 삼면처럼 물이 흐르는 것을 해자라고 하는데 고현읍성에서는 모두 바깥에 배치하고 있었다. 서쪽 외황은 폭이 20m, 깊이 3~4m 규모로 생토층을 절개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고 나머지 남·북쪽의 해자는 자연 계곡에 인공을 가하여 자연수가 흐르도록 조치한 형태의 것이라고 생각된다.⁵³⁾ 동쪽의 경우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조사에서 인공해자를 축조한 것이 확인되었다. 동쪽 성벽 바깥쪽의 해자는 양측벽에 축대를 쌓아 견고하게 만들었다. 동쪽 해자의 전체 길이는 185m로 추정되는데 전체 길이의 35%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사되었다. 확인된 해자의 규모는 길이 54m, 상부너비 6.4m, 하부너비 4.5m, 최대깊이 2.9m이다. 성벽과의 이격거리는 약 5.1m 떨어져 설치되었고, 옹성과는 기단석을 기준으로 불과 2.8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다. 호안석축은 3~4단까지는 자연대석(83×40cm, 48×45cm)을 이용하여 종평적하고 이후 상부로 올라가면서 최하단석보다 작은 크기의 자연석을 횡평적인 후 그 뒤편은 작은 자연석으로 보강하였다. 옹성부근 해자내측 벽석의 뒷채움은 다른 곳에 비해 그 폭이 매우 넓어 대조를 보인다. 뒷채움석은 자연석으로 횡평적하여 3, 4겹 채웠으며 자연석의 크기도 50cm×25cm로 큰 편이다. 이는 옹성의 하중으로부터 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적으로부터 옹성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⁵⁴⁾ 해자의 단면은 완만한 'U'자상을 이룬다. 그리고 해자에서는 해자를 건너 성내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시설인 육교부가 확인 되었다.

문헌 내용으로는 세종 7년(1425) 10월에 사등성을 축조할 것을 허락 받아 축조를 끝냈다. 그러나 조선 문종 즉위년(1450) 10월에 도체찰사 정분이 사등성을 고정리(고현성)에 이축 할 것을 건의하고 이를 허락 받아 다음해 11월부터 고현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단종 원년(1453) 9월에는 김순을 파견하여 축성을 감독케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 밖의 기사는 성의 규모와 구조, 축성시기 등에 대한 것으로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차는 없다. 이를 종합해서 축조 연혁에 대신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세종 4년(1422) 거창에서 환도한 거제 현민들이 우선 신현읍 수월리에

53) 심봉근, 「한국 남해연안성지의 고고학적 연구」, 학연출판사, 1995.

54) 이일갑, 「거제 고현읍성에 대한 연구」, 『석당논총』 3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6.

목책을 설치하고 생활하다가 세종 7년(1425) 사등성 축조 허락을 받고, 세종 8년(1426) 관아를 옮기고 축조하기 시작하여 세종 30년(1448)에 완성한다. 문종 즉위년(1450) 10월에 정분이 치소를 사등성에서 고현성으로 이축할 것을 건의하여 허락받고 현지 주민들의 건의도 무시한 채 다음해(문종 원년, 1451) 11월 고현성 축조가 시작된다.⁵⁵⁾ 단종 원년(1453) 9월에는 축성 감독관으로 김순을 파견한다.⁵⁶⁾

그리고 체성은 둘레 3,638척(3,088척?) 높이 13척이고 성내에는 三泉二池(一泉一池)가 있었으며 조선 현종 5년(1664) 치소를 현재의 거제면으로 이동하기까지 이 성을 거제군 치소로 사용된 듯 하다.

성곽규모에 대한 문헌관련 기사로는,

『世宗實錄地理志』卷一百五十, 「巨濟縣 邑石城周回三百二十一步」

『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二, 巨濟縣 城郭條 「邑城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三泉二池」

『東國輿地勝覽』巨濟縣 城郭條 「邑城 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三泉二池」

『輿地圖書』地池條 「古縣城 在府東北二十里 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一泉一池」

『東國輿地志』卷之四下, 巨濟縣 城郭條 「縣城 石築 周三千六百三十八尺 有門 城內有三泉二池 魯山初築」

『增補文獻備考』卷二十七, 城郭條 「巨濟邑城 在東北二十里 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井一池一」

『大東地志』巨濟 城池條 「.....端宗朝 贊成鄭荊築 周三千八十八尺 泉三池二」

『慶尙道邑誌』第十一冊, 巨濟 巨濟府邑誌 城池條 「古縣城 在府二十里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一井一池」

『嶺南邑誌』 第二十五冊 巨濟 城池條 「古縣城 在附東二十里 周三千六百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一井一池」 등이 있다.

55) 《文宗實錄》 卷十, 卽位年 十一月 三十日 甲子條 「是月 築慶尙道巨濟縣城」

56) 《端宗實錄》 卷七, 卽位年 八月 二十六日 庚戌條 「遣兼知兵曹事金淳于廢(慶?)尙道 監築巨濟城」

<표 5> 고현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문	현	편찬년도	규 모			비 고
			둘 레	높 이	부 대 시 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321보			
중종실록		1450년	1,916척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3,038척	13척	유 3천, 2지	
동국여지승람		1481년	3,038척	13척	유 3천, 2지	
여지도서		1759년	3,038척	13척	유 1천, 1지	
증보문헌비고		1908년	3,038척	13척	정1, 지1	
대동지지		1864년	3,088척		3천, 2지	
경상도읍지		1832년	3,038척	13척	1정, 1지	
대동여지지		1660년대	3,838척		유문, 3천, 2지	
여도비지		1856년	3,038척	13척	3천, 2지	
영남읍지		1871년	3,838척	13척	1정, 1지	
한국근대읍지		1930년	3,038척	13척	1지, 1정	
경상도여지집성		1963년	1,038척	13척	1정, 1지	

<표5>에 기록된 내용 중에 혼돈되는 것은 대부분의 지리지에는 읍성 둘레가 3,038척인데 반해 『동국여지지』, 『영남읍지』만 3,638척, 『문종실록』에는 1,916척으로 기록되어 있어 성둘레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 가운데 『동국여지지』, 『영남읍지』의 3,638척은 3,038척의 誤記로 파악되는데 그와 같은 이유에는 척도가 다르면 성고의 척수도 달라져야 함에도 여타의 지리지와 『동국여지지』, 『영남읍지』의 성고는 동일하게 13척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성둘레만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 당시 성기 심정시에 사용된 포백척과 영조척 및 주척의 비율을 따져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종실록』에서의 1,916척이라는 성둘레는 고현읍성이 아닌 사등성의 둘레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서 앞서의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우 역시 성 둘레가 321보로 步計値으로 수록하여 놓았는데 이것 역시 사등성의 성둘레를 수록한 것이다. 위 문헌기사 중 용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동국여지승람』의 길이 3,038척, 높이 13척이다. 3,038척은 포백척으로서 문종 원년 5월에 황해도 지역의 관방을 巡審할때⁵⁷⁾ 정분이 사용한 척수가 포백척으로 동왕 원년 8, 9월에 정분이 올린 충청, 전라 경상도 읍성의 성기심정

57) 《文宗實錄》 卷七, 卽位年 五月 五日 壬寅條. 「議政府據兵曹呈, 啓: “黃海道都體察使鄭某啓 本內...竝皆巡察 其關防舊基及可新設關防處 用布帛尺 量之 其中通行要路可置石堡守禦處 竝皆審定...”」

[illegible]

32

7. 남해읍성 <도 8>, <도11>

남해읍성의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동에 위치한다. 남해도는 우리나라 남단에 위치하는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 다음가는 5번째 큰 섬이다.

남해읍성은 둘레가 1,300m에 달하는 평지성으로 사방 325m 내외의 정방형에 가까운 석축이다. 현재는 대부분 유실 훼손되고 잔존한 부분은 남해군청 서측의 민가와 담장을 이루는 구간에 석성 110m, 남문 좌·우측에 90m등 약 200m 정도이다.

잔존한 성벽 중 양호한 부분은 높이 4m, 상부폭 3.2m, 내탁부는 석축이 2단 나타나 있으며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당초에는 흙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대석은 성벽에서 30~33cm 나와 있으며 성석의 크기는 80×32cm, 97×26cm, 70×30cm 정도에서 자연석을 이용하여 맞대어 쌓고 큰돌 사이에는 잔돌을 많이 끼워 쌓았다.

성내외는 모두 민가가 들어서 있으며 우물 3개소는 남아 있으나 현재는 식수로 이용하지는 않는다. 문은 모두 없어졌으며 남문지 옆에 치성 1개소가 남아 있는데 성벽에서 나온 길이가 8m, 폭은 6.5m의 크기이다.

남해읍성은 세조 5년(1459)에 축조 되었다. 지금 잔존한 성곽은 영조 23년(1747)에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성곽규모에 대한 문헌관련 기사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卷 三十一, 南海縣 城郭條「邑城石築 周二千八百七十六尺 高十三尺 內有井一泉五 四時不渴」

『東國輿地志』卷之四下, 南海郡 城郭條「縣城本朝初縣令任德秀所築 石城周二千八百七十六尺 有門 城內有井一泉五 四時不渴」

『慶尙道邑誌』卷一二冊, 南海縣 城池條「縣城石築 周二千八百七十六尺 高十三尺 女堞五百九十 擁城十八 有南北東西門 內有井一泉五 四時不渴 我世祖五年巳卯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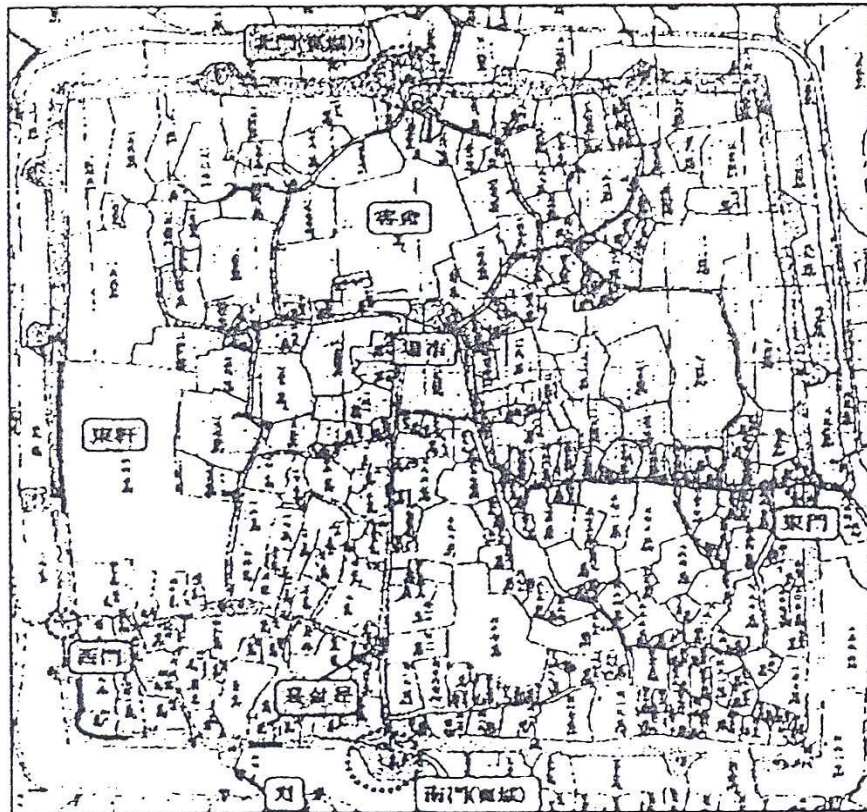
『增補文獻備考』卷二十七, 「南海邑堞 石築 周二千八百七十六尺 高十三尺 女堞五百九十 甕城十八 內有井一泉五 世祖五年築」

『輿地圖書』南海縣 城池條「邑城石築 周二千八百七十六尺 高十三尺 女堞五

百九十 有南北門 擁城十八 內有井一泉五 四時不渴 我世祖五年 巳卯築城」
등이 있다.

<표 6> 남해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문	현	편찬년도	규		모		비 고
			둘	높	부	대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2,876척	13척	정1, 천		
동국여지지		1656년	2,876척		유문, 정1, 천5		
경상도읍지		조선후기	2,876척	13척	여첩590,옹성18,4문,정1,천5		세조5년 (1459)축조
증보문헌비고		1908년	2,876척	13척	여첩590,옹성18,정1,천5		세조5년 (1459)축조
여지도서		1759년	2,876척	13척	여첩590,옹성18,정일,5천		세조5년 (1459)축조



<도 11> 남해읍성 평면도

8. 진도읍성 <도12>, <도13>

진도읍성의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에 위치한다.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143호로 지정되어 있다. 진도읍성은 진도 본도의 남부 해안 평야지대에 소재한 읍성으로 해발 15~18m의 평탄대지와 군강공원(57.5m)의 야산을 연결하여 쌓은 평산성이다.

읍성의 평면형태는 동서장축의 사다리꼴에 가까운 장방형이다. 성곽의 규모는 둘레가 외벽 기준으로 1,589m이며 북벽 465m, 남벽 432m, 동벽 387m, 서벽 305m이다. 현존부분은 북측 성벽 280m, 동벽 100m, 남벽 13m, 서벽 56m 뿐이다. 체성은 대체로 동벽과 서벽은 직선에 가깝고, 남벽과 북벽은 지형에 따라 약간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다.

성문은 동·서·남문지등 3개소를 두었고, 이들 성문에는 옹성을 설치하였다. 또한 측면에는 치성을 두었는데 지적도상으로는 16개가 확인되나 현존하는 것은 5개소 뿐이다. 치성은 성벽의 길이가 긴 남벽과 북벽에 각각 5개, 성벽이 짧은 동벽에 3개, 서벽에 2개가 설치되었다. 남벽 중간부분에는 1개소의 수구가 설치되어 있다.

체성의 축조방법은 외벽은 석축이고 내탁부는 토·석혼축식으로서, 기단부는 황색점토와 잔자갈을 섞어 25~45cm 두께로 다져 간 후에 길이 140~180cm, 두께 20~40cm 규모의 기단석을 그 위에 놓았다.

동문과 서문은 옹성형태로 일부 잔존하나 남문은 흔적조차 없다. 북측 잔존부분 성곽은 높이 3.4~3.5m, 성벽의 상부 폭은 3.5~4.24m로 내탁부는 토·석혼축으로 되어 있으며 성 내벽의 기울기는 34~47°를 유지하고 있다. 잔존하는 큰 성돌의 규격은 245×175cm, 184×98cm, 127×70cm 등에 이른다.

동북측 산능선 주변에는 해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성벽과 15m의 폭을 두고 길이 63m, 폭은 10m이다. 지대석은 크기가 180×33×45cm, 153×27×42cm의 큰 돌이며 지대석 하단부는 진흙으로 다지고 그 위에 편편한 돌을 깔고 지대석을 놓았다.

치성간 거리는 북측1호-2호(63m)-3호간(68m)-4호간(85m)-5호(120m)-6호(74m)-동측7호(70m)-동문옹성(71m)-8호(60m)-9호(72m)-남측-10호(37m)-11호(76m)-12호(110m)-남문옹성(70)-13호(76m)-14호(50m)-서측15호

(51m)-16호(64m)-서문옹성(72m)-1호(48m)이다. 평지에서의 치성간의 거리는 70~72m 정도로서 대체로 조선 초기의 설치기준인 150척(70m)과 일치하고 있다. 현존하는 치성의 규모는 5.5~6.5×6.5~7.5m이다. 6호치성의 경우 길이 5.5m, 폭 6.5m, 높이 6.5m 규모이다. 아래 <표 7> 참조.

<표 7> 진도읍성 치성 현황⁵⁸⁾

호수	길이(m)	폭(m)	형태	축조지형	축조위치	축조방법
1호	10	17	반원형	평탄대지	회절부	체성과 동
2호	7.4	8.3	장방형	평탄대지	성벽중간	체성과 동
3호(현)	8	10	반원형	평탄대지	성벽중간	
4호	8	8	장방형	평탄대지	성벽중간	
5호	5	7	장방형	능선 경사면	성벽중간	
6호(현)	5.5	6.5	장방형	능선 정상부	회절부	체성과 동
7호(현)	6.5	7.5	반원형	능선 경사면	성벽중간	체성과 덧붙임
8호	8	7	장방형	평탄대지	성벽중간	
9호	8	8	반원형	평탄대지	회절부	
10호	8	9	장방형	평탄대지	회절부	
11호	8.5	7	장방형	평탄대지	성벽중간	
12호	5.5	6.5	장방형	평탄대지	성벽중간	
13호	5	6	장방형	평탄대지	성벽중간	
14호	6	10	반원형	평탄대지	회절부	
15호	6	11	장방형	평탄대지	성벽중간	
16호	5	7	장방형	평탄대지	성벽중간	

조선 태종 9년(1409)에 해남 원진으로 옮기면서 해진군이 되었다가 세종 22년(1440)경에 축조되었다.

성곽규모에 대한 문헌관련 기사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珍道部 城郭條 「邑城石築 周三千四百尺 高十一尺 內有九泉一池 望海樓 郡南門樓」

『東國輿地志』 卷五志上, 珍道郡 城郭條 「郡城石築 周三千四百尺 有門 城內有九泉一池」

『輿地圖書』 珍道郡 城池條 「郡城石築 周圍二千四百尺 高十一尺 甕城十四雉堞五十八 池周圍四五十百尺 沈五尺 廣六尺 城內泉五」

『增補文獻備考』 卷二十七, 珍道邑城 「石築周二千四百尺 高十一尺 甕城十四雉堞五十八 內有池一五泉」 등이 있다.

58)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성·철마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2.

<표 8> 진도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문	현	편찬년도	규 모			비 고
			둘 레	높 이	부 대 시 설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3,400척	11척	유성문,9정,1지	
동국여지지		1656년	3,400척		3문,9정,1지	
여지도서		1759년	2,400척	11척	3문,치첩58,옹성14,5정,1지	
옥주지		1769년	2,980척		3문,2정,2지	
대동지지		1864년	3,400척		3문,5정,1지	
진도부읍지		1871년	2,400척	11척	3문,치첩58,옹성14,5정,1지	
진도군읍지		1895년	7리	11척	3문,치첩58,1지	
진도군읍지		1899년	2,400척	11척	3문,치첩58,옹성14,5정,1지	
중증진도읍지		1924년	3,400척		9정,1지	

<표 8>에 의하면 읍성의 높이는 각 지리지가 서로 같게 기록되어 있으나 성 둘레는 각각 상이한 기록을 보이고 있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대동지지』, 『중증진도읍성』 등은 3,400척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여지도서』, 『진도부읍지』, 『진도군읍지』(1895) 등은 2,400척으로 『진도군읍지』(1899)는 7리로 기록하고 있다. 현 진도읍성의 실측 길이가 1,589m임을 감안할 때 위의 척수를 포백척(46.73cm)으로 환산해보면 1,588m 82cm가 나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앞의 기록들이 옳은 것이고 『여지도서』 등의 기록은 오기임을 알 수 있다.



<도 12> 진도 진도읍성 위치도



<도 13> 진도읍성 평면도

9. 강화읍성 <도14>, <도15>

강화읍성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 3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국가 사적 132호로 지정되어 있다. 강화경찰서, 강화우체국, 고려궁지, 강화향교 등을 둘러싸고 있는 포곡식 산성이다. 둘레는 7,122m이다. 강화읍성은 강화산성 또는 강화내성으로 불리워 진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하여 왕궁과 성·관아 시설을 만들고 토성으로 내성·중성·외성을 쌓았다. 내성은 고려시대의 내성과 조선시대의 읍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읍성에 대한 최초의 정밀 실측조사는 1985년 삼성건축설계사무소에 의하여 『강화산성 현황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00년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하였다.

체성의 축조수법은 지대석의 설치없이 장방형의 치석한 기단석을 외벽면석에 설치하고 그 위로 성석들을 수평줄눈을 맞추어 상하 좌우로 맞물리게 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조수법은 조선초기의 읍성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켜기돌을 이용한 틈새 메우기 방법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내탁부의 유사 판축 및 토석혼축다짐토의 사용은 조선 중기 이후 외축 내탁식의 축조법이 조선후기에 들어서 보다 발전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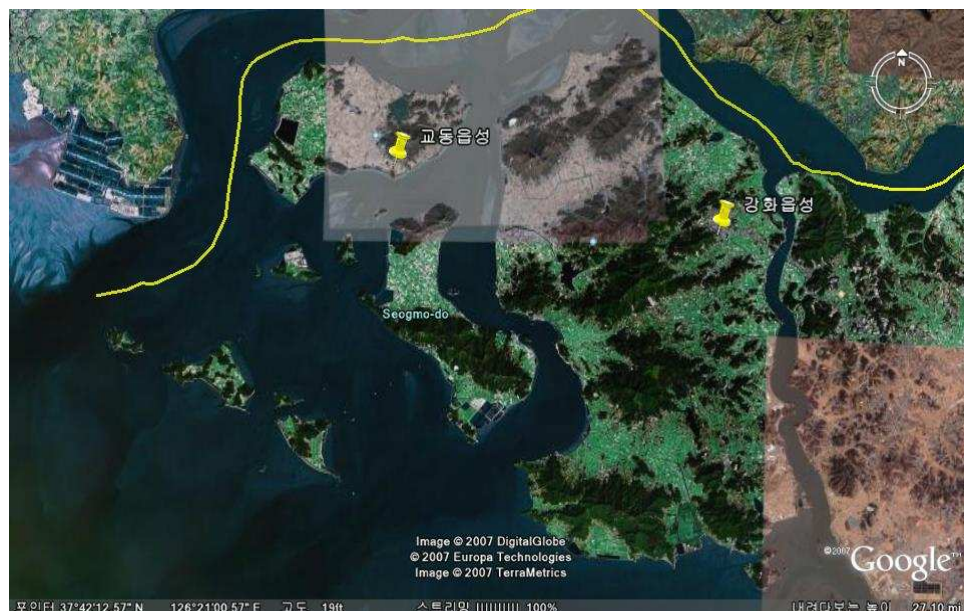
성문은 동(망한루), 서(첨화루), 남(안파루), 북문(진송루)의 4문과 4개소의 암문, 2개소의 수문, 남장대, 북장대가 있었다고 전한다. 4개의 암문 중에 현존하고 있는 것은 소남문 뿐이다.

잔존 높이는 3m 내외이고 너비는 4이며, 여장의 높이는 1m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쪽 성벽은 약 2m의 높이로 석축이 70m 정도 남아 있으며 면석은 큰 것이 83×51cm, 중간 정도가 65×37cm, 작은 것이 36×27cm 정도이다. 남문은 출입구가 4.0×4.5×7.5m이며, 성문 전체 크기는 길이가 20m, 높이가 5m, 여장의 높이는 1m이다. 동문쪽에 치성이 남아 있는데 길이는 6.4m, 높이는 3.3m이다. 북문은 출입구가 2.9×2.5m이고, 문 전체의 크기는 11m이다. 인조 9년(1631)에 개축했던 것을 인조 15년(1637)에 병자호란으로 훼손되었다. 효종 3년(1652)에는 성곽일부를 수축하고, 숙종 3년(1677)에 유수 허질이 전면돌로, 후면을 흙으로 개축·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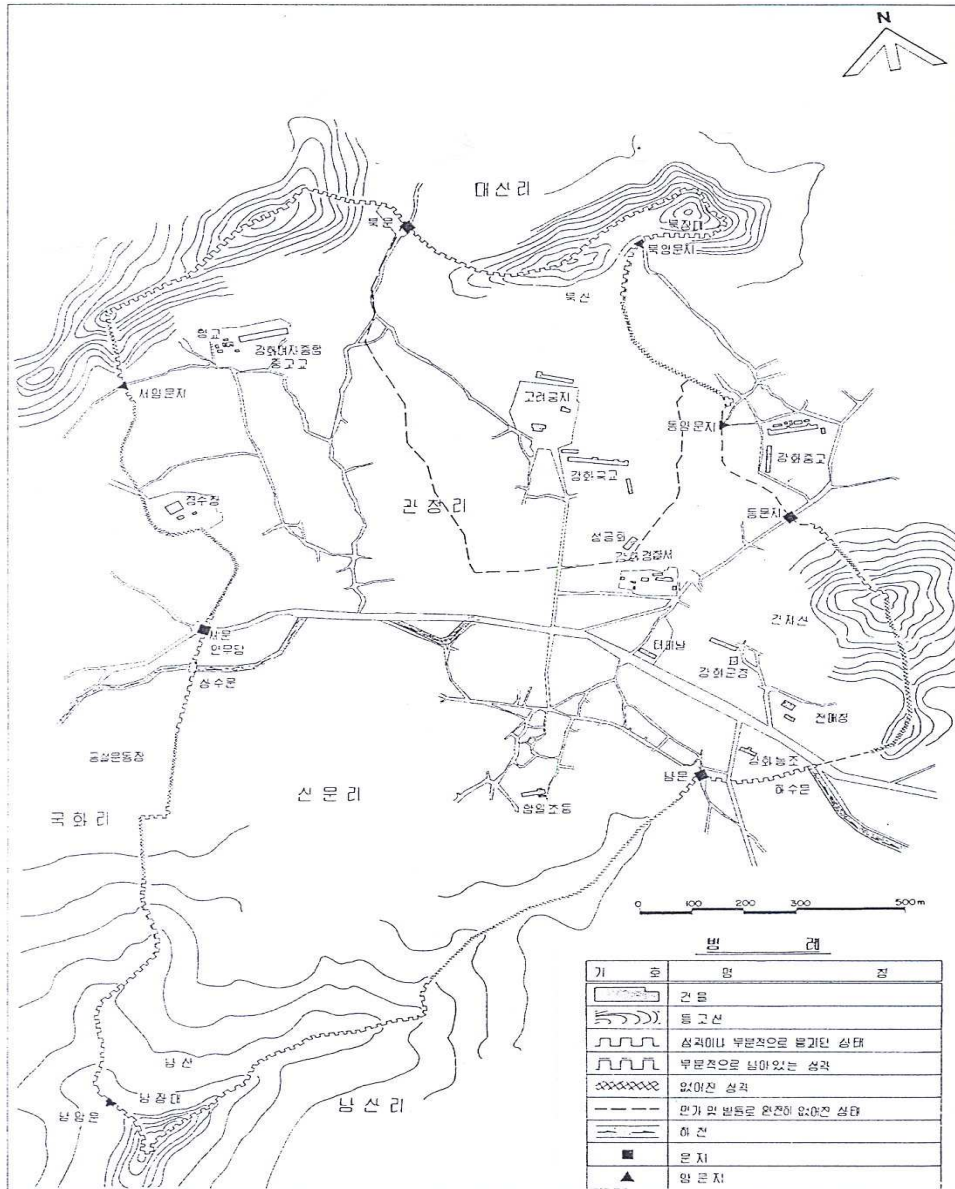
성곽규모에 대한 문헌관련 기사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2 江華都護府 古跡 「古宮城：在松岳里 高麗高宗時 所築內外城俱土築 外城周三萬七千七百六尺 內城周三千八百七十四尺」
『與地圖書』 江華府誌 城地條 「...周回一十五里三百四十三步 垛一千八百三葉 門樓三處如前 暗門五處 水門二處 城廊九處...」
『大東地志』 卷1 江華府 城池 「...周十五里三百四十三步 將臺三 門四 東曰望漢門 南曰安波樓 西曰瞻華門 北曰鎮松亭 暗門四」 등이 있다.

<표 9> 강화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문	현	편찬연도	규 모		비 고
			둘 레	부 대 시 설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3,874척		
여지도서		1856년	15리343보	치첩1,813 암문5, 수문2,성랑9	
대동지지		1866년	15리343보	장대3, 문4,암문4	
강화부지		1783년	15리343보	치첩1,813	
속수증보강도지		1932년	1리20정15간	치첩1,813,정문4,암문4,수문2,성랑9,정문장청4	



<도 14> 강화도 강화읍성, 교동읍성 위치도



<도 15> 강화읍성 평면도

10. 교동읍성 <도14>, <도16>

교동읍성의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67번지 일대의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한다.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23호로 지정되어 있다. 교동도에 위치하며 교동 월선포항에서 내려 읍내리로 오면 된다. 북쪽에는 화개산이, 남서쪽에는 남산봉수가 위치해 있다. 읍성은 서북방향에서 동남방향으로 길쭉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동읍성은 축성에 사용된 성석은 화강암 자연석으로 둘레는 856m이고 높이가 3.6m인 대체로 작은 읍성으로 바다 가까이 축성된 평산성으로 동·남·북문 세 곳에 문을 두었었다.

그러나 동·서문은 사라지고 남아있던 남문도 1921년 폭풍우로 없어지고 지금은 홍예만이 현존한다. 남문은 홍예문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3.6m, 세로 3.4m, 깊이 5.7m이다. 좌우에 2단의 기단석이 배치하고 그 위로 10개의 홍예석을 얹힌 구조이다.

남문에서 동문까지는 석벽의 일부가 민가의 담으로 사용하거나 거의 훼손되었다. 동문지에서 북문지까지는 거의 토성으로 남아 있는데, 중간에 2m정도 끊어지기는 했으나 50cm의 석축이 잔존한다. 4단에서 5단으로서 1.2m의 높이이며, 면적은 40×35cm, 25×25cm, 67×30cm이다. 북문지와 서문지 사이에는 토성만이 현존한다.

서문지와 남문지 사이에는 93m의 성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나, 나머지 83m의 성벽은 민가의 담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훼손이 심하다. 잘 보존된 93m의 성벽은 3단에서 9단의 1.5m 높이이며, 면적은 80×30cm, 80×55cm, 45×20cm이다.

성벽은 허튼층쌓기방식으로 내탁으로 축조하였는데, 수평줄을 맞추지 않고 거칠게 축조하였다. 여장은 현재 남아있지 않는데, 별도의 여장을 설치하지 않고 외벽을 연장하고 내벽의 상단에 단을 두고 체성의 두께를 급격히 줄이는 방법으로 성벽의 최상단부가 여장의 구실을 하도록 하였다.

내부에는 조선시대 수영터가 있는데 그 크기가 24×31m이다. 전면에는 2m 높이의 건물 기단석이 현존한다. 읍성 밖 북측의 산 능선 아래에 교동향교가 보존되어 있다.

교동도는 원래 戴雲島라고 하였고, 高林, 達乙新이라고도 불렀으며, 고구려 때 처음으로 현을 두어 古木根縣이라 하고, 신라 경덕왕 때 喬桐縣이라 하였는데, 이 명칭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신라 경덕왕(742~765) 때 교동현은 血口郡의 領縣이 되었으며, 고려 명종 2년(1172) 監務를 두었으며, 공민왕때에는 江都郡의 3현(진강, 하음, 교동)중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조선 태조 4년(1395)에는 喬桐鎭을 두었다가 다시 현으로 고쳐 萬戶兼知縣을 두었으며, 그 후 縣監을 잠시 訓導로 하였다가 다시 縣으로 하였다.

인조 7년(1629)에 황양(현재의 영흥)으로부터 水營을 교동으로 이설하면서 현을 부로 승격시키고 水軍節度使兼都護府使를 두었으며,⁵⁹⁾ 4년 후에는 統禦營을 설치하고 三道統制使를 두어 경기, 황해, 충청의 수군을 관할하게 하고 서해와 남해를 방어케 하였다. 영(營) 설치때를 초축시기로 볼 수 있다.

영조 29년(1753)에 당시에 통어사였던 白東遠이 지첩을 수축하고, 방어사 白樂倫이 남문을 증건하였으나 동문과 북문은 수축하지 못하였으며 남문 앞의 해자도 역시 메워버렸다.⁶⁰⁾ 북동문은 고종 21년 (1884)에 통어사 이교복이 성문을 수리하다가 역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고종 27년 (1890)에 부사 민상호가 중수한 듯 하나 그 후 허물어지고 말았다.

성곽규모에 대한 문헌관련 기사로는,

『輿地圖書』 喬桐道護部 城池條 「邑城周一千六尺 高三丈 置東南北 三門皆一層樓傍有 曲城四處 有瓮城而所築年月日今無可據之 文殘月單設鎭時所築 自古流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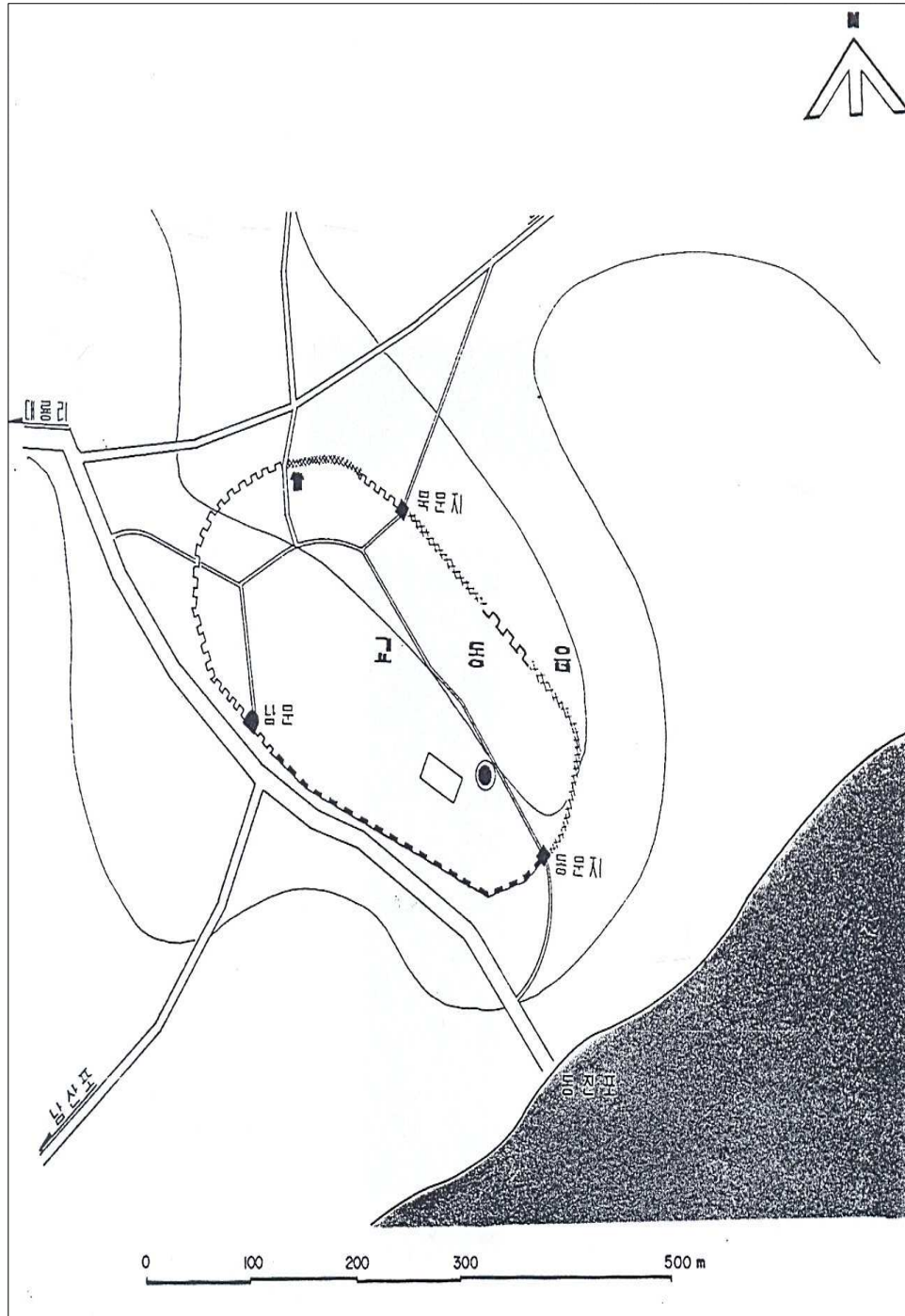
『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六, 「喬桐邑城石築 周一千六尺 曲城四」 등이 있다.

<표 10> 교동읍성 성곽 규모와 부대시설 현황

문	현	편찬년도	규 모			비 고
			둘 레	높 이	부 대 시 설	
여지도서		1759년	1,006척	3장	3문,곡성4,옹성2	
증보문비고		1908년	1,006척		곡성4	

59) 《仁祖實錄》 卷二十, 七年 二月 二十四日 庚戌條 「移水營於喬桐陞縣爲府 以水使兼府使」

60) 「속수증보강도지」 제8장 제 1절 성곽·진보.



<도 16> 경동읍성 평면도

앞에서 살펴 본 도서지역 읍성의 현황과 관련하여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표 11> 도서지역 읍성 현황

읍 성 명	축성 시기	규 모		실측 거리	성 문	치 성	여 장	소 재 지	문 화 재 지정 여부
		둘레	높이						
제주읍성	1411년 수축	5,489척	11척	2,280m	3	27	4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일대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 3호
고정의현성	14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정의읍성	1423년	2,980척	13척	1,200m	3	9	18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87번지 일대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 제188호
대정읍성	1418년	4,890척	17척 4촌	1,440m	3	5	2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일대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 12호
사등성	1426년 ~ 1448년	2,511척	9척	876m	3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성내부락617번지 일대	경상남도 기념물 3호
고현읍성	1451년	3,038척	13척	1,430m	3	7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00번지 일대	경상남도 기념물46호
남해읍성	1459년	2,876척	13척	1,300m	4	18	59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동 일대	
진도읍성	1440년	3,400척	11척	1,589m	3	16	58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일대	전남문화재 자료 제143호
강화읍성	1631년 개축	15리 343보		7,122m	4		1,813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화리 산 3번지 일대	사적 제 132호
교동읍성	1629년	1,006척	3장	856m	3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67번지 일대	인천기념물 제23호

IV. 도서지역 읍성의 특징

조선시대 초기 읍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헌 축성기사를 살펴보면, 태조에서 태종대까지는 대외 비변책은 산성의 유리함을 내세워 고함산성을 중심으로 한 청야입보방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다. 평지읍성이 수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으며, 왜구가 내륙까지 침입할 위험성이 인식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소극적인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태종 15년(1415)부터는 연해읍성 축조에도 관심을 가져 실제로 하삼도에서 읍성 축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은 왜구를 해안선에서 막아 피해를 줄이고 민력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방어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¹⁾

연해읍성이 본격적으로 하삼도에서 축조되는 시기는 세종때부터인데, 세종 11년(1429) 1월 25일에 許稠가 올린 장계에서, 경상도 연해 읍성은 왜구가 조석으로 오가는데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니 매해 농한기마다 성을 쌓아 10년을 기약하면 정보가 완전해질 것이라⁶²⁾한 것이 계기가 된다. 이어 동년 2월 4일 병조판서 최윤덕을 충청, 전라, 경상도의 도순무사로 삼아⁶³⁾ 의 審定을 하는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최윤덕은 동년 2월 10일에 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各官城子造築條件」을 마련하여 올렸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下三道의 各 고을 城子 중에서 防禦가 가장 緊要한 沿邊郡縣은 山城을 없애고 모두 邑城을 쌓을 것이며, 邑城으로 소용이 없을 듯한 것은 이전대로 山城을 修築하도록 한다.

② 各 고을에는 城을 築造할 때에는 各其 그 부근의 陸地州縣 3·4邑혹은 5·6邑을 限度로 아울러서 점차로 築造한다.

③ 民戶數가 적고 또 城을 쌓을 수 없는 各 고을은 인근 고을의 城子로 并

61) 심정보, 「고려말·조선초의 하삼도 읍성 축조기사 검토」, 『석당논총』 20,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1994, p. 246.

62) 《世宗實錄》 卷四十三, 十一年 正月 壬申條 「許稠啓 自古昇平日久 則備禦懈弛 以致不虞之患 慶尙道沿海各官 倭寇朝夕往還 而城堡不完 不可不虞 臣願 不限歲月 每當農隙築之 期以十年 則城堡完固矣 上然之 卽命右副代 言鄭淵曰 許調之言 方徵慮遠之計也 慶尙沿海各官城之事 其告于兩議政」

63) 《世宗實錄》 卷四十三, 十一年 二月 庚辰條 「以兵曹判書崔閔德 爲忠淸全羅慶尙道巡撫使」

入케 한다.

- ④ 各 고을은 使用이 가능한 舊城이 있으면 그대로 修築하고 使用이 가능한 舊城이 없으면 근처의 새로운 城其를 택하여 築造한다.
 - ⑤ 各 고을의 堅實하지 못한 城子가 있으면 各其 戶數의 多少에 따라 退築하거나 縮小하여 사용에 따라 改築한다.
 - ⑥ 各 고을의 城子를 一時에 다 쌓을 수 없으니 各其 城子の 大小를 헤아리고 마땅히 年限을 정하여 堅實하게 築造한다.⁶⁴⁾라고 기록하고 있다.
-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연해읍들은 산성 대신 읍성을 쌓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즉, 대마도 정벌과 같은 위압책과 더불어 산성 입보에서 읍성입보를 통한 적극적인 왜구방어정책이 시작되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세종 20년(1438)에는 『축성신도』를 반포하여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성곽을 수축토록하였다. 이전의 지방 읍성들의 축조방법은 도성의 축조법을 따랐지만, 『축성신도』의 반포 이후에는 이 축성법에 따라 읍성을 축조하였다.

세종 28년 4월에는 축성 시기를 10월로 정하고,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축성기한을 가감하여 정함으로써, 백성들의 빈담과 고통을 줄이는 「隨年地法」을 항식화 하기에 이르렀으며, 세종 28년 9월에는 「功役 規式」을 정하여 좀 더 체계적인 축성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문종에 와서도 세종의 축성계획을 이어 받아 하삼도 연해읍성에 대한 완축을 도모하게 되는데, 정분을 도체찰사로 하여 하삼도의 51개 읍성을 심정하고, 그대로 두어둘 ‘仍舊’ 대상의 읍성과, 물려서 넓혀야 할 ‘退築’ 대상의 읍성 및 고쳐 쌓아야 할 ‘改築’ 대상의 읍성, 그리고 추후에 꼭 쌓아야 할 ‘隨後可築’ 대상의 읍성을 분류함으로써 이를 완축하려는 의지가 돋보이게 된다. 그러나 정분은 문종때 간쟁기관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으며, 단종대에는 수양대군의 정적인 안평대군의 도당으로 지목

64) 《世宗實錄》卷四十三, 十一年 二月 丙戌條 「兵曹判書崔閔德 將各官子造築條件以啓 -, 下三道各官城子內 防禦最緊沿海邊郡縣 則除山城 其無可用邑城者 仍修山城 -, 各官築城時 各以附近陸地州縣 惑三四邑 惑五六邑 量宜并定 次次築造 -, 民戶數小 又無可築城子各官 則於隣官城子推移并入 -, 各官 有可用舊城 則仍修之 有可用舊城 則擇近處 新基築之 -, 各官有不實城子則各以戶數多少 惑退惑築 隨宜改築 -, 各官城子 不可一時畢築 各以城子大小 量宜限年 堅實造築 命下工曹」

되어 견제됨으로서 결국은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채 , 세종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읍성역이 일시 정파되기에 이르고 만다.

1. 입지조건

도성의 입지선정이 풍수지리와 『考工記』에 준하여 축조되었다면 읍성의 경우 풍수지리에 의한 입지선정보다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축조되어 생산활동을 수행하며 적극적 방어에 치중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심정보는, 「한국 읍성의 연구」에서 읍성의 입지조건으로 넓고, 평평한 곳, 水泉이 풍부한 곳, 險阻함에 의지하는 곳, 교통이 편리한 곳, 肥沃한 토지가 있고 경작지가 가까운 곳, 내부가 험하고 큰 곳, 주민들이 繁盛한 곳, 그리고 석재가 많아서 공력이 덜 수 있는 곳이 순위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입지조건 중에서도 성내가 넓고 평평하며, 水泉 역시 풍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城基 선정 시에 가장 먼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백성들이 비상시에 입보하여 오랜 기간을 성내에 머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풍부한 수원과 백성들이 거주하고 객사를 설치할만한 적당히 넓은 지형이 요구되었으며, 주위에는 토지가 비옥하고 충분히 경작할 만한 곳들이 擇定되었다. 고 주장하였다.⁶⁵⁾

그러므로 이러한 입지조건을 감안하면서 읍성의 위치를 분류하면 지형적 위치에 의한 분류와 지리적 위치에 의한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가. 지형적 위치

성곽은 항시 적절한 지형을 활용하여 방어력을 높이려 노력하였다. 성이 있는 위치에 따라 산성, 평지성, 이들의 복합식인 평산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산성은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국토를 보위하고 적을 방어하는데 가장 유리하게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성은 성곽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를 얻기 위해 요해처나 요충지에 산성을 축조하였는데 꼭 험준한 지

65) 심정보,(1995), 앞의 책 p. 422-423.

형만은 아니었다. 평시 생활 근거지에서 가깝고 유사시에 즉시 입보농성하여 역습 등의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형이다. 이러한 위치는 평야를 바라보고 방어에도 유리한 지형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삼국시대 당시부터 군치소로 사용되다 조선시대까지도 사용되는 읍성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성형태를 보이는 읍성으로는 강화읍성, 하동읍성 등이 있다.

평지성은 산성보다 지리를 얻기에 불리하였기 때문인데 평지성은 산성에 비해 단점만 있는것은 아니다. 유형원의 「관방총록」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핥기만 산성을 말하지만 지난번 금주성은 곧 평지인데 3년 동안 포위 당한채 서로 싸웠으나 끝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만약 외딴 산성으로 별안간 들어 갔다면 몇 달을 넘기지 못하여 양식은 떨어지고 사람은 흩어져 지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즉 평지성은 지리적 방어력의 이점이 부족한 반면 기타 공간활용, 관측, 수원 확보 등의 다른 측면에서 유리하고 특히 일정한 방어력만 확보된다면 장기전에 더욱 유리함을 말해 주고 있다. 평지성은 산성에 비해 성벽에서의 방어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벽이 일반적으로 크고 성벽 축조시 공역과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나 공간활용, 수원과 식량, 교통의 용이성 때문에 조선시대 읍성들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다. 고정읍성, 대정읍성, 정의읍성, 웅천읍성, 경주읍성, 언양읍성, 칠원읍성, 무장읍성 등이 있다.

평산성은 구릉지와 평탄지를 각기 일부씩 포함하고 있는 지세에 축조된 성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 발달이 산을 배후에 두고 발달하였는데, 이곳에 축성은 자연 평산성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산지를 이용한 산성의 장점과 거성으로서의 평지성의 장점을 두루 갖춘 형태이다. 이러한 평산성은 군사적인 방어진설물로서의 기능과 읍치의 행정적 기능을 두루 갖추었다. 여기에는 제주읍성, 고현읍성, 진도읍성, 교동읍성, 밀양읍성, 사천읍성, 영산읍성, 만경읍성, 해미읍성, 수원화성 등이 있다.

나. 지리적 위치

국경성의 경우 삼국시대 한강을 중심으로 많은 성곽유적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함경도와 압록강 지역 등 국경지역에 축성을 활발히 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해안성은 고려말 해안으로 침입하구 왜구에 대비하여 해안지역 읍성과

관련한 성곽들이 많이 축조되었다. 특히, 하삼도의 연안에 많은 성곽이 축조 되었다. 여기에는 사천읍성, 웅천읍성, 고현읍성, 교동읍성 등이 있다.

강안성은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때에는 바다와 강을 이용한 교통이 발달하여 수송도 하천을 따라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구분 방식으로는 선박 차단 유무로 보고, 하천 인근에 위치하여 성벽 및 성벽이 구축된 하단의 경사면에서 하천을 이용한 선박의 운송 제지가 가능한 지점에 구축된 성곽을 강변성으로, 하천 인근에 위치하나 성곽이 구축된 산지와 하천간의 이격거리가 있어 하천을 이용하는 선박의 운송제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곳에 위치하는 성곽을 강안성으로 구분한다.

地形的으로도 江岸에 축성함으로서 적과 대치하여 효과적으로 방비할 수 있고 강안지역이 생활근거지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강안성의 경우 일선의 방어지역이자 공격지점으로 항시 감시 및 공격, 방어가 가능한 곳에 위치하며 강안성의 연락에 따른 내륙지역의 방어에 주축을 이룬다.⁶⁶⁾ 읍성으로는 진주성, 밀양읍성 등이 있다.

내륙성은 내륙 깊숙한 산지에 있는 성곽을 비롯 하천, 강안 지역의 성을 총칭한다. 거의 대부분의 성들이 내륙성이다.

이상의 지리적 조건을 분류하여 구성하면 도서지역 읍성은 그 입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A, B, C, D, E형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형 : 평지성 + 내륙성 = 대정읍성, 정의읍성

B형 : 평지성 + 해안성 = 고정현성, 사등성, 남해읍성

C형 : 평산성 + 내륙성 = 진도읍성

D형 : 평산성 + 해안성 = 제주읍성, 고현읍성, 교동읍성

E형 : 산성 + 내륙성 = 강화읍성

2. 평면형태

평면형태란 성곽의 성벽이 둘러쳐진 형태를 말한다. 읍성의 평면형태는 방형, 원형, 부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평면형태의 읍성이 축조되는 이유가 지형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방형 및 원형 보다는 부정형을

66) 손영식, 「한국 성곽의 연구」,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7, p. 86-87.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⁶⁷⁾ 평면형태는 읍성이 위치한 지형 조건에 맞게 축조하여 방어적인 기능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가. 방 형

방형의 형태는 치성 등지에서 성벽에 접근하는 적의 동태를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방형에는 정방형, 장방형, 사다리형까지 포함된다. 읍성의 경우 방형의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정의읍성, 대정읍성, 경주읍성, 언양읍성, 남포읍성, 진도읍성, 웅천읍성 등이 있다. 그리고 도성 이외의 왕성은 대부분 방형을 보여주고 있다.

나. 원 형

초기의 성곽형태는 방형이 많은데 후대에 들어와서는 원형이거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진다. 여기에는 원형, 타원형 등이 포함된다. 성벽의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읍성의 경우 가능하면 원형에 가깝게 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원형은 적은 인원으로 군사적인 기능인 방어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고정현성, 교동읍성, 사등성, 당진읍성, 해미읍성, 태안읍성, 장기읍성 등이 있다.

다. 부정형

성곽이 위치한 지형에 맞게 성곽을 축조하게 됨에 따라 자연히 일정한 형상이라고 보다는 자연지형에 맞는 자연곡선형이 되었다.

여기에는 방형과 원형에 속하지 않는 형태들이다. 산성과 평산성의 경우 이러한 형태가 대부분인데 제주읍성, 고현읍성, 영산읍성 등이 있다. 특히 고현읍성과 영산읍성은 船形을 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하는 조건을 종합하여 도서지역 읍성의 평면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A. 방 형 - 정의읍성, 대정읍성, 진도읍성, 남해읍성
- B. 원 형 - 고정현성, 사등성, 교동읍성
- C. 부정형 - 제주읍성, 고현읍성, 강화읍성

67) 심정보,(1995), 앞의 책 pp. 362-363.

3. 축조수법

가. 분 류

도서지역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육지지역 보다 많은 성곽이 축성되었으며 읍성을 비롯한 관방성의 경우에는 그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서지역 읍성을 축조수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도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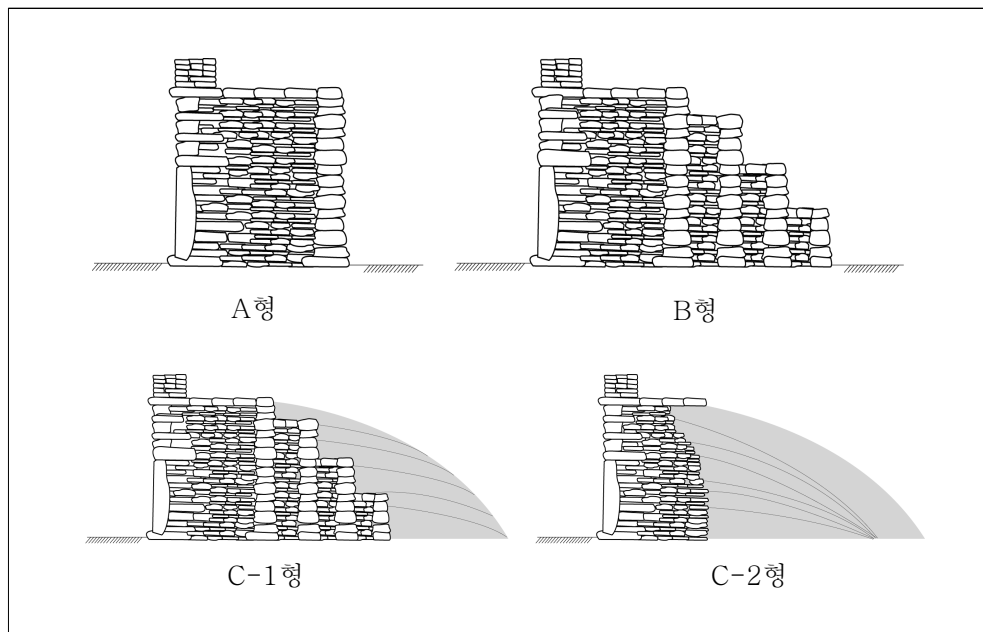
A형 : 내외협축식 - 내외 모두 석축 방식으로 축조한 것. 대정읍성과 정의읍성에서 확인되고 있다.

B형 : 계단식 - 내외협축식에 내벽에 덧대 계단상으로 축조한 것. 고현읍성, 제주읍성에서 확인되고 있다.

C형 : 외축내탁식 - 외벽석축 축조와 동시에 내벽부가 토사로 축조한 것.

C-1형 : 체성부의 계단식 석축화 이후 내탁부를 흙과 잡석으로 다짐하여 내벽을 경사지게 하여 축조한 것. 진도읍성에서 확인되고 있다.

C-2형 : 체성 적심부의 구성을 잡석과 흙으로 유사관축한 후 외벽과 내벽에 면석을 덧대거나 동시에 축조한 것. 강화읍성에서 확인되고 있다.



<도 17> 도서지역 체성 축조수법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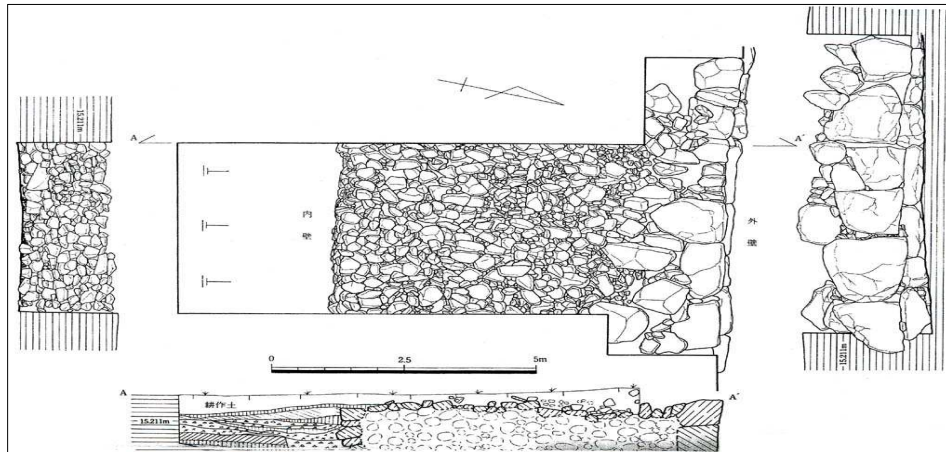
나. 특 정

이러한 분류에 따라 도서지역 읍성의 체성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육지지역 읍성의 축조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도서지역 읍성의 체성부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고현읍성 체성의 경우, 체성은 먼저 성벽이 될 부분의 표토를 제거하고 성 안에서 외벽 쪽으로 생토면을 ‘L’자상으로 정지하여, 그 위로 10cm 내외의 점토를 다지고 할석과 자갈을 이용하여 생토면 위를 정지한 후 그 위에 성벽의 기반부를 구축하고 있다. 외벽 쪽은 10cm 내외의 할석과 자갈을 섞어서 다진 후 그 위에 두께 20cm 내외의 장방형의 대석을 깔아 지대석을 만들고, 그 위에 60~130cm×30~70cm 정도 크기의 자연대석을 올려 약 15cm 정도 물리어 놓은 형태이다. 외벽 면석은 자연대석을 사용하고 지대석과는 수평하게 축조하였는데 기반석은 두께 15cm 이상 길이 80~120cm 내외의 장방형의 석재를 치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내벽은 지대석 없이 생토층을 파고 하부에 자갈을 깔거나 내벽석을 생토면 아래부터 축조한 경우가 있으며 뒷채움석은 인두대 크기의 할석으로 마구 채워 놓아 조잡한 상태이나, 대부분 적심쪽으로는 침석 같은 장대석을 걸쳐서 외벽이 붕괴된 후에도 성벽의 전면적인 붕괴는 막고 있다. 성벽의 경사는 전반적으로 상부로 올라가면서 내벽쪽으로 약간 기울이나 옹성이나 치성의 벽면 기울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수직상을 보인다. 체성 상부의 폭은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일정하지 않으며, 체성 안쪽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거나 계단상의 경사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도18>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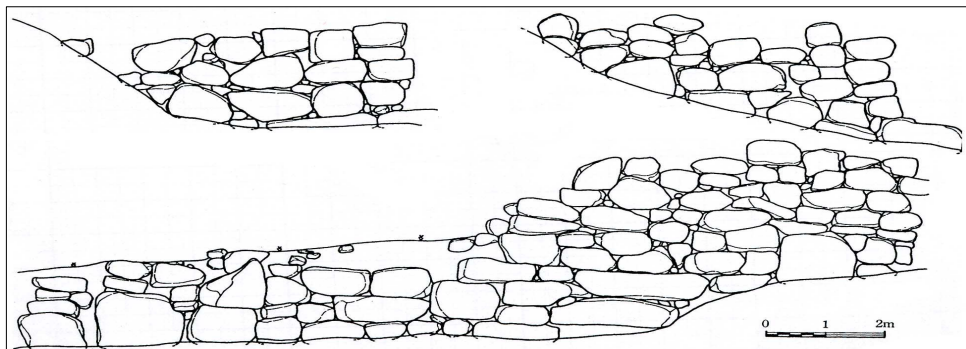
이와 같은 내벽 적심부의 축조수법의 특징은 세종 17년 갑인에 좌의정 최윤덕이 비변사의를 아뢰는 내용 가운데 “연변에 성을 쌓는 것이 안쪽에는 작은 돌로 매우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니, 이제부터는 모두 큰 돌을 쓸것”이라는 기사의 내용이 있다. 이것은 연해읍성의 축조시에 세종 17년 이전까지 계속해서 인두대 크기의 할석이나 할석편 및 잔자갈 등을 이용하여 적심부를 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에 이르러 최윤덕은 외벽면석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돌을 이용하여 막채워 놓은 것과 같은 매우기의 방식을 외벽면석에 비해 그 크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대체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외벽면석과 직교하게 내벽에 설치된 침석이 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때 이후에 축조되는 연해읍성의

체성부의 경우 그 이전에 축조된 읍성과 달리 침석들의 설치가 일반화되고 이러한 양상은 이전에 축조된 연해읍성과 비교할 수 있는 또다른 축조수법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겠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읍성인 고현읍성과 진도읍성 등에서 확인되는 내벽의 침석 역시 이와 같은 연유에 따라 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도 18> 고현읍성 체성부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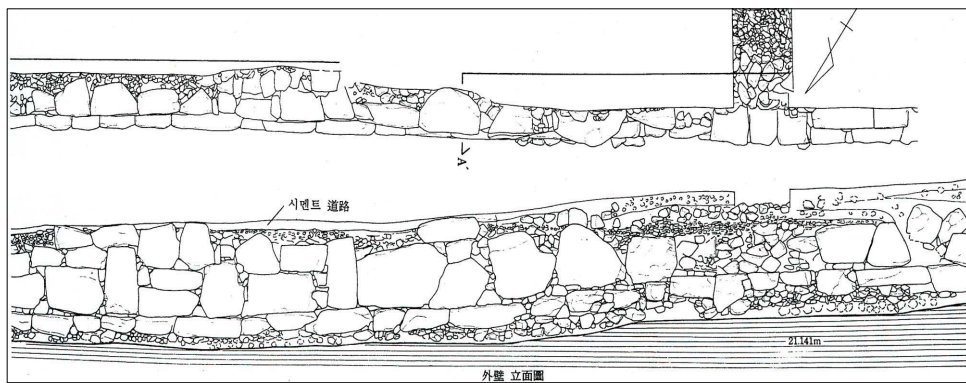
다음으로 도서지역 읍성의 체성부 외벽 축조수법은 <도19>의 진도읍성의 체성에서 보이듯이 외벽은 석축이며 내탁부는 흙과 잡석을 혼합한 토·석혼축식으로 기반부는 잔자갈과 황색점토를 섞어 다진 후 자연대석을 기반석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 19> 진도읍성 체성부 외벽 입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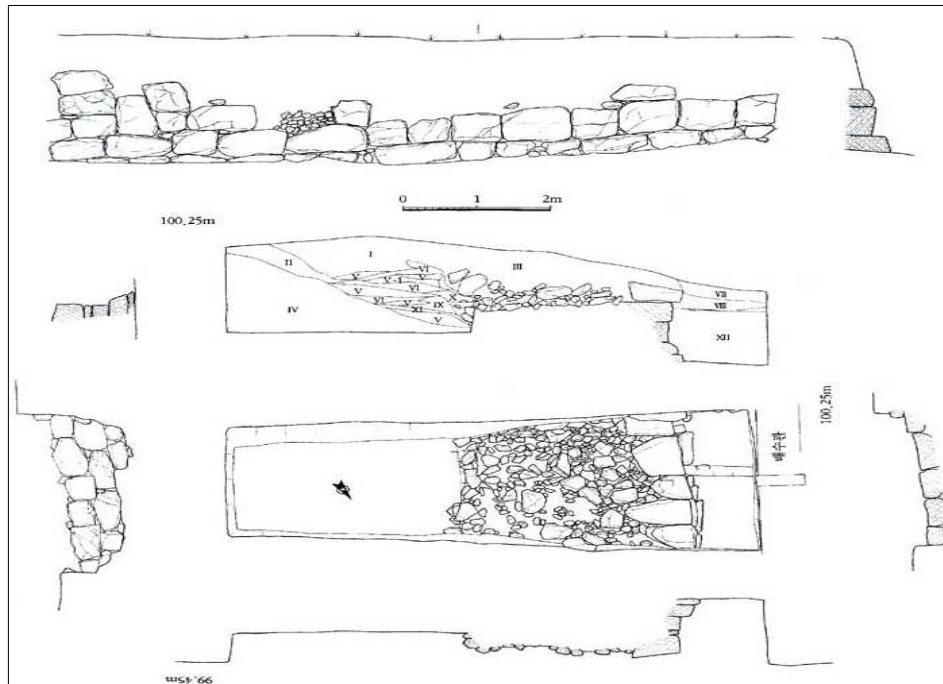
그리고 제주읍성과 대정읍성은 협축으로 외벽은 장대석으로 된 지대석 위

에 자연대석의 기단석을 세워 쌓고 내외벽 사이에 적심은 잔돌 끼움을 한 허튼층쌓기를 하여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 갈수록 성돌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 읍성들은 대체로 성벽을 쌓을 때 바깥쪽으로 고른 면을 맞추어 체성 1~2단의 경우는 대체로 대형석을 立垂積하지만 상부로 가면서 성벽석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橫平積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형의 할석과 할석 사이에는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잔돌을 채우고 있다.



<도 20> 고현읍성 체성부 외벽 평/입면도(외벽축조수법)

이와 같은 것은 <도20>의 고현읍성이나 진도읍성, 제주읍성, 대정읍성 등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인데 반해 아래 <도21>의 강화읍성의 경우에는 지대석의 설치없이 장방형의 치석한 기단석을 외벽면석에 설치하고 그 위로 성석들을 수평줄눈을 맞추어 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화읍성의 축조수법은 내탁부의 유사관축 및 토석혼축다짐토의 사용과 함께 조선 중기 이후 외축 내탁식의 축조법이 조선후기에 들어서 보다 발전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지역 읍성의 체성부 외벽축조수법의 경우에는 조선 전기에 축조된 읍성의 경우는 연해읍성에서 축조되는 기저부 정지 후 장대석의 지대석 설치, 2m이상의 대석의 기단석 설치 후 위로 갈수록 작은 성석으로 축조되는 방식이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조선 중기 이후에 축조된 도서지역 읍성의 경우에는 외축 내탁식의 축조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상호 시기차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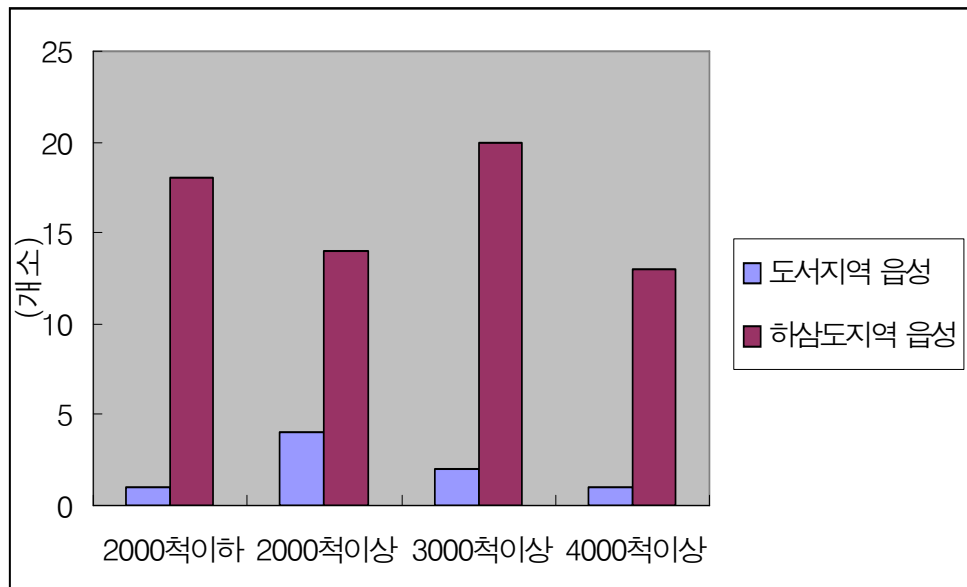
<도 21> 강화읍성 체성부 외벽 평/입단면도

다음으로 도서지역 읍성에서도 조선시대 여타의 읍성에서 확인되는 외벽기단보축이 확인되는데 이 외벽기단보축은 고현읍성의 경우는 외벽 기단부 하단에는 성벽에서 해자 방향으로 폭 약 1.2m정도까지 板石 내지 인두대의 할석을 장대석과 나란하게 깔고 있으며, 이러한 외벽 기단석 바깥의 석축은 남해 연해읍성인 웅천읍성, 언양읍성, 하동읍성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고현읍성에서는 일부 석축의 경우 체성부의 지대석과 맞물려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체성부와 동시 축조로 판단되지만 하동읍성 서문지 외벽면석 하부의 보조석축의 경우에는 모두 덧대어서 축조되어 있어 꼭 기저부를 조성하고 정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축조수법만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이러한 외벽기단보축의 경우는 진도읍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만 제주읍성과 대정읍성, 정의읍성의 경우는 외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동일한 양상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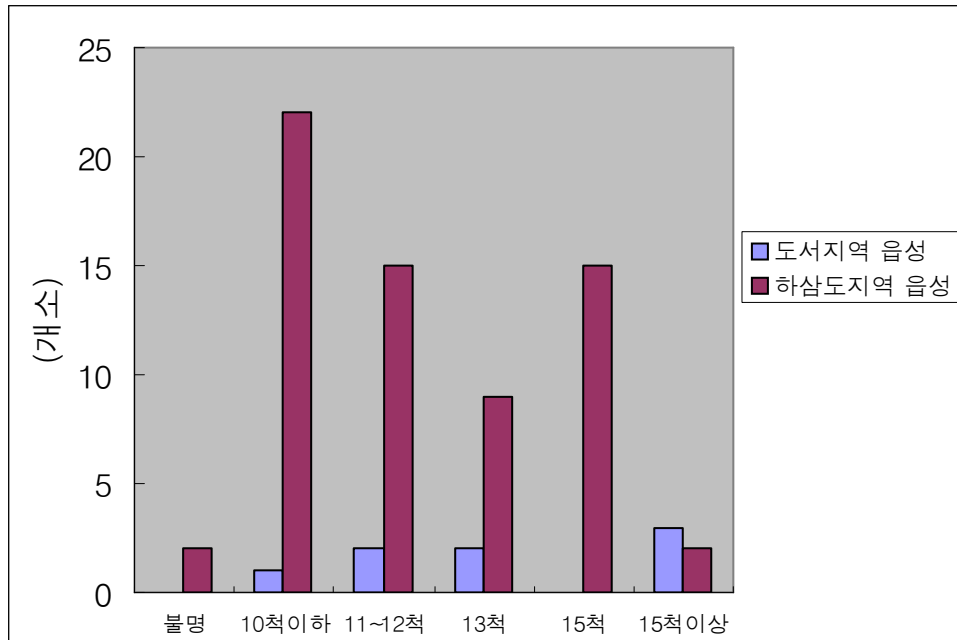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도서지역 읍성의 체성 축조수법은 조선시대 전기에 축조된 연해읍성의 일반적인 특징인 계단식 축조법, 외벽기단보축, 침석의 사용, 기준석을 중심으로한 구간별 시공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 읍성은 섬이라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접근성과 축성동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오랜 시간의 축성기간 같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육지읍성의 축조수법과 동일한 축조수법이 확인되고 있어 도서지역 읍성 역시 당시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 하에 읍성을 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통치력과 지방 지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겠다.

다. 체성의 규모

도서지역 읍성들의 체성의 크기와 높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하삼도 65개소의 읍성 둘레를 살펴보면, 2000척이하 18개소, 2000척이상 14개소, 3000척이상 20개소, 4000척이상 13개소가 있다.(1000척이하 3개소는 2000척이하에 포함, 5000척이상 3개소는 4000척 이상에 포함시킴) 그리고, 높이로는 불명 2개소, 10척이하 22개소, 11~12척 15개소, 13척 9개소, 15척 15개소, 15척이상 2개소가 있다.



<도 22> 도서지역 읍성의 둘레와 하삼도 읍성의 둘레 비교도



<도 23> 도시지역 읍성의 높이와 하삼도 읍성의 높이 비교도

<표 12>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도시지역 읍성 성곽규모/ 실측거리 비교표

도시지역 읍성	축성년대	둘레 (尺)	포백척 사 용 m로 환산	높이 (尺)	포백척 사 용 m로 환산	지적도상 및 실측거리	비 고
제주읍성	태종 8년(1408)	4,394	2.053m	11	5.14m	1.424m	실측높이 6,10m
고정의현성	태종 16년(1416)					200m	
정의읍성	세종 5년(1423)	2,986	1.395m	24	11.21m	1.200m	
대정읍성	태종 18년(1418)	2,647	(외)1.440m / (내)1.280m	28	13.08m	1.260m	
사등성	세종8년(1462) ~ 세종30년(1448)	2,511척 6촌	1.173m	9		876m	
고현읍성	문종 원년(1448) ~ 단종 원년(1453)	3,038	1.420m	13	6.07m	1.430m	
남해읍성	세조 5년(1459)	2,876	1.344m	13	6.07m	1.300m	
진도읍성	세종22년(1440)	3,400	1.589m	11	5.14m	1.589m	
교동읍성	인조 7년(1629)	1,006	470m	3장		856m	여도 지서

<도22>를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읍성의 둘레 중 도서지역 읍성의 둘레는 대체적으로 하삼도의 읍성들 중 중간보다는 약간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남해안지역 읍성들의 성 둘레를 살펴보면, 동래읍성 3,000척, 고성읍성 3,011척, 하동읍성 3,943척, 사천읍성 3,015척, 곤양읍성 3,765척 등으로 3,000척 내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서지역의 읍성들 중 사등성, 고동읍성을 제외한 읍성들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도23>에서도 도서지역 읍성들의 높이는 문헌상으로는 정의읍성과 대정읍성이 매우 높게 기록되어 있으며 <표12>의 실측결과에서는 제주읍성의 치성의 높이가 10m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해안지역 읍성들 중 동래읍성 13척, 창원읍성 12척, 곤양읍성 12척, 고성읍성 12척, 하동읍성 8척, 사천읍성 11척 등으로 13척 이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서지역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남해안 지역보다 도서지역의 군사 등 수성 인원이 부족하여 성고를 높임으로써 적은 인원으로 왜구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지역 읍성에 사용된 용척에 대해 살펴보면, 조선초기의 읍성에 사용된 척은 포백척(46.73cm)과 영조척(31.24cm)이 사용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우 영조척을 사용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우는 포백척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⁶⁸⁾ 정의읍성, 대정읍성, 고현읍성, 진도읍성, 남해읍성은 측량치와 척을 포백척으로 환산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진도읍성의 경우는 측정치가 1,589m이고 척을 포백척으로 환산했을 때 1,589m로 일치한다.

남해안 지역의 진·보과 비교하여 보면 축성규모는 성곽의 규모가 읍성과 비슷하거나 통상 둘레가 1,000~1,500척 사이가 가장 많고 높이도 13척이 주

68)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16,

(단위 : cm)

구 분	세종척도	경국대전	영 조	순 조	수 표 교	비 원
周尺	20.81	21.04	20.83	20.81	20.18	20.68
營造尺	31.24	31.21	31.22	-	31.24	30.83
布帛尺	46.73	46.80	46.73	46.73	46.73	46.24
步	124.86	126.24	124.98	121.08	124.86	124.08
步/營造尺	3.9996	4.044	4.003		3.996	4.024

류를 이루고 위치는 구릉과 산의 끝자락을 이용하여 계곡을 포함하는 포곡식의 평산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보의 축조수법은 진성과 비슷하거나 통상 둘레가 500~1,000척 사이가 가장 많고 높이는 5~13척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치는 해안이나 주변지형을 조망하기 좋고 적의 내륙진출을 막을 수 있는 요충지에 설치하고 있다.⁶⁹⁾

4. 부대시설

그 외 성곽의 부대시설로는 성문관련 해서는 육축, 개구부, 문비, 문루, 암문, 수문, 옹성, 적대 등이 있으며, 성벽관련으로는 체성, 여장, 미석, 총안, 현안, 치성, 각루, 공심돈, 용도, 해자, 장대, 도로망, 성내건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적의 공격에 대비한 중요 방어시설인 치성과 성문, 옹성, 해자, 여장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가. 치성

성벽에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관측하고 전투시 성벽에 접근한 적을 정면 또는 측면에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장방형으로 쌓

69) 이일갑,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진·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15. p. 80,

〈표〉 조선전기 남해안지역 진·보 현황

島 嶼 型							陸 地 型						
鎮堡名	平面 形態	海拔 高度	附帶施設			備考	鎮堡 名	平面 形態	海拔 高度	附帶施設			備考
			門	雉	壕 字					門	雉	壕 字	
가배랑	장방형	25-50m	2	5	○	泉池	좌수영	타원형	27.4m	4	6		三井
지세포	타원형	20-75m	3	9	○		다대포	타원형	평지				
옥 포	방 형	평지	4		○	추정	부산포	타원형	120m	4		○	
영등포	타원형	25-40m	2		○		제포	부정형	10-70m	4	4	○	
오량성	방 형	10-15m	4	8	○	二泉	소비포	방 형	10-20m	3	1	○	
가덕진	방 형	10-20m					금단곶	타원형	189.2m	4	2	○	
천성진	방 형	20-30m	2	8	○		병영성	타원형	30-35m	4	1	○	
적 량	타원형	20-30m				一池	안골포	부정형	10-65m	2	2	○	
사등성	타원형	10-20m	4	4	○		당 포	타원형	5-85m	2		○	
구울포	장방형	35-40m	4				합 포	방 형	27-28m	4	8	○	
구조라	방 형	20-85m	2	6	○	一泉	서생포	방형	20-80m			○	井

은 구조물을 말한다. 치성은 여러 명칭으로 불리웠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곡성, 성두 등이 있다. 치성 위에 누각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불리기도 한다. 누각이 있는 경우 鋪樓, 敵樓, 鋪舍라 하며 치성에 포를 설치하는 경우에 砲樓, 石樓라 한다. 한편 읍성의 모퉁이나 돌출지역의 치성에 누각을 설치한 것을 성우, 궁우라고도 불린다. 유성룡의 『축성론』에서는“성이면서 치가 없으면 비록 한사람이 타 하나씩을 지킨다 하더라도 타 사이에 방패를 세워서 밖에서 들어오는 화살을 막기 때문에 적이 성 밑으로 붙는 것을 발견하여 막아 내지 못한다. 『기효신서』에는 50타마다 치 하나씩을 설치하는데 밖으로 2~3장쯤 나가게 된다.”라 하였다. 산성의 경우 성벽과 능선이 교차되는 높은 지점에 치를 만들었다.⁷⁰⁾ 평지성에는 산성보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치성이 설치되었다. 치성의 높이는 체성의 높이와 같이 하여 규모는 일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길이로 5~8m, 폭으로는 4~6m가 많다. 성에서 치의 숫자는 성의 규모와 지형에 따라 차이를 가진다. 치성의 형태는 장방형이 많고 반원형의 형태도 있다. 치의 축조는 체성인 성벽을 먼저 쌓고 덧붙여 축조하는 것이 보통이고 예외적으로 체성 축성시 동시에 축조한 경우도 있다.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서는 치성에 대하여 “비록 작은 성이라도 만약雉城이 없다면 성이 없는 것만 못하다. 우리나라의 성에는 모두 치성은 없고, 女牆에 砲穴만 파놓았으니 어디에 쓸 것인가. 적이 성 밑에 붙어 돌 머리를 파낸다면 비록 돌을 깨서 던지고 물을 흘려 내려도 모두 賊人의 등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丸箭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성문의 좌우에 곡성을 만들어 용성을 대신하고, 그 문이 없는 측면에도 곡성을 설치하면, 그 두 치성 사이 불과 50~60步 지점에 箭丸이 서로 미치게 한다면 성에 붙은 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⁷¹⁾라고 하여 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선시대 세종 12년(1430)에 병조에서 성을 수축할 때에는 성면에 굴곡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평평하고 곧은 부분에는 그 지형에 따라 100步마다 1개의 대를 축조토록하고 있다.⁷²⁾

70) 손영식, 앞의 책 p. 207.

71) 김정보(1995). 앞의 책 pp. 375-376.

72) 《世宗實錄》 卷四十九, 十二年 九月 二十四日 壬戌條

「請自今各處城時 除城面屈曲處外 平直處隨基地形 一百步築一臺 從之」

치성과 웅성은 체성을 완료한 후에 축조토록 하였기에 제대로 완비되지는 못하였다.

세종 15년(1433)에 병조에서는 “치는 전면 15자, 좌우 각 20자의 규모로 하여, 150자에 1개의 치를 설치토록”⁷³⁾하고 있다.

이를 포백자의 기준치인 46.73cm로 환산하면 치의 규모는 전면이 7m, 좌우면이 9.3m이고, 간격은 70m이다.

<표 13> 도서지역의 치성 현황

읍 성 명	치성 수	평면형태	너 이	길 이	치성간 거리	비 고
제주읍성	27	방 형	9.10m	11.00m		복원된 치성
		정방형	11.30m	11.00m	59.60m	
		방 형	7.10m	12.80m	73.80m	
대정읍성	5	정방형	13.20m	13.20m		서문쪽~남쪽220m/ 남에서동쪽330m/ 남에서북쪽 295m
		정방형	11.50m	11.50m		
고현읍성	6	방 형	7.30m	9.40m		복원된 치성
		장방형	8.90m	7.65m	94.15m	
		방 형	6.90m	9.20m	51.50m	
		방 형	7.30m	9.60m	165.90m	
					120.80m	
진도읍성	16	반원형	10.00m	8.00m	68.00m	체성과 동시 축조
		방 형	6.50m	5.50m	74.00m	체성과 동시 축조
		반원형	7.50m	6.50m	70.00m	체성에 덧붙임

73) 《世宗實錄》 卷五十九, 十五年 正月 十三日 丁卯條 「今後前面十五尺 左右各二十尺 以爲定制 且每一百五十步 直一敵臺 則功力省 而可以禦敵,從之」

<표 14> 조사된 읍성 및 영·진·보성의 치성 현황

읍 성 명	치성 수	평면형태	너 비	길 이	치성간 거리	비 고
언양읍성	12	방 형	7.15m	8.00m		
		방 형	7.20m	9.44m		체성과 동시축조
		방 형	7.00m	9.70m		
		방 형	7.15m	8.00m		
		방 형	8.00m	10.45m		체성과 동시축조
웅천읍성	6	방 형	5.50m	7.60m		
		장방형	8.40m	5.50m		
하동읍성	11	장방형	6.70m	5.10m		체성에 덧붙임
		장방형	7.10m	5.10m		반동시/반덧붙임
		장방형	7.50m	5.00m		체성에 덧붙임
		정방형	6.60m	6.10m		체성에 덧붙임
		방 형	7.40m	9.40m		체성에 덧붙임
		방 형	7.40m	9.80m		체성에 덧붙임
		장방형	6.20m	4.40m		체성에 덧붙임
동래읍성	12	정방형	4.20m	4.20m		체성에 덧붙임
		정방형	4.20m	4.80m		체성에 덧붙임
		정방형	4.40m	4.80m		체성에 덧붙임
사천읍성	15	방 형	8.20m	9.40m		
		방 형	7.20m	8.30m		
곤양읍성	13	장방형	14.70m	5.3m	동문에서 100m	
영산읍성	6	방 형	7.20m	8.20m		체성과 동시축조
		장방형	9.30m	6.70m		체성과 동시축조
기장읍성	6	방 형	6.90m	8.70m		
청도읍성	6	장방형	11.80m	8.50m	동문에서 30m	
		정방형	8.10m	8.70m	북문에서 90m	
경주읍성	26	방 형	7.50m	9.30m		
보령읍성	8	장방형	4.20m	3.60m	남문에서 34m	
		방 형	5.30m	7.40m		
해미읍성	2	정방형	7.50m	7.90m		
		정방형	7.60m	7.70m		
울산병영성	21	정방형	8.00m	8.00m	동문에서 90m	체성에 덧붙임
개운포성지	6	정방형	6.00m	6.00m	서문에서 62m	체성에 덧붙임
합포성지	9	정방형	7.00m	7.20m		체성에 덧붙임
		장방형	8.00m	7.00m		체성에 덧붙임
오량성지	8	정방형	7.00m	7.00m		체성과 동시축조
당포성지	8	방 형	4.90m	7.10m		
		정방형	6.00m	5.90m		

<표13>, <표14>에서 보면 제주읍성, 대정읍성의 치성은 길이나 너비가 10m를 넘는 반면 육지읍성 및 영·진·보성의 치성은 평균 5~7m를 보이고 있어 도서지역 읍성의 치성이 상당히 큰 규모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읍성 축성시 기본적인 치성의 수는 읍성의 4성우와 주요 문지의 좌우 적대를 시설한 6개소의 형태와 4성우와 각문지 좌우에 2개소씩 시설한 12개소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정읍성의 치성은 5개소이며 특이한 점은 서북쪽 가장자리는 말각형태의 2개 치성이 확인되어 왜구의 침입시 서북쪽으로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이 곳을 보강하기 위하여 두 개의 치성을 두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도 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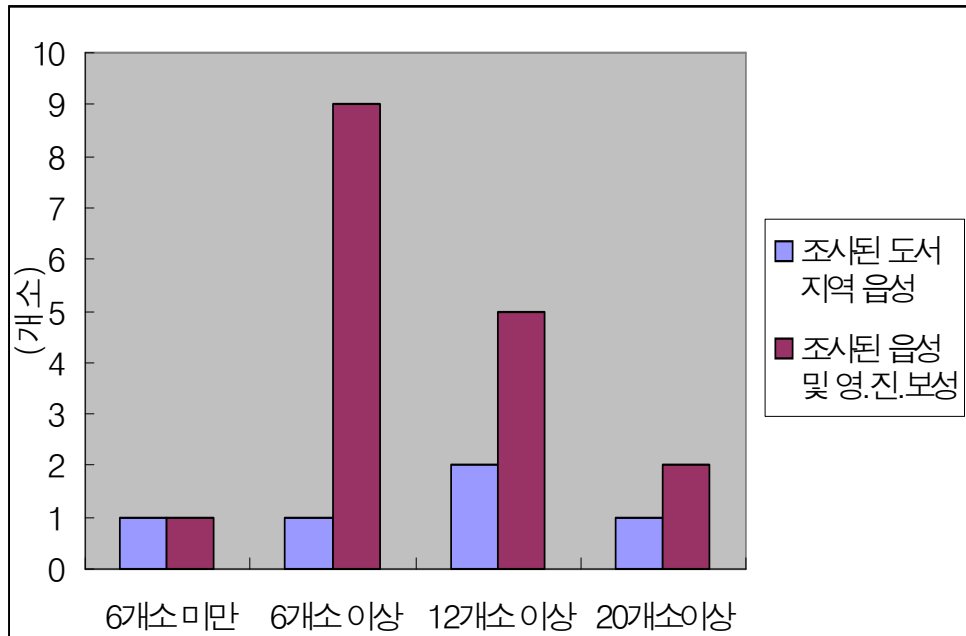
이는 육지읍성 중 하동읍성의 치성의 배치 상태를 살펴보면 총 11개소 가운데 서벽과 서남쪽에 집중적으로 치성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이 지역의 지형이 동벽에 비해 경사도가 완만하고 남해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침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

진도읍성의 경우도 총 16개의 치성이 확인되는데 현존하는 것은 5개소이다. 이 중 2·6호는 체성벽과 동시에 축조하였고 7호는 체성벽에 덧붙여 축조하였으며 2·7호 치성의 평면형태가 방형이 아닌 반원형의 치성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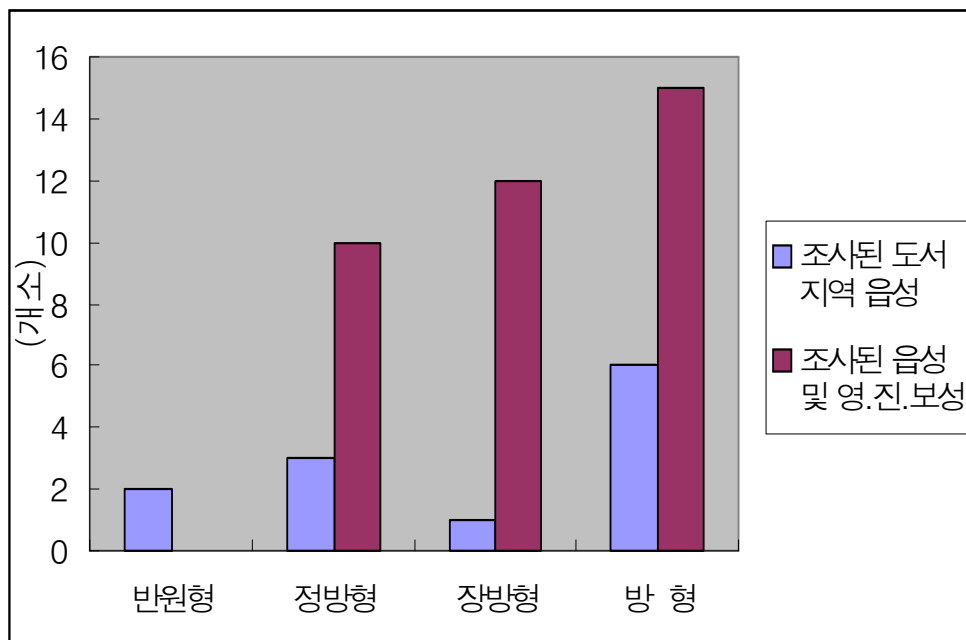
연안과 내륙 읍성들의 치성을 살펴보면, 김해읍성 20개소, 창원내상성, 12개소, 곤양읍성 13개소, 기장읍성 6개소, 동래읍성 12개소, 고성읍성 12개소, 하동읍성 11개소, 사천읍성 15개소, 진해읍성 6개소, 보령읍성 8개소, 홍천읍성 24(6)개소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표13>과 <표14>에 보이는 체성과 동시 축조된 치성과 체성에 덧붙인 치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체성과 동시 축조된 치성은 어느정도 규칙화되어 축조 되었지만 체성에 덧붙인 치성의 경우는 대정읍성처럼 왜구의 침입이 용이한 곳에 필요에 따라 집중적으로 치성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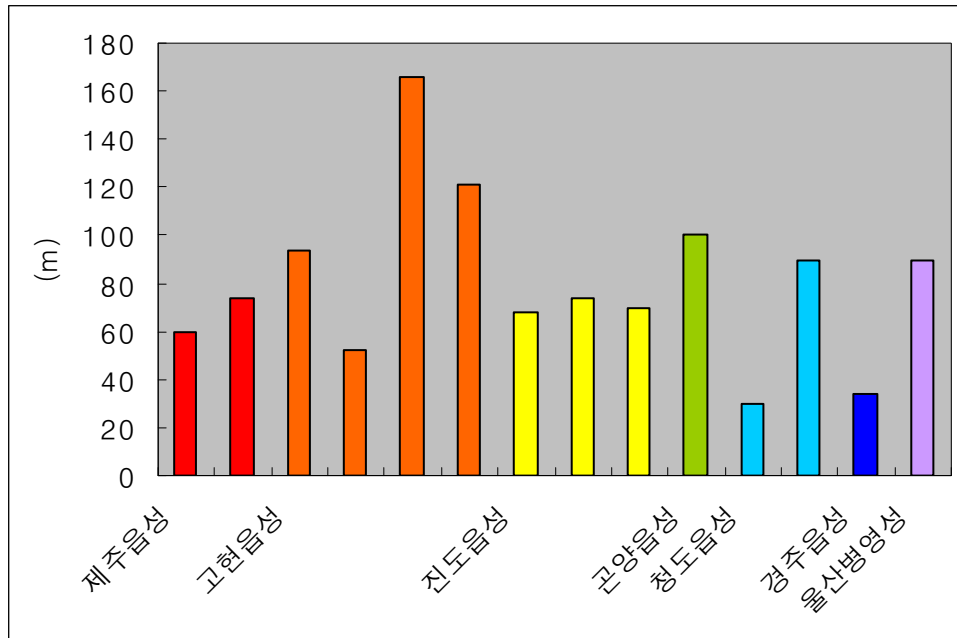
<도24>의 치성의 숫자로는 제주읍성과 경주읍성, 울산병영성에서 20개소 이상이 시설되어 있고 다른 읍성들의 치성은 12개소와 6개소 사이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도 24> 조사된 도서지역읍성/육지읍성 및 영·진·보성의 치성현황도



<도 25> 조사된 도서지역읍성/육지읍성 및 영·진·보성의 치성 평면형태도



<도 26> 도서지역 읍성과 조사된 읍성·영성의 치성간 이격거리 비교도

도서지역 읍성의 치성과 조사된 치성들을 살펴보면, 치성의 평면형태는 너비와 길이의 비율에 따라 방형, 정방형, 장방형, 반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너비와 길이의 비율이 서로 0.8:1.2 사이를 정방형이라 하여 그 이하를 방형, 그 이상을 장방형이라 한다. <도25>에서 보면 방형과 정방형, 장방형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도26>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성간의 제주읍성, 진도읍성의 경우는 70m의 규칙을 보이고 있으나 고현읍성의 경우 지형상의 문제 때문에 치성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조사된 읍성의 치성 간격은 매우 넓거나 좁게 나타난다. 특히 청도읍성의 동문에서 30m, 보령읍성의 남문에서 34m는 용성쪽으로 공격하는 적군을 공격하기 위한 적대로 보인다.

나. 성문, 용성

성문은 성의 내외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유사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전세가 유리할 때에는 적을 역습하거나 격퇴하기도 하는 통로이다. 통행이 편리한 곳에 만들어 놓아 출입용 구조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출입뿐

아니라 물자수송에 편리를 위해 설치하기 때문에 적의 접근도 용이하고 적의 주공격 목표가 되기 쉽다. 이와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문지역에는 여러 보완시설이나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다.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는 옹성, 적대 등 시설을 하거나 육축을 축조하여 그 위에 문루를 세워 군사적 지휘, 사격 등을 유리하게 하였다. 성문의 수는 성곽의 규모, 축성목적, 지형 등의 제요소에 의해 정해졌으며 4개소를 두는 것이 기본이다.⁷⁴⁾ 특히 육축은 체성과 연결하여 성문을 내는 곳에 일반성벽보다 두껍고 높게 설치하였다. 육축은 성곽의 종류별, 성격 등에 따라 규모도 달랐다. 중요 성문에서는 외부 표면석은 물론 접한 테두리까지 정교하게 가공하여 축조하였는데 이와 같이 쌓는 방법은 별도로 武砂石築 또는 무사석축쌓기라고 부른다. 읍성은 산성에 비해 가공석을 많이 사용했는데 축석방법은 성돌을 조금씩 안쪽으로 들여쌓았으나 외관상으론 수직벽을 이룬다. 무사석축은 일반성돌보다 평균 2.6배 정도 큰 돌을 정교하게 가공하여 잔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진주성의 공북문지는 판축으로 다진 기초 위에 축조 되었으며, 육축 규모는 넓이 8.3m, 높이 5.3m 가량으로 출입문의 폭이 4.6m나 된다.⁷⁵⁾

<표 15> 강화읍성 성문의 육축양식(출입문 형식, 육축규모, 계단형식)⁷⁶⁾

성 문 명	개구부 형태	개구부 폭	개구부 고	폭/너비	홍예 고 후	육축 통 후	육축 고	계 단 형 식
강화읍성	남문	내외 홍예식	내 3.55 외 3.10	내 3.45	1:1.11		7.10	양측직계단
	서문	내외 홍예식	내 3.53 외 3.09	내 3.58 외 3.20	내 1.01 외 1.03	내 1.31 외 1.27	7.60	양측직계단 단폭 2.50
	북문		내 2.60	내 2.95	1:1.13	내 0.50	3.90	한측직계단 단폭 1.50
								한측돌출측계단

74) 손영식, 앞의 책 pp. 117-162.

75) 진주시·경남문화재연구원, 『진주성 공북문』, 2000.

76) 진주시·경남문화재연구원, 『진주성 공북문』, 2000, [표1. 도성 및 읍성문의 육축양식중 읍성부분] 중 강화읍성 관련.

성문의 개구부의 폭과 높이는 최소한 수레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했었다. 『화성성역의궤』의 도설에 의하면 수레 폭이 1.5m~2m이었다. 아래 <표16>에서 개구부 폭이 2.6m~3.6m 나타나듯이 성문은 3m 내외가 불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⁷⁷⁾

옹성에 대해 살펴보면 옹성은 甕城, 擁城, 壅城, 瓮城, 月城 등이라 한다. 옹성은 모든 성문에 다 설치된 시설은 아니고 중요한 성의 성문에 설치되었으며 옹성은 개구부를 좌우 어느 한쪽에 두는 편문형식과 가운데 두는 중앙식으로 구분된다.

편문형식 옹성은 개구부만 내고 문짝은 달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옹성 위에는 문루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원성의 장안문 옹성 위에는 문루가 있다.⁷⁸⁾ 옹성은 본성의 취약점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시설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옹성의 크기는 성문의 규모에 따라 정해졌다.

세종 22년(1440)에 최윤덕은 옹성의 길이를 50~60자로 성문을 설치토록⁷⁹⁾ 하고 있다.

옹성은 문루가 있는 육축이나 체성보다 낮은게 보통인데 이는 문루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전투시 지휘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여진다.

<표 16> 도서지역 읍성의 성문과 옹성 현황

읍 성 명	성 문 (個)	문 지 명	문 지 폭	옹 성 둘 레	옹 성 폭	비 고
대정읍성	3	북문지	3.50m~4.00m	20m		
사등성	3	서문지	3.58m			
고현읍성	3	동문지	3.20m	47m	7.0m	
		서문지	3.00m~4.15m			
진도읍성	3	동문지	5m	내24m/외48m		
강화읍성	4	남문지	3.10m~3.55m			
		서문지	3.09m~3.53m			
		북문지	2.60m			

77) 손영식, 앞의 책 p. 135.

78) 손영식, 앞의 책 pp.117-162.

79) 《世宗實錄》 卷八十八, 二十二年 三月 一日 癸卯條 「甕城之長 但不下五六十尺 直於城門而已」

조사된 읍성들의 개구부의 크기와 폭은 다음과 같다. 진주읍성의 경우 폭이 4.60m~4.00m, 높이 4.5m이며 해미읍성의 경우 폭이 3.40m~3.00m, 높이 3.85m로 나타난다. 언양읍성은 폭이 3.50m~3.56m이며, 칠원읍성의 폭은 3.30m이며 하동읍성의 서문지 바깥쪽은 3m 안쪽은 4.15m이다. 대정읍성 북문지의 폭은 3.50~4.00m이며 진도읍성 동문지의 폭은 3.5m이다.

대정읍성의 북문지 읍성의 둘레는 20m이며, 진도읍성의 동문지 읍성은 반원형의 편문식으로 내벽 길이 24m, 외벽 길이 48m, 폭 5m이다. 고현읍성의 동문지 읍성 둘레는 47m이며 성벽 폭은 7m이다. 울산병영성 북문지의 경우는 읍성의 폭은 8m, 둘레는 20m 잔존한다.

<표 17> 남해안 읍성과 영·진·보성의 문지와 읍성 현황

읍 성 명	성 문 (個)	문 지 명	문 지 폭	읍 성 둘 레	읍 성 폭	비 고 (읍성개구부)
하동읍성	3	서문지	3.00m~4.15m	48m	7.70m	
언양읍성	4	서문지	3.50m			4.50m
		북문지	3.50m			2.20m
		남문지	3.56m			7.30m
칠원읍성	4		5.10m			3.30m~5.22m
웅천읍성	4		3.00m		6.8m	
김해읍성	4	북문지	3.60m	33m	7.10m~7.50m	3.30m~3.40m
진주성		측성문	4.60m~4.00m			
		북문지	4.60m~3.99m			
울산병영성	4	북문지	3.80m~5.00m	30m		
개운포성지	4	서문지	3.20m			
당포성지	2	동문지	2.80m			
소을비포성지	3	북문지	5.00m			

<표16>와 <표17>를 통하여 도서지역 읍성들은 성문이 3문인 경우가 많으며 남해안의 읍성과 진보들도 보통 4문의 형식을 보이거나 2~4문의 형식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문의 폭은 도서지역 읍성이 2.6m~5.0m이며 남해안 읍성과 영·진·보성의 폭은 2.8m~5.10m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읍성 둘레는 20~48m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사용하는 성문

의 옹성의 둘레가 길고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성문의 옹성이 작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서·남문의 옹성의 길이는 길며 북문의 옹성의 둘레는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현읍성의 서문지 폭은 3m~4.15m, 동문지 옹성 둘레가 47m, 옹성의 폭은 7.0m로 나타나 하동읍성의 서문지 폭이 3m~4.14m, 옹성둘레는 48.7m, 옹성의 폭은 7.5m로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읍성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하동읍성이 태종 17년(1417)에 축성 되었으며 고성읍성이 단종원년(1453)에 성이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 하동읍성과 고성읍성에도 같은 용적과 규식이 적용 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해자

垓字는 성벽 주변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고랑을 내거나 자연 하천 등의 장애물을 이용하여 성의 방어력을 증진 시키는 성곽시설의 하나이다. 해자는 적의 기동에 장애를 주는 하천, 바다 등을 이용한 자연해자와 인공적으로 호를 파거나 고랑을 낸 인공해자로 대별된다. 해자는 성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다.⁸⁰⁾ 해자라는 용어는 중국문헌에서는 城河, 城壕, 城池(혹은 城地), 城溝, 城塹, 城洫, 濠溝 등으로 나타나며 일본에서는 堀壕, 空堀, 堅堀, 濠 등으로 쓰이고 있다.⁸¹⁾ 우리나라의 문헌에서 해자와 관련된 용어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용되는 것만도 垓字⁸²⁾, 坑坎⁸³⁾, 濠池·塹濠⁸⁴⁾, 隍池⁸⁵⁾, 海子⁸⁶⁾, 池壕⁸⁷⁾, 塹⁸⁸⁾ 등이 사용되고 있고 『증보문헌비고』에는 垓字라고 기록되어 있다.

80) 손영식, 앞의 책 pp. 212-215.

81) 장경호, 「해자의 기원과 그 기능에 관한 고찰」, 『삼불김원룡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2, 일지사, 1987, p. 465.

82) 《世宗實錄》, 卷七十五, 十八年 十一月 一日 壬辰條.

83) 《世宗實錄》, 卷百二十七, 三十二年 一月 十八日 甲午條.

84) 《世宗實錄》, 卷百二, 二十五年 十一月 三日 甲寅條.

85) 《世宗實錄地理志》, 百四十八, 咸吉道/咸興府/正平都護府

86) 《文宗實錄》, 卷三, 卽位年 九月 二日 癸卯條.

87) 《文宗實錄》, 卷十五, 一年 一月 四日 甲辰條.

88) 《成宗實錄》, 卷五十九, 六年 九月 五日 辛亥條.

해자의 축조와 관련된 문헌기사로는 당대에 편찬된 『통전』에서 해자의 규모를 상부 폭 2장(560~625cm), 하부 폭 1장, 깊이 1장(280~310cm)으로 나타나고 있다.⁸⁹⁾ 조선후기의 『여지도서』 기록에 의하면 전남 광양시 소재 광양읍성은 「...壕池在城外底長 九百九十五尺 廣十五尺 深八尺」이라 하여 해자 규모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즉 광양읍성의 경우 해자 규모는 넓이 15척, 깊이 8척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⁹⁰⁾

심봉근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곽이 해자를 구비하고 있으나 산성일 경우는 견호인 황을 평지성일 경우는 물을 채우는 해자를 갖추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해자는 성내 출입시 외부로부터 노출이 감소되어 전쟁시는 일차 차단선이 되는 이점을 가진다고 하였다.⁹¹⁾

인공해자의 설치는 성벽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넓고 길게 파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흙을 토루, 성벽 내탁의 축조재료로 사용하므로 공력을 절감시키기 때문이다. 산성에는 지형 여건상 물을 채우지 않는 견호가 많은 반면 사면을 완전히 돌리지 않고 방어상 중요 지점에만 설치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해자 안에는 장애물인 마름쇠와 날카로운 나무를 깎아 일정한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제주읍성의 군사에 관한 내용에서는 “거교군 37명이 있었다”⁹²⁾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교군은 성문을 나와 해자를 건너는 데 필요한 釣橋를 들어올리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어서 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合浦 內廂城은 “壕에 물을 돌리고 釣橋로 막았다”⁹³⁾고 한 것으로 보아 해자가 시설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⁹⁴⁾

『제주읍지』의 기록에는 “대정읍성의 내·외를 빙 둘러서 壕를 파고 너비 10자, 깊이 7자의 규모로 만들고 성 밖에는 탕자나무를 심었다.”라는 기록에서 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성곽의 둘레는 周尺을 사용했기

89) 『通典』 守拒法.

90) 심정보(1995), 앞의 책 pp. 384-385.

91) 심봉근(1995), 앞의 책 p. 87.

92)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牧條, 규장각도서 4481. 「城門舉橋軍三十七名」

93) 『東國輿地勝覽』, 卷三十二, 昌原都護部 關防條 右道兵馬節度使營 李詹記 「且帶以壕水 阻以釣橋」

94) 심정보(1995), 앞의 책 pp. 384-385.

때문에 이를 환산하면 너비 210.4cm, 깊이 147.28cm 규모의 작은 해자로 볼 수 있다. 해자의 시설은 본성이 축조된 이후 시설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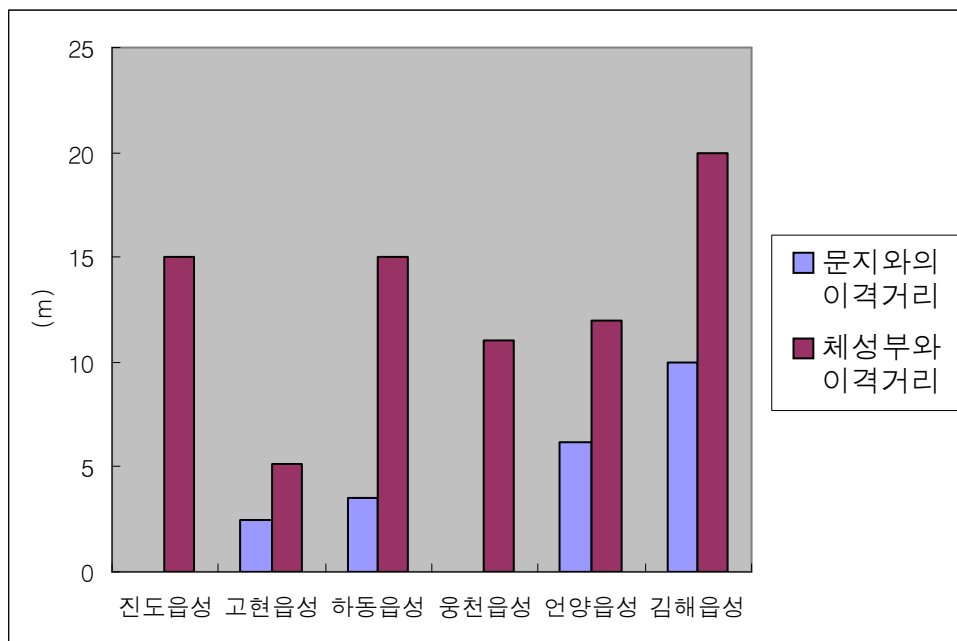
<표 18> 조사된 도서지역 읍성의 해자 현황

읍 성 명	해자길이 (잔존)	상부 폭	하부 폭	깊 이	성벽과 거리	비 고
대정읍성		20.0m		1.5m		제주읍지
사등성		20.0m				
진도읍성	63m	10.0m			15m	
		6.6~6.9m				
고현읍성	54m (185m추정)	6.4m	4.5m	2.9m	2.5m	동문지 옹성부/ U자형
		6.4m	4.5m	2.9m	5.1m	체성부

<표 19> 조사된 남해안 읍성 및 영·진·보성의 해자 관련 현황

성 광 명	해자길이 (잔존)	해자 폭	깊 이	성벽과 거리	비 고
하동읍성		7.0m	1.8m	7.0m~15.0 m	서문지와는 3.5m 이격/ U자형
		4.8m	2.5m		
웅천읍성		3.4m~9.7m	2.5m	9.0m	U자형
		6.8m		11.0m	
언양읍성		5.1m	1.70m	12.0m	서 문 지 와 는 6.2m 이격/ U 자형
			1.67m	11.7m	
김해읍성		5.0m~7.0m	3.0m	20.0m	북문지와는 10.0m 이격
동래읍성		5.4m	2.3m	12~15m	U자형
고성읍성				16.0m	
울산병영성	30m	8.0m	2.0m	10.0m	U자형
		3.9m~5.0m		16.0m	
개운포성지		10.0m	6.0m	10.0~15.0 m	V자형
소을비포성지	200m	6.4m	2.0m	10.0m	U자형
		4.3m	1.8m		
함포성지		10.0m		10.0m~20. 0m	U자형
가배량성지		20.0m	5.0m		
오량성지		20.0m			

고현읍성 해자의 축조수법은 축조형태는 석축이며 자연할석을 이용한 허튼 층쌓기를 하였다. 해자석의 크기는 83×40, 48×45cm 정도이며 해자 규모는 54m이며, 상부 폭은 6.4m, 하부 폭은 4.5m, 깊이는 2.9m이다. 해자 안에서 육교부가 확인되었다. <표18>의 진도읍성 해자는 동북쪽에 성벽과의 이격 거리는 15m이고, 길이 63m, 폭 10m와 북벽과 동벽 모서리엔 폭 6.6m~6.9m의 해자가 시설되어 있다. <표18>과 <표19>은 도서지역과 그 외 해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도 27> 도서지역 읍성과 남해안지역 읍성의 성벽과 해자의 이격거리도

<표18>과 <표19>은 읍성 성벽과 해자의 이격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해자의 특징들은 먼저 대정읍성, 사등성, 가배량성, 오량성 등의 해자 폭이 20m로 상당히 넓음을 알 수 있다. 오량성은 자연 물줄기를 이용하였다. <도27>의 도서지역 읍성과 남해 연해읍성의 해자는 성벽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데 체성부와는 5m~16m를, 웅성부와 문지 등과는 2.5m~6.2m 간격을 두고 폭 3.4m~20m내외, 깊이는 0.7m~6.0m로 평면형태가 U자형인 것이

많았다. 특히 고현읍성과 하동읍성, 언양읍성, 김해읍성의 경우 해자의 체성부와 이격 거리가 1일때 문지, 웅성부의 이격거리는 0.5로 나와 해자의 이격거리는 체성 기반부의 보호도 어느 정도 생각하여 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여장

체성위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적의 화살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낮게 쌓은 담장을 여장이라 한다. 이 여장은 다른 용어로는 여담, 여첩, 치첩, 타, 여원 등이라고도 하고 고어로 「성각회」, 「성가귀」, 「살받이터」 등으로 불려졌다. 또한 설치하는 목적에 따라 치폐, 첩담, 비예, 회장 등의 용어로도 불리었다.

여장은 고구려 때부터 사용된 듯 하다. 여장에 총안까지 갖춘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총안, 타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여장의 높이는 모두 2척(94cm)과 3척(141cm) 2종류가 가나타나지만 대부분 3척이며, 여장의 간격은 4.5척(211cm)~8척(374cm) 사이에 해당한다.⁹⁵⁾

여장은 성곽이 파괴될때 가장 먼저 해체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장이 보존된 읍성은 많지 않다. 문헌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제주읍성의 경우 404개소, 정의읍성 180개소, 대정읍성 155~240개소, 남해읍성 550개소, 진도읍성 5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고정현성 여장의 폭은 50cm가량이고, 여장의 안쪽은 2m내외로 성벽 위에서 바깥쪽으로 조망하거나 공격하는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단 내려온 이동로 또한 폭이 2m가량 된다. 대지에서 상단성벽까지의 높이는 1.0m이고, 다시 여장 안쪽 높이까지는 1.6m 가량이다. 정의읍성의 경우는 성벽의 높이가 여장까지 3.7m이고, 여장 높이는 1.0m이고 폭은 0.6m이며 상부의 폭은 2.0m 내탁부 높이는 2.4m이다. 남문에서 동문 구간에는 미석이 남아 있다. 미석까지는 성벽 높이가 3.6m, 미석 두께 12cm, 돌출 길이는 17cm이며 현무암 재질이다. 웅천읍성의 경우 잔존고 5m 지점에 폭 70cm의 여장이 2단이 시설되어 있다. 수원읍성(화성)의 여장 높이는 1.0~1.35m, 여장 두께는 0.79~0.9m이며 여장 1타의 거리는 3.6~4.5m이다. 그리고 미석은 두께 10~15cm, 10~15cm 돌출되어 있다.

95) 《文宗實錄》 卷八, 卽位年 七月 庚子條.

<표 20> 문헌에 수록된 도서지역 읍성의 여장 현황

읍 성 명	주 회(척)	높 이(척)	여장수	적 대	성 문	비 고
제주읍성	5,489	11.0	404	27	3	동국여지지
정의읍성	1,593	13.0	180		3	탐라지초본
대정읍성	4,890	17.4	155		3	여지도서
남해읍성	2,876	13.0	590	18	4	여지도서
진도읍성	2,400	11.0	58	14	3	여지도서

<표 21> 문종실록(1451년)에 수록된 경상도지역 읍성 여장 현황

읍 성 명	주 회(척)	높 이(척)	여장수	여장고	적 대	성 문
경주부읍성	4,075	11.6	1,155	1.4	26	3
김해부읍성	4,418	13.0	931	2.0	20	4
창원부내상성	3,775	12.6	635	1.8	12	4
곤양군읍성	3,765	12.6	514	2.0	12	3
기장현읍성	1,527	11.0	383	2.0	6	3
동래현읍성	3,000	13.0	513	2.0	12	4
고성현읍성	3,011	12.0	575	2.0	12	4
남해현읍성	2,806	12.0	553	3.0	13	3
하동현읍성	2,943	8.0	588	3.0	11	3
울산군내상성	3,732	8.0	908	3.0	21	4
사천현읍성	3,015	11.5	580	?	15	3
진해현읍성	1,325	7.4	382	3.0	6	2

위의 <표20>와 <표21>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서지역 읍성 여장의 특징은 먼저 성 둘레에 대한 여장의 수를 나누어 보면 진도읍성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11척마다 1개소의 여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종실록에 기록된 성 둘레에 대한 여장의 수는 평균적으로 4척 8촌에 1개소의 여장이 설치되어 있어 도서지역 읍성의 여장 간격이 넓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도서지역 읍성의 여장의 높이는 경상도지역 읍성과 같은 2척과 3척을 사용하였다. 여장간격의 넓음은 적의 공격시 도서지역의 거주인원과 수비 병력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V. 도서지역별 읍성 중심의 관방체계

앞장에서는 조선시대 읍성의 주요 특징과 성격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관방이라 함은 험한 시설을 만들어 방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잦은 외침을 받아 왔다. 이에 역사적으로 많은 관방시설이 축조·마련되어 왔었다. 특히 고려 말부터 조선초기에는 북방 야인과 남방 왜구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관방시설을 대대적으로 구축·정비 하였다.⁹⁶⁾ 관방시설은 성곽과 봉수 및 연대 등의 지상 시설물과 아울러 구지와 참호 등의 지하시설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성곽 중 읍성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방어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관방시설이었다.⁹⁷⁾

조선시대 군사조직을 살펴보면 고려시대 8위의 계통을 이어 10위체제가 근간이었다.

군제의 개편작업은 정종 2년(1400)에 병권의 집중이 성공하고, 세조 3년(1457)에 5위가 형성되고 12년(1466)에는 5위도총부가 설치되었다. 각 위는 5부로 구성되었고 각 부는 4통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각 통의 아래에는 旅·隊·伍·卒의 계통이 세워졌다.

그리고 지방군제도 세조 원년(1455)에는 이때까지 북방의 익군과 남방의 영진군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군사조직을 軍翼道體制로 통일 시켰다. 그리고 세조 3년(1458)에 다시 진관체제로 변경되어 지방군제를 완성 시켰다. 진관체제는 군익도의 중첩성을 지양하고 거진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진들을 이에 속하게 하여 진관으로 편성함으로 自戰自守하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의 성격을 가졌다. 각 도에는 병영과 수영을 두고 병마절도사(兵使)와 수군절도사(水使)를 파견하여 군사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병영과 수영은 한 도에 각 한명씩 두고 관찰사가 병사와 수사를 겸임하는것이 원칙이었으나, 경상도에는 수사를 3명 두었다. 진관체제하에서는 병사가 있는 곳을 주진이라하고 그 아래에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거진 등 대소의 진이 있어 병영 및 수영의

96)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7.

97) 차용길, 「조선전기 관방시설의 정비과정」, 『한국사론』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통제를 받았다. 거진은 부윤(중 2품)과 목사(정 3품)가 각각 절제사·첨절제사를 겸임하면서 진관의 군사권을 장악하였으며, 그 아래의 제진은 군수(중 4품) 이하의 직함을 겸하면서 군사를 지휘하였다.

진관체제하에서 병력의 근간을 이룬 것은 양인이었다. 양반들도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역을 지지 않았고 향사와 공사의 노비는 본래의 역이 있으므로 군역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양인의 군역은 가중 되었다. 농민들은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일단 징발되면 정병으로서 서울에 번상하거나 지방의 제진에 부방하였다. 그러나 모두 징병되는 것이 아니라 16~60세의 정남은 모두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번상하는 정병을 재정적으로 돕는 봉족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것이 곧 군호의 편성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조선초기의 군사는 봉족을 제외하고 모두 9만 5천 198명이라 하고 성종때에는 14만명에 이르렀다.

고려시대 말 연해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공도화되고 있었던 진도, 남해도, 거제도 등 도서지역에도 경작이 행해지고 계속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연해읍성을 축조할 계획을 마련하여 세종 12년(1430)에 추진하였다. 세종 16년(1434)까지는 산성이 혁파되고 연해읍성의 축조와 함께 관방의 주요한 기능이 읍성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수원이 부족한 산성이거나 성내가 좁고 평탄하지 못하는 등 결점이 많은 산성부터 혁파가 진행되었다. 연해읍성의 축조 목표는 왜구의 침입이 극심한 지역을 우선하도록 한 것이었다. 세종 17년(1435)부터 읍성의 축조는 각자 해당 군현에서 맡도록 하고, 성벽의 축조방법 등을 세종 20년(1438)에 반포한 『축성신도』로 규격화 하였으며 해자·옹성·적대를 시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성곽은 완성을 보이지만 기타 옹성, 해자, 치성, 적대 등의 부대시설은 아직 축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세종 26년(1444)까지는 대부분의 연해읍성들이 완성을 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성을 중심으로 한 청야입보전술로 인하여 평상시의 주거지와 전시의 피난처가 각기 다른 점이 있었지만 읍성은 입보의 기능으로서의 산성체계에서 벗어나 거주와 전쟁을 같이 막아내야 하는 성으로서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의 조선시대 군사조직에서 보듯이 읍성을 지키는 군대는 왜구의 침입이 있을시 정규군이 위주가 아니고, 농병일치에 의한 번상병들이 읍성을 수성하였다. 도서읍성을 중심으로 인접한 영

진보성들과 연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작동으로 왜구의 침입을 조기에 무력화 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진은 축성논의를 거쳐 축조된 진성 및 주둔부대의 부대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대 단위를 유지한 순수 병영시설로서 내부에는 각종 군기고와 창고, 관아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15세기 이후에는 보의 크기가 커져 진으로 불린 곳도 있지만 제진 및 하급부대의 병영시설을 부르는 명칭이다. 『세종실록』에 보면 적의 동태 감시, 주민대피, 전투시설 등이 중요한 기능으로, 보 주변에는 연대가 설치되어 즉시 봉수나 방포 혹은 호각을 통하여 주변의 주민과 인근 지역 및 내지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⁹⁸⁾ 또한 보는 읍성·진과는 달리 읍성의 역할에 가깝지만 진에서 권관과 병사를 파견하였는데, 권관은 대략 내상의 무재군관이 선택되었다.

위급시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보내로 들어오는 입보처의 역할도 겸하였다. 따라서 보는 읍성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기도 하였다.

진·보는 조선 태종, 세종대의 육군 병영과 성종대에는 수군의 관방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시기로 수군의 선상수어 조치가 왜의 내란에 자극되어 성종 16년(1485)~성종 22년(1491)에 수군의 영진에도 정보를 쌓도록 1차적인 조치가 있었다. 경상좌도와 전라좌도의 수군관하에 있는 24개소의 영진에 정보가 축조되어 남해안에 왜의 침입이 있으면 우선 선상에서 방어하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정보로 입보농성하면서 육군의 영진에 응원을 요청하도록 방어체제가 변화하였다.⁹⁹⁾

그러나 성종대에는 수군이 육지에 주둔하면서부터 평지나 해안변의 계곡에 석축성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성종대의 일차적인 수군영, 진에의 정보축조에 이어서 중종대에는 삼포왜란을 계기로 수·육군의 합방조치와 함께 수군영·진에의 정보축조가 계속 추진되었다. 중종 17년(1522)년까지는 남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과 동해안의 수군영·진도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 수영군·진에 축조된 정보들은 대개 바다가 낀 방어에 용이한 위치에 있었으며 병선의泊立處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축성 위치가 설정되었다.¹⁰⁰⁾

98) 《世宗實錄》 卷七十三, 十八年 閏六月 癸未條.

99) 차용길, 「고려말·조선전기 대왜 관방사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진보의 역할을 조선시대 개국초의 소극적 방어체계에서 벗어나 세종대에 대마도의 정벌과 같은 일련의 위압책을 수행하는 한편 연해읍성의 축조를 통한 대왜구 대비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조선 성종 19년(1488)부터 성종 23년(1492) 사이에 나타나는 진보성의 대규모 수개축은 개국 이래로의 大海上方禦戰略의 완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¹⁰¹⁾ 이것은 매우 주목을 끄는 주장이다. 즉 입보수성의 소극적 방어체계보다는 왜구에 대한 공격적인 해안방어 전술로의 획기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겠다. 도서지역을 근기지역인 강화도와 근해지역에 위치한 거제도, 남해도, 진도 그리고 외해지역인 제주도로 분류하여 읍성의 역할과 읍성을 중심으로 한 관방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근기지역 <도28>, <도29>

근기지역은 도성에 가까운 우리나라 네 번째 큰 섬인 강화도로 인천광역시 북서부의 섬 지역, 11개의 유인도와 18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강화도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강화 본도는 동서가 12km, 남북은 30km, 해안선 둘레는 99km, 면적은 302.14km²이다.

강화군은 동쪽으로는 경기도 군포시와 개풍군, 서쪽으로는 황해, 남쪽으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쪽으로는 연백군과 접해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 1년(392)에는 血口郡을 설치하였으며,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에는 海口群으로 대칭하였다.

고려 태종 23년(940)에 강화현으로 개칭하고, 고종 19년(1232)에 몽고의 침입에 고려조정이 강화도로 천도 궁성, 외성, 중성 등을 축조하였다. 우왕 18년(1377)에는 부로 승격시켰다.

조선 태종 13년(1413) 때에는 강화도를 강화도호부로 개칭하였다. 인조 5년(1627)에는 정묘호란으로 몽진하였으며, 인조 7년(1633)에는 도호부로 승격

100) 나동욱, 「경남지역 읍성과 진성의 시·발굴조사 성과」, 『동아문화』 창간호, 동아문화연구원, 2005.

101) 이일갑,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진·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시키고 수영과 三道水軍統禦營을 설치하였다. 현종 1년(1660)에는 강화산성을 수축하고, 1636년 병자호란에는 강화도가 함락 되기도 하였다. 숙종 5년(1679)에는 강화 연안에 49돈대를 설치하였다.(이후 4개 돈대 추가 설치)

고종 3년(1866)에 병인양요를, 고종 8년(1871)에는 신미양요를 치렀으며 1876년에는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강화도의 성곽 현황은 성곽·봉수에 해당하는 14성 9봉수 4요망대 1진과 돈대위주의 12진보 54돈대 8포대로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강화도 하나가 커다란 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2> 강화도의 진·보와 관할 돈대 현황

진·보명	지 휘 관	소 제 지	관 할 돈 대
월곶진	첨사(종3품)	강화읍 월곶리 242번지 일대	옥창돈, 월곶진, 휴암돈, 적북돈
제포진	만호(종4품)	강화읍 갑곶리 1019번지 일대	갑곶돈, 염주돈, 제승돈, 망해돈
용진진	만호(종4품)	선원면 지산리 438-1번지 일대	용당돈, 좌강돈, 가리산돈
덕진진	만호(종4품)	길상면 초지리 407번지 일대	덕진돈, 손석항돈, 용두돈
초지진	만호(종4품)	길상면 초지리 624번지 일대	섬암돈, 장자평돈, 초지돈
인화보	만호(종4품)	양사면 인화리 산 504번지 일대	작성돈, 구등곶돈, 광암돈, 인화돈, 무태돈
승천보	별장(종9품)	송해면 당산리 397번지 일대	낙성돈, 숙룡돈, 소우돈, 빙현돈, 석우돈
철곶진	별장(종9품)	양사면 인화리 산 19-1번지 일대	천진돈, 철북돈, 의두돈, 불장돈, 초루돈
정포진	별장(종9품)	내가면 외포리 628번지 일대	석각돈, 삼암돈, 망양돈, 건평돈
장곶보	별장(종9품)	화도면 장화리 696번지 일대	검안돈, 장곶돈, 북일곶돈, 미곶돈
선두보	별장(종9품)	길상면 선두리 460번지 일대	후애돈, 동검북돈, 택지돈
광성보	별장(종9품)	불은면 덕성리 33번지 일대	광성돈, 오두돈, 화도돈
* 영문 관할 돈대 : 망월돈, 계룡돈, 굴암돈, 송강돈, 송곶돈, 분오리돈			
* 폐지된 돈대 : 갑곶진, 양암돈			

<표22>에서 나타나듯이 하나의 진·보에서 보통 3~55개소의 돈대를 관할 하고 있다. 54돈대의 형태로는 10돈대는 추정이 불가하고 44돈대를 대상

으로 하면 방형이 25돈대(46%)이고, 원형은 16돈대(30%)이며, 부정형은 3돈대(5%)이다.¹⁰²⁾ 간격으로는 1km 간격이 21돈대, 1.7km 간격이 10돈대, 2km 간격으로 13 돈대가 위치한다. 돈대를 축조하는 목적은 우선 성을 쌓기 곤란한 지점, 즉 능선·평지·계곡·해안가 등에 침입하는 외적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서이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연락체계를 취하고 인접 돈대 간에 교차 지원사격이 가능한 거리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8포대로는 갑곶포대, 인화성포대, 황산포대, 전남포대, 남장포대, 오두정포대, 사망금포대, 용진포대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화도 지역은 한국사에 나타나는 중요한 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사 전 시기를 통하여 변방 혹은 수도권을 방어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담당한 요해지였기 때문에, 성곽은 물론 봉수·진보·돈대 등 우리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관방유적이 한 곳에 모여 있다.

2. 근해지역 <도30>, <도31>

근해지역에는 거제도, 남해도, 진도가 위치하고 있다.

거제도는 우리나라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섬으로 11개의 유인도와 49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섬의 둘레는 280km이고 넓이는 378.795㎢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서쪽 견내량에 대교를 설치하여 육지인 통영시 용남면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동쪽은 부산 가덕도와 멀지 않은 거리를 두고 있으며 북쪽은 진해만, 남쪽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마도 북안과 대치하는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다.

거제가 문헌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A.D 3세기경에 쓰여진 중국의 『三國志』 弁辰傳으로 당시 기록에 나타나는 변진 24국 중 변진 瀆盧國의 고지로 비정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변진 24국 중 하나인 弁辰瀆盧國을 지금의 거제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경계가 왜와 접하고 있다.”¹⁰³⁾라고 하였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문무왕 17년(677)에 裳郡을

102) 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설치하였고, 경덕왕이 757년에 巨濟郡으로 개칭하고 鵝州·松邊·溟津을 嶺縣으로 두었다.¹⁰⁴⁾ 고려시대에 와서는 성종 2년(983)에 둔덕면 거림리에 치소를 두어 ‘岐城縣’이라 개칭하고, 12목중의 하나인 진주목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현종 3년(1012)에 행정구역을 확대·개편하여 지금의 통영·고성인 固自縣을 통합하였다가, 현종 9년(1018)에 ‘巨濟縣’으로 개칭하고, 固城縣을 분리하였으며, 각 현에 현령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14년(1414)에 거창현과 합하여 濟昌縣이라 하였다가 이듬해인 1415년에 다시 巨濟縣으로 환원하였다. 세종 원년(1419)에 이르러 이종무가 대마도의 왜구를 정벌하기 위하여 거제도의 견내량과 오양성에 군사를 거느리고 원정하였으며, 신현읍 수월리에 목책을 세워 생활하다가 세종 7년(1425) 사등성의 축성을 명하였으며, 세종 30년(1448)에 완성하였다. 문종 원년(1451)에 축조가 시작되었다. 단종 원년(1453)에 완성하여 읍치를 옮겼다. 세조 11년(1465)에는 거제현 조아포(가배량)에 우수영을 두었으며, 성종 원년(1470)에 거제현이 해상방어의 요충지이므로, 옥포·지세포·조라포·조아포(가배량)·구영등·장목포에 6鎮과 구을포에 堡를 두었는데 이를 거제 7진이라한다.¹⁰⁵⁾ 이후 성종 20년

103) 『三國志』〈弁辰傳〉, “其瀆盧國 與倭接境”.

104)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誌 第三 地理 一, 巨濟郡 文武王初置裳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嶺三縣鵝洲縣, 本居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溟珍縣 本買珍伊縣 景德王改名今因之 南垂縣 本松邊縣 景德王改名 今復古.

105) 이일갑, 「거제 고현읍성에 대한 연구」, 『석당논총』 37,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2006, pp. 178-179.

<표> 巨濟島 地域의 城郭

번 호	성 광	소 재 지	문화재 지정 여부	비 고
1	沙等城	사등면 사등리	도기념물 제 9호	
2	古縣城	신현읍 고현리 951번지	도기념물 제 46호	
3	烏良城	사등면 오량리 1300-6외	도기념물 제109호	
4	加背梁城	동부면 가배리 산 17-1외	도기념물 제110호	
5	當山城	장승포 아양동		
6	玉浦城	장승포 옥포동 150-1외	도기념물 제104호	
7	舊助羅城	일운면 구조라리 827번지	도기념물 제204호	
8	知世浦城	일운면 지세포리 254-1외	도기념물 제203호	
9	塔浦城	동부면 탑포리		
10	多大浦城	동부면 다대리		
11	水晶峰城	거제면 동상리	도기념물 제 10호	일명 玉山金城
12	廢王城	둔덕면 거림리 산95	도기념물 제 11호	
13	永等浦城	사등면 덕호리		일명 唐島城
14	舊永登城	장목면 구영리 1249외	도기념물 제205호	

(1489)에 거제현이 남해안의 주요 거점임을 인식하여 거제부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중종 14년(1519)에 경상우도의 거제현으로 다시 환원시켰다. 현종 5년(1664) 읍치를 거제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숙종 37년(1711)에는 거제도호부로 승격하였으며, 고종 32년(1895) 거제군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이곳은 우리나라 남해연안에 위치하면서 일본과는 대한해협을 국경으로 삼고 있는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과거부터 왜구 침입이 잦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축성작업도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도 도리어 왜구가 주변 남해안일대에 왜성을 축조하는 등 우리나라 성곽과는 유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축조 시기도 비교적 이른 단계부터 시작되었다고 짐작된다.¹⁰⁶⁾ 특히 부산에서 거제도로 선박을 타고 항로를 따라 가면 대한해협의 거센 파도가 가덕도를 지나면 갑자기 잔잔해지는 파도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거제에는 많은 조선소들이 선박들의 건조와 수리를 하고 있다. 거제도에 있는 성곽들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15	舊栗浦城	장목면 울천리	도기념물 제206호	
16	大錦山城	장목면 대금리		
17	巨濟邑城	거제면 일대		
18	水月里城址	신현읍 수월리 산 39-40번지		
19	城浦山城址	사등면 성포리 2-21번지		
20	見乃梁城址	사등면 덕호리		
21	栗浦山城址	동부면 울포리		
22	老子山城址	동부면 울포리		
23	農所里城址	장목면 농소리		일명 軍威臺
24	長木里城址	장목면 장목리		
25	鵝洲縣城址	거제시 아주동		아주현의 치소
26	長木倭城址	장목면 장목리		
27	河淸城址	하정면 하정리		

<표> 巨濟島 地域의 烽燧

번 호	봉 수	소 재 지	문화재 지정 여부	비 고
1	加羅山烽燧	남부면 다대리 산1-1번지	도기념물 제147호	
2	鷄龍山烽燧	동부면 계룡산		
3	玉女峰烽燧	장승포동 산 90번지	도기념물 제129호	
4	江望山烽燧	덕포동 산 37외	도기념물 제202호	
5	瓦峴烽燧	일운면 와현리 산 98-2		
6	知世浦烽燧	일운면 지세포리 산 38-2 일대		

106) 심봉근, 「한국남해연안성지의 고고학적 연구」, 학연출판사, 1995.

남해는 우리나라 다섯 번째 섬인 남해도와 바로 옆 창선도를 비롯 5개의 유인도와 68개의 무인도등 7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해도는 남북으로 30km, 동서로 약 26km이며, 넓이는 298.4km²이다. 산악이 많고 하천은 많으나 모두 짧고 평야는 넓지 않다. 그러나 리아스식 해안을 가지고 있어 해안선이 무려 302km에 이른다. 동쪽으로 통영시, 서쪽으로 한려수도를 사이에 두고 전라남도 광양시·여수시, 북쪽은 사천시·하동군과 접하고 남쪽은 남해에 면한다. 1973년 길이 660m의 남해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직접 연결되었고, 1980년 창선교가 놓이면서 남해도와 창선도가 연결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10년(690)에는 轉也山郡으로 부르다가 경덕왕 16년(757) 지방행정구역 개편때 남해군으로 고치고 일선현을 홍선현으로 고쳤다. 이때 영현으로 난포현과 평산현을 두었다.

고려시대 현종 9년(1018)에 군에서 현으로 강등하고 현령을 두었다. 공민왕 7년(1358)에 왜구의 침구로 정상행정이 불가능하여 한때 진주 大也川部曲으로 행정관서를 옮기기도 하였다. 난포현과 평산현에도 왜구의 침입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태종 4년(1404)에 왜구로 인해 진주로 철수한 지 46년 만에 남해현을 복구하였고, 남해읍성을 축조하였다. 태종 13년(1413)에 하동과 합쳐 河南縣이 되었다가, 이듬해 하동현이 독립하면서 진주 金陽部曲과 합쳐 해양현이라 하였다. 금양현이 진주에 속하면서 남해현으로 개칭하였다가 고종 32년(1895)에 지방제도 개혁으로 23부제가 실시되면서 남해군은 진주부 관할 행정구역이 되어 7개 면을 관할하였다. 이듬해 13도제 실시에 따라 지금의 경상남도 남해군이 되었다.

성지로는 남해읍성을 비롯 고현성, 고진성, 임진성, 남해왜성, 미조진성, 옥기산성, 평산포진성, 노량진성, 대국산성, 남해장성, 상주포성, 비란리성, 곡포보성, 금오산성, 창선성 등 16개소의 성지와 4봉수가 분포하고 있다. 이중 조선시대 성으로는 남해읍성, 고진성, 임진성, 미조진성, 옥기산성, 노량진성, 곡포보성, 금오산성, 창선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진도는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우리나라 세 번째로 큰 섬으로 45개의 유인도와 185개의 무인도등 230여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섬의 면적은 319km²이다. 한반도 서남부 해로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진도군은 동쪽으로 해남군, 남쪽으로 망군도, 북쪽으로는 신안군과 각각 인접하여 서남해

의 섬지역과 섬지역, 그리고 서남해안과 이들 섬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고대로부터 중국-한반도-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문화 교류의 주요 이동로였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漕運路로써 그 의미가 있는 바닷길이다.

후삼국시대 왕건과 견훤간의 쟁패, 고려시대 삼별초항쟁, 고려말 조선초기의 왜구의 침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같은 내우외환의 전란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중심지로서 부각 되기도 하였고,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진도에는 모두 14개의 성지와 6봉수가 위치한다. 진도읍성을 비롯하여, 고군성, 첩찰산성, 망금산성, 용장산성, 용장성, 금갑도진성, 남도석성, 구분실마성, 맹성, 동구리성, 심동리성, 목장성, 철마산성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성지로는 진도읍성, 남도석성, 구분실마성, 맹성, 동구리성, 심동리성, 목장성, 금갑도진성, 철마산성 등이 있다. 조선개국 후 진도와 해남은 태종 9년(1409)에 합해져 해진군이 되었다가 다시 치소를 영암군의 속현인 옥산으로 옮겼다. 태종 14년(1414)에 오랜 공도였던 진도에 조부면세조치를 하여 목장을 만들었으나 왜구의 침입으로 다시 육지로 옮겼다. 그후 세종 19년(1437)에 해남과 진도를 다시 각각 독립된 군현으로 분리했다. 그리고 세종 22년(1440) 현재의 철마산 아래에 읍성을 신축하고 치소를 옮기게 되었다.

3. 외해지역 <도32>

외해지역은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는 제주도로써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으로 8개의 유인도와 55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섬의 둘레는 419.95km이고 넓이는 1,848.2km²이다. 섬의 남북간의 길이는 약 31km, 동서간의 거리는 약 73km로 동서로 가로 놓인 형태이다. 북으로 목포와의 거리는 141.6km, 북동쪽 부산과의 거리는 286.5km이며, 동으로 일본 대마도와 거리는 255.1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의 대마도 및 규슈의 나가사키현, 서쪽으로는 중국의 상해와 마주보며, 남쪽으로 동중국해와 면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등의 대륙과 일본·동남아 등지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의 관방체계의 주요 목적은 왜구의 침입에 대한 대비였다. 제주는 육

지와 떨어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왜구들이 땀감과 물,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왜구들은 고려말부터 빈번히 침입하여 방화, 약탈, 인명살상을 일삼았다.¹⁰⁷⁾ 더구나 추자도 근해에 숨어 있다가 공물 운반선을 약탈하는 등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수 없이 침입하여 황포를 부렸다.

왜구 침입에 대비한 본격적인 제주 방어체계는 고려 말부터 논의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충렬왕 28년(1302)에 봉수 설치가 시작됐고, 조선시대에는 세종 19년(1437)에 제주도 안무사 한승순이 제주도 방어체제를 정비하여 방호소 12개소와 수전소 10개소를 설치하였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제주도는 제주성·정의성·대정성 3성만이 축성되어 있었고, 봉수는 제주목에 10개소, 대정현 5개소, 정의현 7개소 등 22개소이고, 각 봉수마다 봉화군이 5명씩 배치되었던 한편, 높이와 넓이가 각각 10척의 연대도 설치되어 있었다.¹⁰⁸⁾ 그 이후에 차례차례 정비되어 완성시켜 왜구의 침입을 막아냈다. 그리고 중종 5년(1510)에는 도내에 왜구 침입이 예상되는 60포구 가운데 9개소 방호소는 부족하다고 하고, 김녕포 등의 7개 포구에 권관과 조방장을 두는 건의가 이루어졌다.¹⁰⁹⁾ 연대는 대부분 해안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연대는 가까이서 적국의 배가 어떤 곳에 와서 정박하는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동시에 해안 변경인 최전방에 위치한 연변봉수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중종대에 제주도의 관방시설은 크게 확충되어 왜구의 침입에 대한 해안 방어의 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졌고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에 이르기까지도 제주도의 관방시설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정비되었다. 특히 숙종대에 이르면 동해진성을 철폐하고 모슬포진성으로 이축함¹¹⁰⁾과 더불어 화북진성도 축성하였다. 그리고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 3읍성과 9진성, 봉수 25개소와 연대 38개소가 구축되어 제주도의 관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완성이 이루어 졌다. 이외에도 고려시대 성들인 향파두리성, 환해

107) 고려말 충숙왕 3년(1316)부터 조선시대 명종 11년(1556)까지 240여 년 동안 30여 회에 걸쳐 왜구가 제주를 침탈하였다. 이 중 고려시대는 7회, 조선시대는 23회였다. (제주도교육연구원, 『향토사교육자료』, 1996)

108) 《世宗實錄》 卷八十四, 二十一年 潤 二月 壬午條.

109) 《中宗實錄》 卷十一, 五年 七月 甲子條.

110) 《肅宗實錄》 卷十三, 三年 五月 癸未條.

장성 등이 있다.

<표 23> 제주도 3읍성 9진성 25봉수 38연대 현황

성	진	봉수	연대
제주읍성		사라봉수 도원봉수 수산봉수 원당봉수	수근연대 조부연대
	화북진		별도연대
	조천진	서산봉수	조천연대 연포연대 함덕연대
	별방진	입산봉수 왕가봉수	무주연대 좌가연대 입두연대
	애월진	고내봉수	남두연대 애월연대
	명월진	도내봉수 만조봉수	귀덕연대 우지연대 죽도연대 마두연대 배령연대 대포연대 두모연대
정의읍성		토산봉수 달산봉수 남산봉수 독자봉수	별포연대 소마로연대 천미연대 말등포연대
	수산진	수산봉수 성산봉수 지미봉수	협자연대 보목연대 우미연대 금로포연대
	서귀진	삼매양봉수 예촌봉수 자배봉수	연동연대 보목연대 우미연대 금로포연대
대정읍성		구산봉수 호산봉수 저별송악봉수	변수연대 마회천연대 대포연대 별로천연대 당포연대 산방연대 서림연대
	모슬진	모슬봉수	무수연대
	차귀진	당산봉수	우두연대

<표23>에서 제주읍성은 5개소의 진성과 10개소의 봉수 그리고 18개소의 연대를, 정의읍성은 2개소의 진성과 10개소의 봉수 그리고 12개소의 연대를, 대정읍성은 2개소의 진성과 5개의 봉수 그리고 9개소의 연대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제주도 전체를 요새화하여 왜구의 침입이 있을시 조기경보체계의 가동으로 왜구의 침입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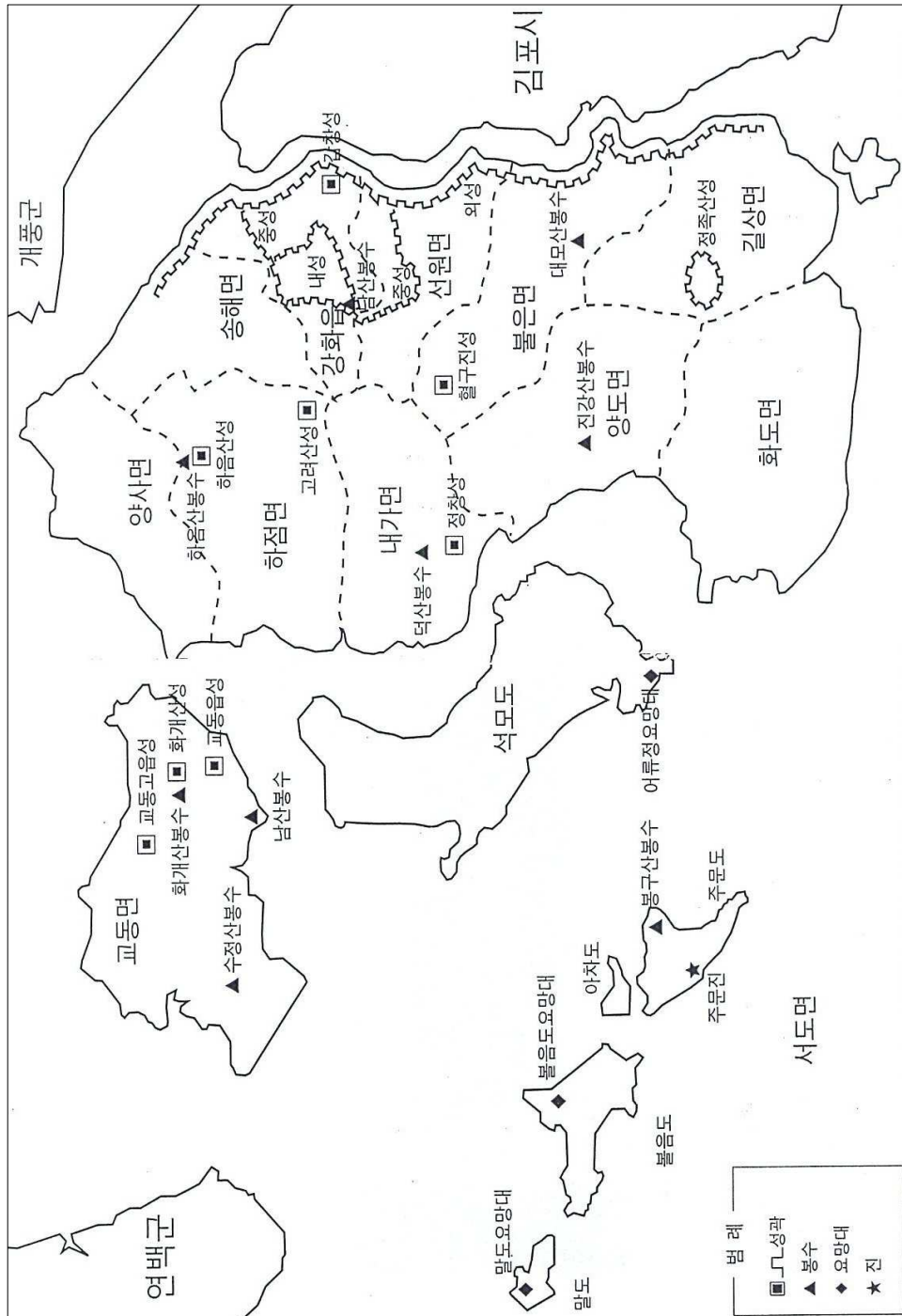
위에서 각 도서를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읍성을 중심으로 한 관방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근기지역인 강화도에는 14성 9봉수 4요망대 1진과 돈대위주의 12진보 54돈대 8포대로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도성과 근접하여 해상으로 침투하는 외적을 물리치고 도성이 함락시 강화도로 천도하여 끝까지 결사 항쟁할 수 있는 보장체로서의 관방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근해지역인 거제도, 남해도, 진도는 육지와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지만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해상무역 항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조운로이기 때문에 늘 왜구의 표적이 되어 대왜구해상방어체제의 거점 성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거제도에는 고현읍성을 중심으로 7진과 6봉수 등이 있으며, 남해도에 남해읍성을 비롯한 4진 4봉수, 진도에도 진도읍성을 비롯한 2진 6봉수가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외해지역인 제주도는 제주읍성과 정의읍성, 대정읍성을 중심으로 9진성, 봉수 25개소와 연대 38개소의 관방체계를 갖추고 있다. 바다로 인한 고립성과 단절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외적에 대비하기 위한 관방체계를 가지고 섬 전체를 자체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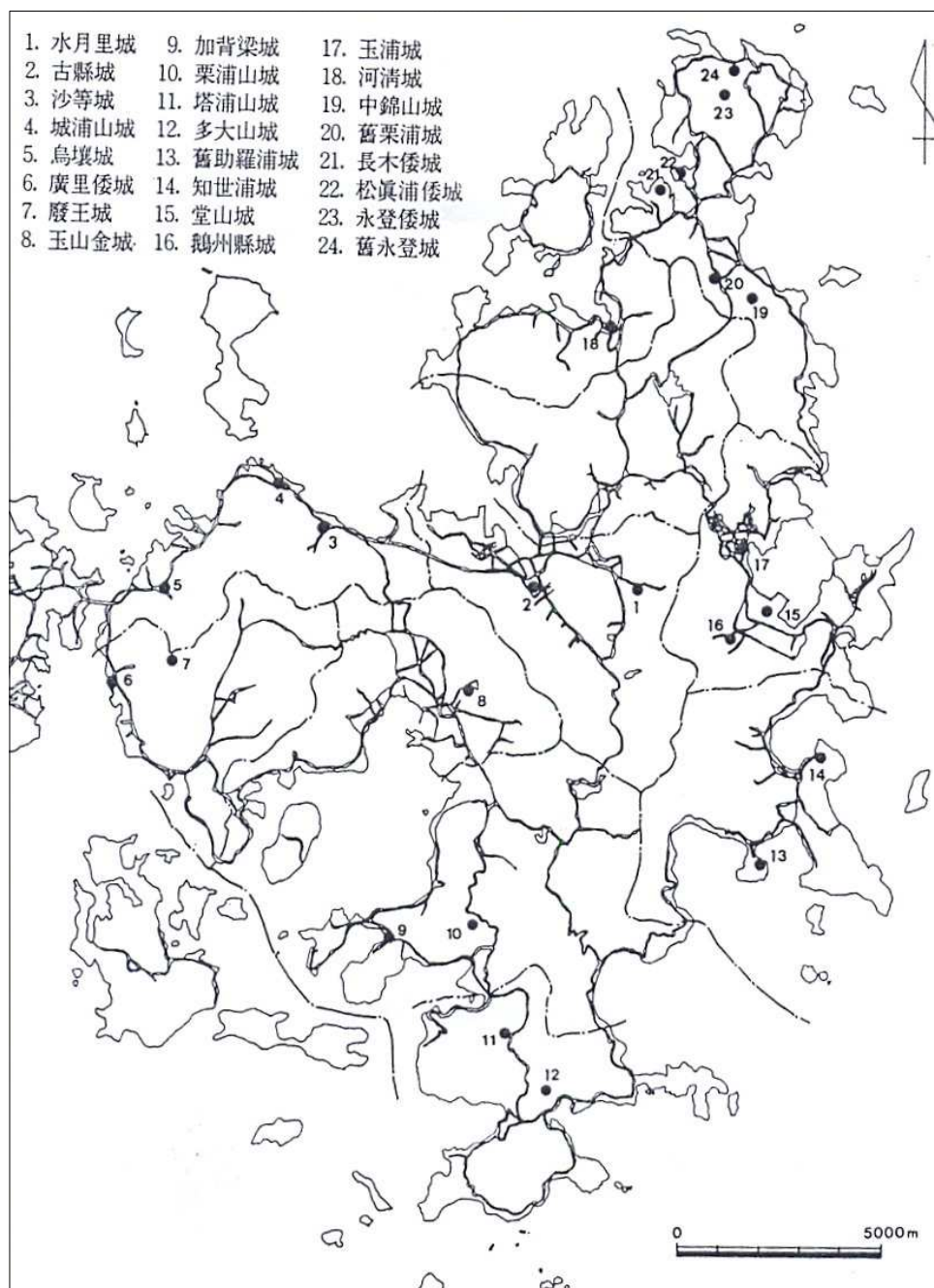
각 도서지역엔 읍성을 중심으로 한 관방체계를 완성하였으며 특히 육지와 가까운 거제도와 진도와 강화도엔 병영을 비롯하여 진·보, 돈대, 봉수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왜구의 침입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어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읍성 중심으로 표를 만들면 아래와 같다.

<표 24> 도서지역별 읍성 중심의 관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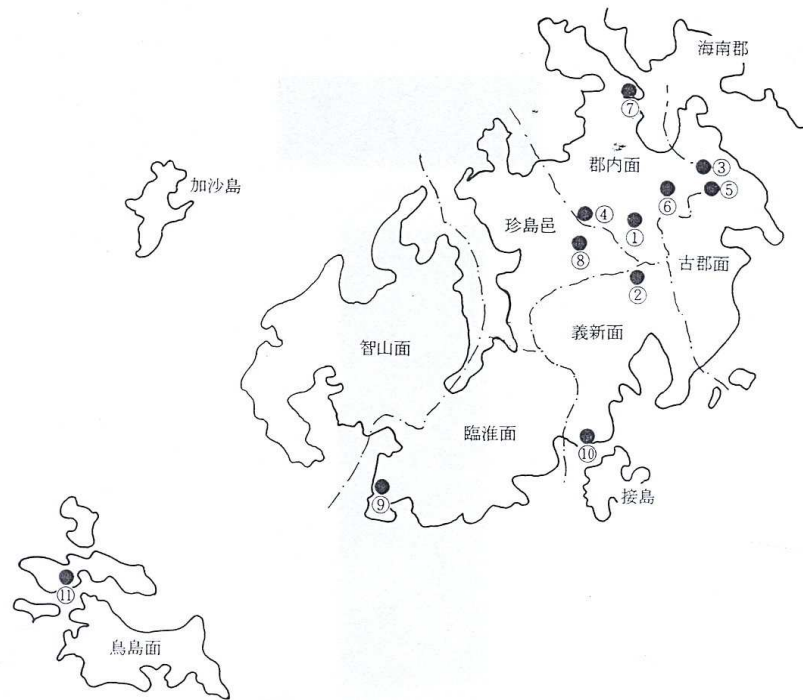
구 분	도서지역	읍성	진·보	봉수	연대	돈대	요망대	포대	비 고
근기지역	강화도	2	13	9		54	4	8	
근해지역	거제도	1	7	6					사등성
	남해도	1	4	4					
	진 도	1	2	6					
외해지역	제주도	3	9	25	38				고정의현성



<도 28> 강화도 성곽, 진·붕수, 요망대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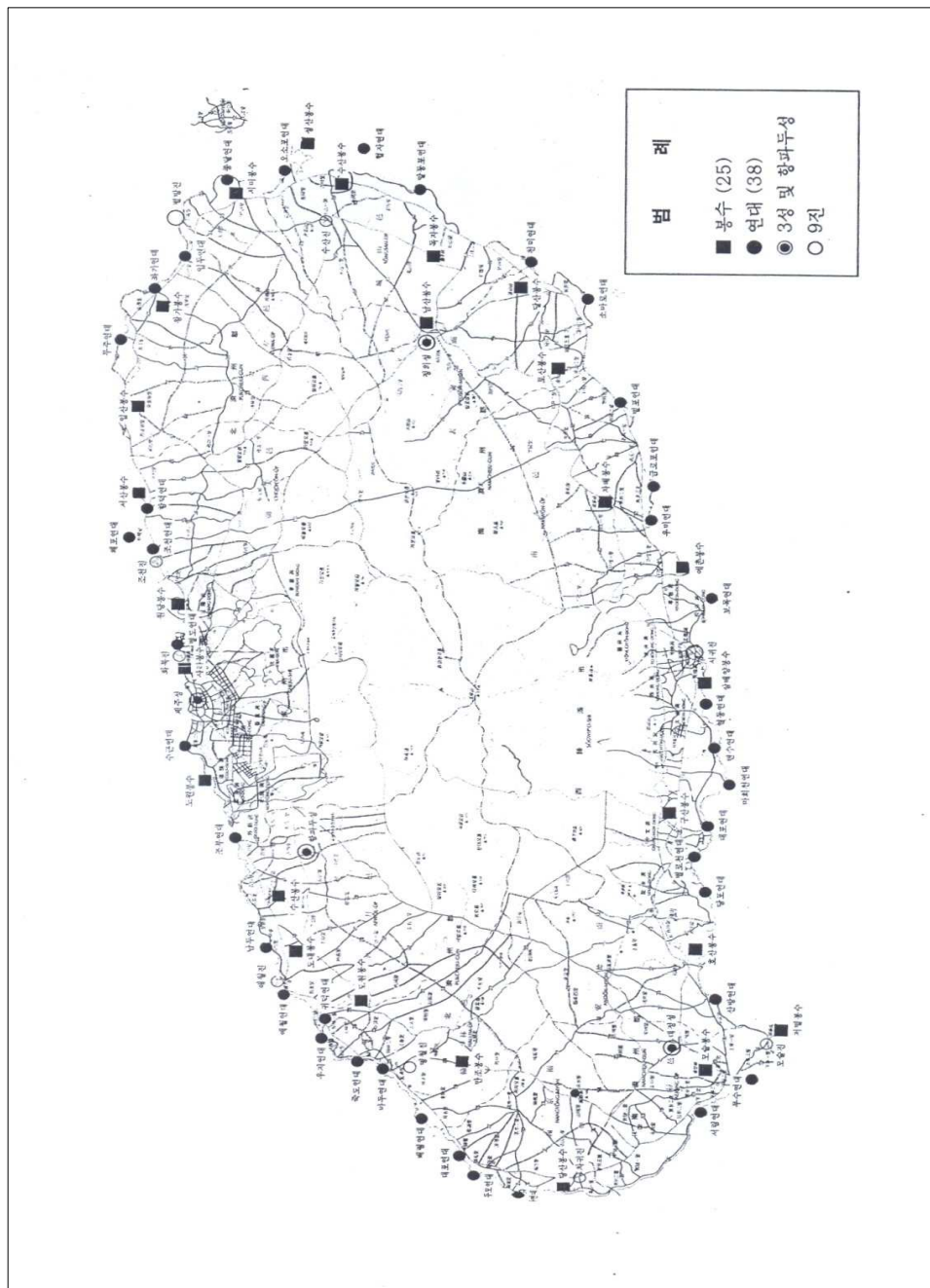


<도 30> 거제도 성곽 현황도



번호	城址	所在地	築造年代
1	古珍島城	古郡面 古城里 古城	百濟
2	尖察山城	古郡面 古城里, 義新面 斜川里 尖察山	百濟
3	城隍堂山城	郡内面 龍藏里 城隍山	百濟
4	鐵馬山城	珍島邑 東外里, 郡内面 月加里	統一新羅
5	龍藏城	郡内面 龍藏里	高麗(元宗 11年)
6	龍藏山城	郡内面 龍藏·細嶺, 古郡面 五柳·碧波里	高麗(元宗 11年)
7	望金山城	郡内面 鹿津里	高麗(元宗 11年)
8	珍島邑城	珍島邑 城内里	朝鮮(世宗 19~22年)
9	南桃浦鎮城	臨淮面 南東里 南洞	朝鮮(成宗~燕山君代)
10	金甲島鎮城	義新面 金甲里 金甲	朝鮮(成宗~燕山君代)
11	洞口里山城	鳥島面 洞口里 성채산	朝鮮(肅宗 34年)

<도 31> 진도 성곽 현황도



<도 32> 제주도 관광 현황도

VI.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시대 도서지역 읍성에 관하여 해당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도서지역 읍성은 반도라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해양세력이 대륙 진출을 시도할 때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지점으로 우리나라의 남쪽을 방어하는 군사거점 성곽 및 해당 지역 행정 치소 역할을 수행한 성곽이다.

조선시대 축조된 읍성은 100여개소가 있으며 이중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읍성은 제주읍성, 고정외현성, 정의읍성, 사등성, 고현읍성, 남해읍성, 진도읍성, 강화읍성, 교동읍성 등 10개소가 있다.

다음 도서지역 읍성은 축조수법에 있어서는 육지읍성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도서지역 역시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하에 읍성이 축조되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도서지역 읍성 성곽의 둘레와 높이에서 육지읍성보다 조금 더 크고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치성의 높이는 육지읍성들이 4~6m의 높이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읍성의 경우 높이가 10m로 매우 장대하며 치성 길이와 너비를 비교하여 보면 육지읍성이 각각 5~7m인데 반하여 제주읍성, 대정읍성치성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10m가 넘는 매우 큰 규모의 치성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치성의 평면형태에서는 진도읍성의 경우처럼 일반적인 방형이 아닌 반원형의 치성도 설치되어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그 외 성문과 웅성은 도서지역 읍성의 성문이 3문인 경우가 많으며 남해안의 읍성과 진·보성은 보통 4문의 형식을 보이나 2~4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호 비교 된다. 해자는 도서지역 읍성과 육지지역 읍성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장은 육지지역 읍성보다 도서지역 읍성에서 여장간격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화읍성의 경우는 전돌로 축조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도서지역 읍성 규모와 축조수법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의 공격시 도서지역의 거주인원과 수비 병력의 부족이 축성 규모 및 입지를 결정하는데 기인하였다.

각 도서지역별 읍성을 중심으로 한 관방체계로는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

다. 첫째 근기지역인 강화도와 둘째 근해지역인 거제도, 남해도, 진도 그리고 셋째 외해지역인 제주도로 나누어진다. 첫째 근기지역인 강화도에는 14성 9봉수 4요망대 1진과 돈대위주의 12진보 54돈대 8포대로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도성과 근접하여 해상으로 침투하는 외적을 물리치고 도성이 함락시 강화도로 천도하여 끝까지 결사 항쟁할 수 있는 요새화 된 보장처로서의 관방체계를 갖추고 있다. 둘째 근해지역인 거제도, 남해도, 진도는 육지와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지만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해상무역 항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조운로이기 때문에 늘 왜구의 표적이 되어 대왜구해상 방어체제의 거점 성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중 거제도는 고현읍성을 중심으로 7진과 6봉수 등이 있으며, 남해도에 남해읍성과 4진 4봉수, 진도에는 진도읍성과 2진 6봉수를 갖추고 있다. 셋째 외해지역인 제주도는 제주읍성과 정의읍성, 대정읍성을 중심으로 9진성, 봉수 25개소와 연대 38개소가 섬 전체를 에워싸고 있다. 이는 바다로 인한 고립성과 단절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외적에 대비하기 위한 관방체계를 가지고 섬 전체를 자체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도서지역 읍성은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왜구들에 대항하여 설치된 최일선 군사거점기지로써 백성의 안녕과 국토수호를 위해 영·진·보성과 돈대, 봉수 등의 관방시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도서지역 읍성은 육지읍성과 비교하면 몇가지 특징들이 확인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육지 읍성들에 비해 부족한 조사사례로 인하여 정확한 특징들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도서지역 읍성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축적하여 육지읍성 및 영·진·보성과의 비교를 통하여 전체적인 도서지역 읍성의 양상이 전체적으로 파악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보고서>

- 1) 강원문화재연구소, 「강릉 성내동 11-1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연구원 학술총서, 2006.
- 2) 강화군청·인하대학교박물관, 「강화 교동읍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 75책, 2007.
- 3)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읍성 북문지 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현장설명회의 자료」-도로구간-, 2007.
- 4) 경남발전연구원, 「거제옥포진성」, 2005.
「고현읍성」, 2006.
「고현읍성지 지표조사보고서」, 2001.
「마산 합포성지」, 2006.
「진주 광제산 봉수대」, 2006.
「진해웅천읍성」, 2001.
「하동읍성」 I, 2004.
「하동읍성」 II, 2006.
- 5) 경성대학교부설한국학연구소, 「금정산성 종합 복원 계획 수립 학술세미나」, 2006.
- 6) 경주문화재연구소, 「장기읍성 지표조사보고서」, 1991.
- 7) 김병모·심광주, 「안산읍성」, 한양대학교 박물관 총서 제9집, 1990.
- 8)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고정의현성」, 2004.
- 9) 당진군·대전산업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면천읍성」, 1999.
- 10) 동아대학교박물관, 「거제 고현성지」, 1991.
「거제시 성지 조사보고서」, 1995.
「거제시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서」, 1995.
「고성읍성지」, 2006.
「동래읍성 서장대·망월산정 건물지 발굴보고

서」, 1979.

「언양읍성 종합정비를 위한 학술조사보고서」, 2003.

11)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도서관 증축부지 내 김해고읍성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2006.

「사천읍성」, 2006.

12) 목포대학교박물관, 「강진읍성」, 2004.

「용장산성」, 2006.

「진도회동·녹진 관광지 사업예정 지역내 문화유적지표 보고서」, 2005.

13)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성·철마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2.

14) 밀양시·밀양대학교박물관, 「밀양읍성」, 2002.

15)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북천분관, 「동래읍성지」Ⅱ, 2006.

「동래읍성지 현장 설명회 자료3」, 2000.

16) 울산광역시·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울산 병영성 복문지」,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보고서 제11집, 2001.

17) 제주문화예술재단, 「대정읍성 학술조사 보고서」, 2006.

18) 진주시·경남문화재연구원, 「진주성 공북문」, 2000.

19) 창녕군·동아대학교박물관, 「영산읍성지 지표조사보고서」, 1998.

20) 통영시·경남문화재연구소, 「통영 미륵산 봉수대」, 2001.

<단행본>

1) 강건작, 「무기와 전술」, 윌커뮤니케이션, 2005.

2) 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3) 강화군·한림대, 「강화 조선 궁궐지」, 2003.

4)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성곽」, 2003.

5) 국립문화재연구소, 「강화석릉」, 2003.

- 「임진왜란 전후 관방사 연구」, 1989.
- 6) 국립부여문화연구소, 「사비도성과 백제의 성곽」, 서경문화사, 2000.
- 7) 국방군사연구소, 「고구려 성 I, II」, 1998
「왜구토벌사」, 『민족전란사』 9집, 1993.
- 8) 국사편찬위원회 영인, 「여지도서」, 1973.
- 9) 규장각, 「화성성역의궤」
- 10) 김동욱, 「수원성」, 대원사, 1989.
- 11) 김병하, 「을묘왜변고」, 『탐라문화』 8, 1989.
- 12)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세림, 2000.
- 13) 김오순, 「탐라순력도 산책」, 제주문화, 2002.
- 14) 김재근, 「한국 선박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4.
- 15) 대전직할시, 「대전의 성곽」, 1993.
- 16) 동국문화사 영인, 「증보문헌비고」, 1971.
- 17) 문화재관리국, 「전국 읍성 조사」, 1985.
- 18)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 19) 백종오·김병희·신영문, 「한국 성곽 연구 논저 총람」, 서경문화사,
2004.
- 20) 변영환, 「한국의 성곽」,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1978.
- 21) 서경석, 「백제의 성곽」, 학연문화사, 2002.
-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실록지리지』, 1973.
- 23) 손영식, 「한국성곽의 연구」,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7.
- 24) 심봉근, 「한국 남해연안성지의 고고학적 연구」, 학연출판사, 1995.
- 25) 심정보, 「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2004.
「한국읍성의 연구 -충남지방을 중심으로-」, 학연출판사,
1995.
- 26) 역사정보시스템, 「제주읍지」 등 지방읍지.
- 27) 이기훈, 「전쟁으로 보는 한국역사」, 지성사, 1997.
- 28) 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 -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에피스테메,
2007.
- 29)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 30) 이우태, 「한국 고대의 척도」, 『태동고전연구』 1, 1985.
- 31) 인천광역시, 「강화의 문화유적」, 2002.
- 32)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 학연출판사, 1994.
- 33) 제주국립박물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 『문화총서』 3, 2004.
「한국문화와 제주」, 『문화총서』 1, 2001.
- 34) 제주도, 「제주의 방어유적」, 1996.
- 35) 제주도·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2000.
- 36) 진도군, 「남도석성 및 주변 정비 계획」, 1999.
- 37)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 연구」, 단국대출판부, 1973.
- 38) 차용걸, 최진연, 「한국의 성곽」, 눈빛, 2002.
- 39) 최영희, 「임진왜란」,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1974.
- 40)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상,중,하)」, 1989.

<논문>

- 1) 김동현, 「우리나라 성문형식과 그 유형」, 『문화재 9호』, 1975.
- 2)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3) 김상옥,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 강창용 외, 『19세기 제주사 회 연구』, 일지사, 1997.
- 4) 김일상,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전략」, 『충무공 이순신 연구논총』, 해 군사관학교 박물관, 1991.
- 5) 김태중, 「경주읍성」, 『경주사학』 11, 경주사학회, 1992.
- 6) 김호일, 「양성지의 관방론」, 『한국사론』 7, 국사편찬위원회, 1982.
- 7) 나동욱, 「경남지역 읍성과 진성의 시·발굴조사 성과」, 『동아문화』 창간호, 동아문화연구원, 2005.
「김해 동상동 소방도로 개설구간내 김해읍성지 시굴조사」, 『박물관연구논집』 7,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1998.
「부산지역의 성지에 관한 검토」, 『박물관연구논집』 2,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1988.

- 8) 노영구, 「조선후기성제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의미」, 『운단학보』 88, 운단학회, 1999.
- 9) 류재춘, 「조선전기 성곽 연구」, 『군사』 33, 국방부 전사편찬 위원회, 1966.
- 10) 박방룡, 「신라 도성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11) 박승우, 「조선시대 안동읍성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12) 방상현, 「조선전기 성곽 기능고」, 『사학지』 16, 단국대사학회, 1982.
- 13) 성주탁, 「백제 성곽 연구」, 『백제연구』 15, 1992.
- 14) 손홍열, 「고려말기의 왜적」, 『사학지』 9, 단국대 사학회, 1975.
- 15) 신석호, 「려말선초의 왜적과 그 대책」, 『국사상의 제문제』 3, 국사편찬위원회, 1959.
- 16) 심봉근, 「조선전기축조 병영성에 대하여」, 『석당논총』 15,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1989.
- 17) 심정보, 「고려말·조선초의 하삼도 읍성 축조기사 검토」, 『석당논총』 20,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1994.
- 18) 양해웅, 「고창 무장읍성 발굴조사와 성격」, 『한국성곽학보』 9, 2006.
- 19) 오수정, 「19세기 제주읍성」, 강창용 외,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1997.
- 20) 오승연, 「칠원읍성」, 한국성곽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5.
- 21) 이용묵, 「한국성곽의 성문건축양식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2) 이일갑, 「거제 고현읍성에 대한 연구」, 『석당논총』 3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6.
「남해안 연해읍성의 해자고」, 『문물연구』 10,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한국문물연구소, 2006.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진·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마산 회원현 성지에 대하여」, 한국성곽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5.
「합천 대야성의 고고학적 검토」, 『한국성곽학보』 9, 2006.

- 23) 이재혁, 「조선시대 충청 해안지역의 성곽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24) 이창현, 「강릉읍성의 축조과정」, 『한국성곽학보』 9, 2006.
- 25) 이철용, 「조선시대 연변봉수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26) 이춘근, 「고대산성의 보존방안」, 『한국성곽학보』 10, 2006.
- 27) 장경호, 「해자의 기원과 그 기능에 관한 고찰」, 『삼불김원룡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2, 일지사, 1987.
- 28) 조효식, 「낙동강중류역 삼국시대 성곽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9) 차용걸, 「고려말·조선전기 대외 관방사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세종조 하삼도 연해읍성 축조에 대하여」, 『사학연구』 27, 1996.
「조선 성조대 해방 축조 논의와 그 양상」, 『백산학보』 23, 1977.
「조선전기 관방시설의 정비과정」, 『한국사론』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한국성곽의 사적고찰」, 『대학원 논문집』 5, 충남대대학원, 1975.

Abstract

A Study on Town Castles of the Chosun Period in Islands

By
Kang, Du-Yong

Dept. of Archeological Art History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Geopolitically, Korea is a peninsular country. Town castles in the islands of the country are located at places where maritime powers had to first pass to advance into the continent. Especially in the southern and western parts of the country, town castles in islands were not only main military bases, but also administrative posts.

According to their geomorphological and geographical locations, town castles in local island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five, or level and inland, level and coastal, hilly and coastal, hilly and inland, and mountainous and inland castles. Meanwhile, shapes of those castles, when seen with their plane figures, can be classified into square, circular and irregular shapes.

The town castles in islands were not so different in how to be built from town castles in the mainland of the country because they were, in most cases, built up after 『Chukseong Sindo』 was published in the 20th year of King Sejong's reign(1438).

Town castles in local islands are larger than those in the mainland of the country in size, especially in circumference and height. As one of the subsidiary facilities of town castle, chiseong can be classified into four

according to their shapes, or square, rectangular, quadrate and semi-circular chiseongs. The semi-circular chiseong is found only in Jindo Town Castle and chiseongs of the other three shapes are found in all the other town castles in local islands. Regarding the dimension of chiseong, the length and width of chiseong in town castles of the mainland and yeong · jin · bo castles each are respectively 5 to 6 meters in average, while those of chiseong in each of the town castles in islands, more than 10 meters. In terms of the number of gates, each of the town castles in islands has 3 gates, but town castles of the mainland and yeong · jin · bo castles each has 2 to 4 gates. There are not so big different between town castles in local islands and mainland in ongseong, haeja and yeojang.

Under the national defense system in the Chosun period, there were 14 castles, 9 beacons, 4 yomangdaes, 1 camp, 12 jinbos, most of which were actually in form of high ground, 54 high grounds, and 8 batteries in Ganghwa Island as a region nearest to the mainland and, as coastal regions, 1 town castle, 7 camps, 6 beacons in Geoje Island and 1 town castle, 4 fortresses and 4 beacons in Namhae Island and 1 town castle, 2 fortresses and 6 beacons in Jin Island and, as a region in the open sea, 3 town castles, 9 fortresses, 25 beacons and 38 yeondaes in Jeju Island.